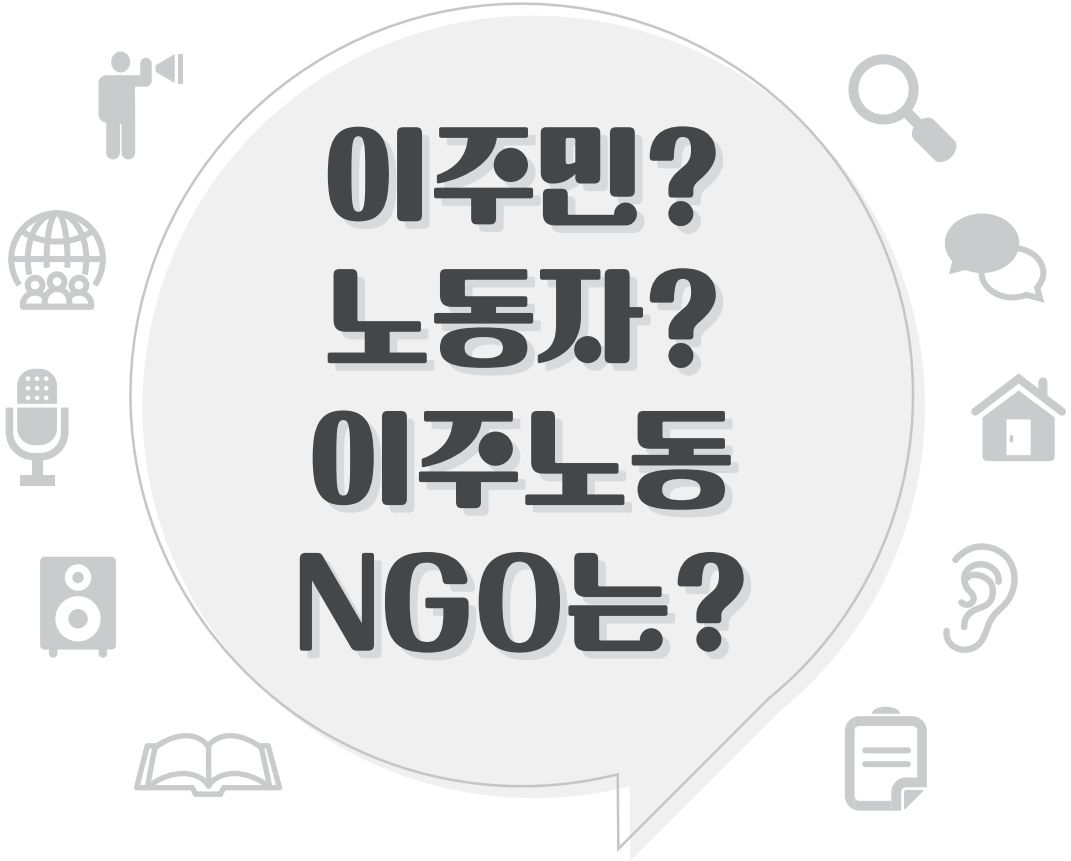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



이주노동 NGO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인사말

이번에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송은정 사무국장과 김지호 기획팀장의 인터뷰 글과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의 “이주노동 NGO 활동의 역사”를 먼저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보려 합니다.

한국에 이주민(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이 200만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제법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고가 아니면 농어촌과 중소기업, 자영업 등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를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농어촌 또는 이주노동자가 밀집되거나 모이는 곳이 아니면 과연 얼마만한 숫자인지 감이 안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만.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 중 대구 243만, 대전 150만, 광주 146만, 울산 114만 임을 보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이런 큰 도시의 인구만큼이 이주민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요. 게다가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1, 2위를 다투는 문제는 바로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대안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올 수 밖에 없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듯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법과 제도로 막고 차별하려 해도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는 길 외에는 모든 방법이 이 사회를 시끄럽게만 할 뿐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요.

인사말

정영섭 국장의 글은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과 변화, 문제점과 더불어 NGO활동의 역사, 앞으로의 역할 등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필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송은정 국장과 김지호 팀장은 4명의 이주인권단체 활동가와 6명의이주민 활동가 인터뷰를 진행했고, 만들어진지 10년이 되어가는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빼고 더함이 없이 실어낸 생생한 살아있는 글입니다.

이 두 편의 글은 이주노동NGO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센터의 역사와 현재 상황, 앞으로의 방향과 해야 할 일 등은 창립 10주년을 맞는 2021년에 다같이 토론하며 찾아나가야 할 일이겠지요.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이렇듯 훌륭한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한 사무실에 비슷하고 좋은 생각을 가진 NGO 단체가 함께 모여 일한다면 진짜 좋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부드러운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건강합시다.

2020년 12월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 한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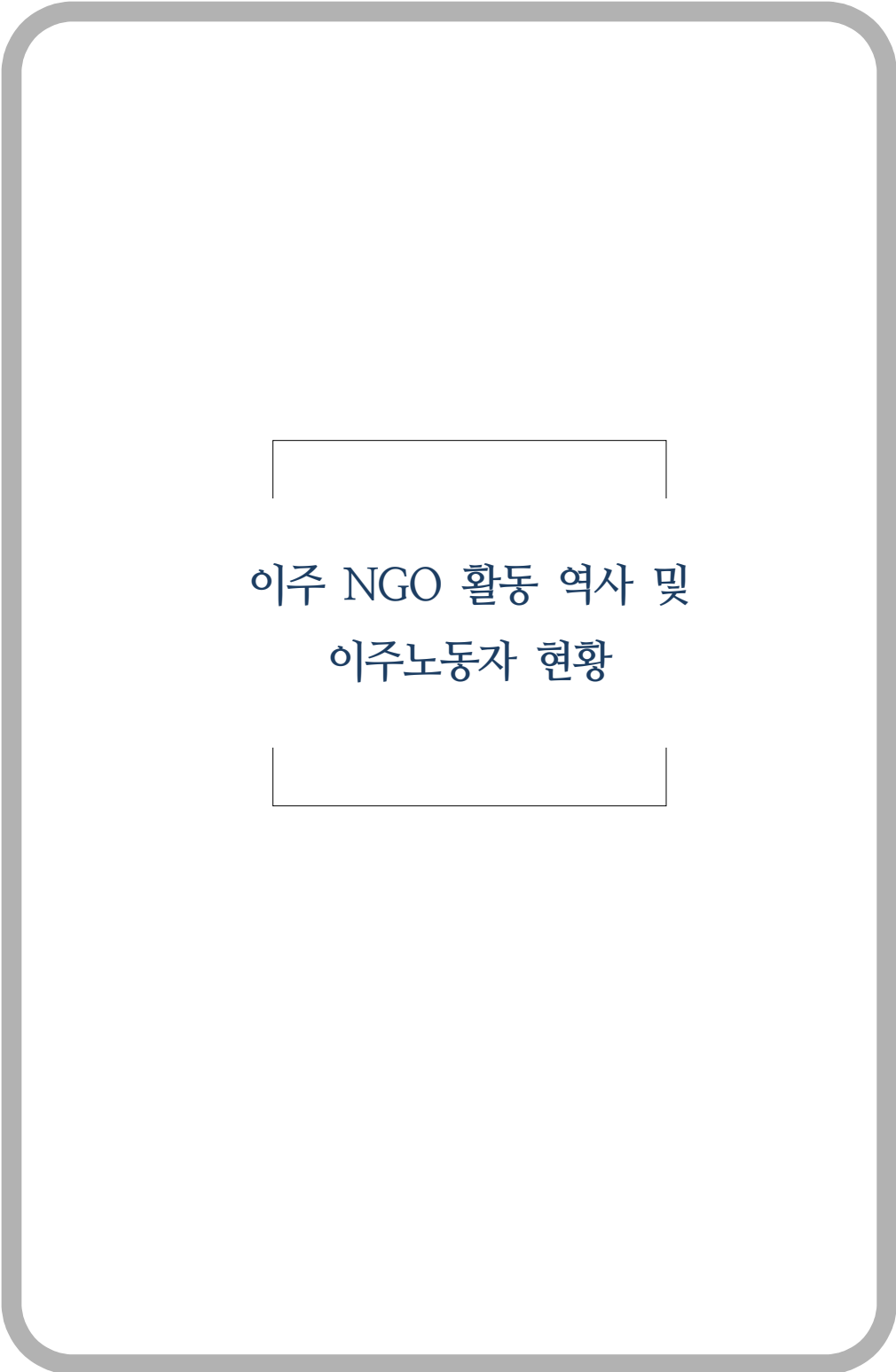
| | |
|------------------------------------|----|
| 인사말 | 1 |
| 이주 NGO 활동 역사 및 이주노동자 현황 | |
| 1. 서론 | 7 |
| 2.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형성과 발전: 90년대~2000년 | 9 |
| 1) 잘못 끼워진 첫 단추 : 산업연수생제도 | 9 |
| 2)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설립과 활동 | 12 |
| 3) 이주노동자지원단체 간 연대체 형성 | 13 |
| 3.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분화와 다양화 | 18 |
| 1) 이노투본과 평등노조 이주지부 | 18 |
| 2)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20 |
| 3)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20 |
| 4)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의 활동과 쟁점 | 22 |
| 5) 이주여성단체 활동 | 31 |
| 6) 다양한 지원 단체 설립과 활동 | 31 |
| 4.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활동 | 37 |
| 1) 이주노조의 활동 | 37 |
| 2)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응 투쟁 | 40 |
| 3) 남양주 마석공단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에 대한 대응 | 42 |
| 4)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자 무죄석방 운동 | 46 |
| 5)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 투쟁 | 47 |
| 6)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투쟁 | 49 |
|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대응 | 51 |
| 8) 어선원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 55 |
| 9)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실태 대응 | 59 |
| 10)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대응 | 62 |

목 차

| | |
|--------------------------|----|
| 5.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의 분야 | 65 |
| 6. 이주민 현황 | 74 |
| 7. 결론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의 전망 | 76 |

이주 NGO 활동 역사 및 이주노동자 현황

| | |
|------------------------|-----|
| 1. 조사연구의 취지 | 83 |
| 2. 조사대상자 | 84 |
| 3. 조사 및 기록방법 | 85 |
| 4. 인터뷰 내용 요약 | 85 |
| 이율도 대표 (이주인권컨텐츠랩 액트-잇) | 89 |
| 이한숙 소장 (이주와 인권연구소) | 101 |
| 김용철 상담소장 (성서공단노조) | 111 |
| 김호철 사무국장 (성요셉 익산노동자의집) | 127 |
| 다닐로 알게라 대표 (필리핀커뮤니티센터) | 139 |
| 또뚜야 상담원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148 |
| 차민다 부위원장 (성서공단노조(STU)) | 158 |
| 원옥금 대표 (이주민센터 동행) | 167 |
| 송청란 상근활동가 (이주민방송MWTV) | 180 |
| 왕지연 회장 (한국이주여성연합회) | 189 |



이주 NGO 활동 역사 및
이주노동자 현황

이주 NGO 활동 역사 및 이주노동자 현황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1987년 봄 동아일보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한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설동훈, 2003)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송출국으로서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입국 혹은 목적국이 된 원인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경제의 성장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3저 호황과 맞물리면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1인당 GDP도 상승하였고 내국인의 외국으로의 이주노동이 줄어들었다.

둘째, 내국인 임금의 상승이다. 경제성장과 동반하여,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대거 결성되었고 임금이 상승되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저임금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셋째, 해외 투자(주로 아시아 국가), 기업 구조조정과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한국 자본이 외국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지 노동자들과 한국 자본의 연계가 형성되었다.

넷째,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한국의 성장 이미지가 아시아 각국에 널리 알려졌다. 이는 살만한 나라, 일자리가 있을 법한 나라로 보여지게 되었다.

다섯째, 내국인의 3D업종 기피현상이다. 대학교육의 일반화로 인해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더럽고 위험

하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당시에 관광비자나 단기방문 비자 등이 규제가 강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렵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브로커를 통해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체류 신분으로 공장에 가서 일을 하였다. 이주노동에 대한 아무런 제도도 없었고 정부는 이러한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을 묵인, 방조하였다. 이들을 출국시키면 저임금으로 3D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등록체류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문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부터 이주노동단체들이 만들어졌다.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커지자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1994년부터 실시하였는데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각종 착취와 차별 문제도 증가하면서 이주노동 단체들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네팔 산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공대위 결성 및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라는 연단체 결성으로 이어졌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과 산업연수생제 폐지 등을 위해 활동을 전개했다. 2000년대 초에는 외노협이 분화되었다. 2000년에 외노협 내 일부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노투본)을 결성하였고 2001년에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를 만들었다. 이주노동자운동을 노동운동, 계급운동으로 접근하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03-2004년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거쳐 2005년 4월 ‘서울경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결성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흐름은 2001년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를 발족한 흐름이다. 이들은 이후 외노협에서 분화된 단체들과 함께 2004년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를 결성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관 주도 다문화주의는 급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정착과 한국사회 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도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생겨났다. 또한 난민, 이주아동 등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단체들의 활동이 늘었고 네트워크들이 형성되었다. 성장과 발전, 정체, 다양화를 겪으며 단체들은 현재 ‘이주인권단체’로서 정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운동 가운데 이주노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 활동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2.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형성과 발전 : 90년대~2000년

1) 잘못 끼워진 첫 단추 : 산업연수생제도

1987년을 전후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일하며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 정부는 이를 묵인하다가 1992년 6월에 두 달 동안의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 제조업 종사자에 대해 연말까지 출국유예 기간을 주었다. 출국유예 기간은 4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약 2년간이나 이어졌다. 다른 대책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출국시키는 것에 기업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¹⁾

더 많은 값싼 외국 인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규모가 적었고, 본격적인 유

1) 이한숙, <한국 이주노동자운동>, 《대한민국인권근현대사 : 인권운동사》 p367, 국가인권위, 2019

입이 시작된 것은 199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산업연수생제)’였다. 이 제도는 한 마디로, 생겨나서는 안 되는 괴물 같은 것이었다.

민간 송출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수협, 건설협회 등의 연수추천단체가 연결되어 연수생에게 과도한 송출비를 부과하고 연수생관리비 명목으로 뜯어가는 강제노동 인신매매에 가까운 인력장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이 아니고 법무부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한 이 제도가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인권을 고려했을 리 만무했다. 연수생은 노동자였지만,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았다. 여권과 통장 압류, 폭언 폭행, 외출금지, 임금 미지급, 산재보상 미적용 등 온갖 인권유린의 온상이었고 ‘현대판 노예제’, ‘노예연수제’ 등으로 비난받았다. 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도망가서 미등록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결국 연수제는 제도로써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었다. 2002-2003년에 미등록체류율은 80%에 달하게 되었다.



94년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네팔산업연수생, KBS영상 화면 캡처

<연수생 제도의 변천>

| 시기 | 제도 변화 | 비고 |
|---------------|---------------------------------------------------------------------------------------------------|-----------------------------------------------------------------------------------------------------------------------------------------------|
| 1991. 11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실시 | 현대판 노예제도의 시작 |
| 1992.6-1994.5 | 6개월씩 4차례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미봉책 |
| 1993.11 | 산업연수생제도 실시 | 현대판 노예제도의 확대 |
| 1995 |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했으나 중기협 등의 반발로 무산 | |
| 2000.4 | 2+1 연수취업제 실시 | |
| 2002.4 | 1+2 연수취업제 실시(02.4.17 이전 입국자는 2+1년, 이후 입국자는 1+2년) | 중기협 반발로 고용허가제 도입 어려워지자 연수취업제 확대 |
| 2002.3 |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 발표 자진신고자에 대해 2003.3까지 단속 추방 유예. 약 256,000명 신고함. |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이미지 차원에서 유예 |
| 2003.3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 입장 확정·발표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03.3 출국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03.8말까지 일괄 재유예) | 대규모 단속추방 예고한 것임 |
| 2003.9 | 03.3.31기준 국내체류기간 4년 미만 미등록체류자(227,000명)에 대하여 합법화조치 시행 | 체류기간 3년 미만자는 총 체류기간 5년 이내 범위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 허용 체류기간 3-4년인 자는 자진출국후 재입국하면 총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 체류기간 4년 이상인 자와 미신고자는 무조건 출국 대상 |
| 2003.11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 실시 |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작 |
| 2007.1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도로 통합 | 해투기업연수생제도는 아직 남아 있음 |

2)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설립과 활동

1990년대 초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활동들이 있었고, 지원단체가 설립된 시기는 1992년이였다. 1992년 5월에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으로 2002년에 개칭)’이 설립되었고, 8월에는 명동성당 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가 생겼으며 11월에는 구로에 ‘외국인노동자 피난처’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외국인노동자 선교 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구로동 갈릴리교회에 두었는데 ‘갈릴리교회 외국인노동자 상담소’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희년선교회’도 발족하여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였다. 1993년 초부터 국내에는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형태의 지원 단체들이 서울·수도권에서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가 가장 많이 설립된 때는 1994~1997년이다. 이 시기는 산업연수생 노동자 수가 급증한 때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체도 결성이 되었는데, 1992년 9월에 ‘삼파기타 필리핀 공동체’(Sampaguita Philippines Community), 1993년 1월 네팔상담협회(Nepalese Consulting Committee, NCC) 등이 결성되었다.

안양 ‘전·진·상 복지관’상담활동(1993. 1)(1997년 4월에 복지관 산하 ‘안양이주노동자의 집’설립)을 비롯해 대구, 인천, 시흥, 부산, 수원, 구미, 안산, 창원, 의정부, 익산 등에서 가톨릭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만들어졌고, 1994년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1996년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1997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의 기독교계통 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며, 1997년 남양주 살롬의 집 등 성공회 단체들도 생겨났다. 1994년 중국노동자센터,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2001년 인천 한국이주노동자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상담·복지·교육 활동, 이주노동자 공동체 지원, 이주노동자 권리 확보 운동, 연수제도철폐 등 이주노동자제도 개선 운동을 실천하였다.²⁾ 이주노동자의 증가, 이주노동자가 겪는 각종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사회부문별 분포, 2000년³⁾>

| 사회부문 | | 단체 수(개) | 비율(%) | 부문별 분포(%) |
|-------|---------|---------|-------|-----------|
| 사회운동 | 시민운동단체 | 5 | 5.6 | 5.6 |
| 종교계 | 천주교 | 11 | 12.2 | 87.8 |
| | 예수교장로회 | 48 | 53.3 | |
| | 기독교장로회 | 11 | 12.2 | |
| | 감리교 | 6 | 6.7 | |
| | 침례교 | 1 | 1.1 | |
| | 성결교 | 1 | 1.1 | |
| | 성공회 | 1 | 1.1 | |
| 전문서비스 | 의료봉사단체 | 4 | 4.4 | 6.7 |
| | 법률서비스단체 | 2 | 2.2 | |
| 계 | | 90 | 100.0 | 100.0 |

자료: 설동훈(2002),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 10년간의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 6(봄).

3) 이주노동자지원단체 간 연대체 형성

미등록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 1994년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14명의 산재피해 노동자들(방글라데시, 네팔, 에티오피아)이 경실련 강당에서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농성을 하였다. 그 중 네팔 노동자 나바라즈는 산재로 뼈가 부러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장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2) 이상 내용은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문화과학사, 2003 참고

3) 설동훈, 위의 글

강제 출국시키려고 해서 병원을 도망쳐 나왔고, 먼주 파타는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는데 머리채를 휘어 잡힌 채 공장에서 쫓겨났다.⁴⁾ 이 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와 ‘갈릴리교회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구리노동상담소’ 등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했고⁵⁾, 농성의 결과로 노동부가 미등록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을 3년 전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을 만들어 본국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아 노동부에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⁶⁾



1994년 경실련강당에서의 농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자료

1995년에는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 입구에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천막 농성을 하였다. 농성장에는 “때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월급을 주세요”, “여권을 돌려주세요”, “강제노동 중단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피켓과 플래카드가

4) 이한숙, 위의 글

5) 설동훈, 위의 글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자료,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보도자료, 1994.9.12

내걸렸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며 “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⁷⁾ 이 투쟁은 이주노동자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계기였다.



1995년 네팔산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자료

농성단은 정부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원치 않는 잔업, 시간외 근무 강요금지 ▲업무상 질병 재해 시 보상 및 치료 ▲연수수당 직접지급 ▲미지급 임금 즉시 반환 ▲애로신고센터 설치 활성화 등 9개 사항에 합의하며 열흘간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95.2.14 노동부 예규 제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발표하여 산업연수생에게 산재보험, 의료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적용 및 폭행금지 등 근로기준법 8개 조항의 적용을 발표했다. 이 농성지원을 위해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이후 10여 개 이주인권단체(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함 모임,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노동자센터, 외국인

7) 이한숙, 위의 글

노동자마을, 시화일꾼의집, 천주교수원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 등)와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1995년 7월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이주노동자운동 상설 연대체였다. 외노협은 1995년 10월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10월 공동행사"를 위해 외노협 10개 단체를 포함한 39개 시민, 종교, 노동 단체가 참가하여 공동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인사 기자회견, 외국인노동자 문화한마당,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96년에는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근자도 2명 배치하였고, "노동과 평등"이라는 제호로 회보를 발간하였다.⁸⁾ 95년 민주노총 창립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는 외노협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최초로 참여해서 발언과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1995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전야제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과 외노협, 유튜브 캡처

1995~2000년 사이에 이주노동자 관련 노동인권 운동은 외노협으로 대표되었다. 1996년 6월에는 성남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 집 소장파 사무국장을 구속하는 상담지원단체 탄압에 맞서 외노협이 중심이 되

8) 박석운, <한국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외노협·홍콩 AMC공청회자료, 1996.9.19

어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였고,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진행하였다. IMF경제관리체제 시대인 1998년 겨울에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을 받아 실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쌀과 연료를 지원해 주는 “실직외국인노동자 겨울나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999년 5월에는 귀환 및 재정착에 관한 프로그램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0년 4월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를 발간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1996년도 입법안을 보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9) 1995년 결성 이후 외노협은 40여 개 이상의 가입단체로 확대되었다.



1996년 외국인보호법제정운동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자료

9) 박석운, <한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네트워크현황과 연대방안의 모색>,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자료, 2001

3.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분화와 다양화

1) 이노투본과 평등노조 이주지부¹⁰⁾

외노협의 활동은 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이주노동자운동이 한국사회운동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주노동자운동이 당사자 주체들의 활동과 운동보다는 지원·연대운동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 성과와 유의미성이 있었고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원단체가 기획하는 투쟁의 내용들을 이주노동자들이 전달받고 참가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이던 이주노동자운동이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이 없었던 1998-1999년을 거치며 지원 단체들 중심의 운동이 되었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주체적 운동,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던 외노협 내 일부 한국인 활동가들은 외노협을 나와서 뜻을 같이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 2000년에 이노투본을 결성하였다. 이노투본은 결성선언문에서 “95년 네팔노동자 투쟁이 우리의 선배”라고 하며 “이주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렸던 보호대를 뜯어내고 굳건한 노동대오로서 확연히 일어서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노투본은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촉구했고 이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는 반대했으며 미등록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주요 활동은 공단순회 토론 및 교육활동, 4개 국어 이주노동자신문(Migrant workers' voice) 발간,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비정규노동자 투쟁 연대 등이었다.

이노투본은 2001년 5월에 서울경인평등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주노동자지부를 결성하였다. 설립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었기에 가능했

10) 이윤주, <이노투본,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사례(~2003년 5월: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대두>,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4 참고

던 노조 지부 설립이었다. 이주지부는 ‘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반대, 합법화 쟁취’요구로 이주노동자 대중 집회, 노조 조직화 확대 등의 활동을 해나갔고, 2002년 4월 7일에는 동대문 훈련원공원에서 ‘불법체류 일제 등록 거부와 합법화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1천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기도 하였다. 정부 당국이 이후 집회를 탄압하자 이주지부는 4월 28일부터 명동성당에서 77일간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를 내걸고 농성투쟁을 전개하였으며, 70여개 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연대하였다. 2003년에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이후 예고된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 이주지부는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을 민주노총, 여러 이주공동체, 연대단체들과 함께 1년이 넘게 명동성당에서 전개하였다. 이는 2005년의 서울경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설립으로 이어졌다.



2002년 평등노조이주지부의 명동성당 농성, 오마이뉴스 2002.5.10
 왼쪽부터 필리핀 마크, 네팔 버즈라, 방글라데시 비두, 네팔 자르나단,
 방글라데시 꼬빌

2)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외노협 가입단체 가운데 지향과 노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러 단체들이 2000년대 초반에 분별 정립을 하였다.

“초기 적은 수의 단체들 간의 결속도가 높았던 외노협은 이제 지향과 활동성격이 다른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단체 간의 연결망과 지원체계 이상의 성격을 띠기 어려웠다. 결국 외노협은 2000년 제도개선투쟁 과정에서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드러내며 하나의 조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활동내용과 방식에 따라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내의 분화가 시작되었다.”(정귀순, 2004: 5~6) 2001년 3월, 외노협에서 탈퇴한 단체들이 보다 운동 지향적이고 성인지적인 활동을 지향하며 이주·여성인권연대를 만들었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에 집중한 대전포럼의 시기를 거쳐 2004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현 이주인권연대)를 출범시켰다.¹¹⁾ 정부와의 관계 설정 입장 차이, 다양성과 전문성의 요구 수용 문제, 종교 성직자 중심의 주도성과 대표성 문제 등이 겹치고 쌓인 것이 분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

3)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

이노투본, 평등노조 이주지부에서부터 2003~2004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기를 거쳐 2005년 이주노조 설립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함께 연대했던 노동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

11) 이한숙, 위의 글

12) 박천웅, <이주노동자 운동과 지원단체의 활동 전망>,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주최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 2003 참고

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였다.

원래 2005년 노조설립 이후 이주노조 초대 아노와르 위원장의 표적 단속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체인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14개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수유+너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여성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등의 이주단체네트워크까지 포함하는 이주노동자 이슈 중심의 연대체였는데 2007년 여수화재참사대책위 활동을 거치며 재정비와 확대를 거쳐 '이주공동행동'으로 전환되었다.



2018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주최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뿐 아니라 노동·사회·정치·인권 등 제반 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등 노동

운동 경향을 대표하였다. 시기 시기마다 이주공동행동은 정부정책 비판, 대중집회, 항의행동 조직, 이슈별 연대체 제안 등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가입되어 활동하던 한 단체와의 연대유지 문제가 2020년에 불거져서 이주공동행동 활동은 중단되었고, 새로이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한 연대’(이주평등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4)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의 활동과 쟁점

이와 같은 분화가 2000년대 초에 시작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일 것이다. 법무부 주도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외국인력 제도인 괴물 같은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노동부가 1995년에 고용허가제를 추진했으나 다른 부처와 중기협 등의 반대에 부딪혀 되지 않았다. 이후 연수생 도입 숫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1996년에 외노협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동을 하였고 2000년 11월에는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활동하며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이 두 가지 법안의 뼈대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5년 이상의 특별 노동허가 등이 포함된 노동허가제였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의 대안은 외면하였고 2000년에 연수취업제(2년 연수생으로 일하고 1년 취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연수취업기간을 확대(연수1년+취업2년)하는 식으로 미봉책만 내놓았다. 당연히 단체들의 반발은 커져만 갔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김해성 노수희 단병호 문정현 박순희 유현석 이남순 이정호 이철순 이해동 이해학 임영담 최갑수 홍근수 홍성현)의 2002년 4월 1일 기자회견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범죄행위와 같

은 연수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정부는 연수제도를 통하여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여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를 사면하고 합법적 노동권을 부여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



2004년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기자회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참가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독교시민사회연대/녹색연합/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대한예수교장로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국제노동정보센터/서울여성노조/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 민주교회 선교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국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조선족복지선교센터/좋은벗들/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크리스찬아카데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교사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

연대/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명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갈릴레아/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2002년 4월 열린 평등노조 이주지부 집회, 이주노조 홈페이지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앞두고 3월에 정부가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5월 2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미등록 체류자와 고용주 처벌을 면제하고 2003년 3월 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고용허가제 추진을 앞두고 미등록체류자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기도 하다. 이 대책은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평등노조이주지부, 이주여성인권연대 등은 자진신고 정책이 ‘단계적 추방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이주지부는 4월 7일에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와 합법화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추방정책에 분노한 이주노동자 1천여명이 모였고, 이러한 폭발

적 반응에 서로 놀라고 사기가 고양되었다.

이후 공안탄압을 받게 되자 이주지부는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 단속 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를 내걸고 4월 28일 이주노동자 활동가 꼬 빌, 비두, 버즈라, 자르나단 등을 중심으로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70여개 사회단체는 5월에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지부의 농성 연대에 나섰다. 공대위는 "자진신고가 1년 동안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조치가 아니라 단계적인 추방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13) 이주지부는 "지금은 정부가 던져놓은 정책이 이끌리기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허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할 때"라고 보았다. 농성에 참여한 네팔노동자 버즈라는 "1년 동안 체류허가를 받았다가 도망간다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며 "도망가면서부터 쫓고 쫓기는 생활과 강제추방은 다시 시작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14) 이에 대해 외노협 측은 정부 대책을 미봉책이자 졸속책으로 비판하면서 1년간의 시한부 사면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한 전면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진신고 여부는 이주노동자들 자신이 결정하게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원단체의 사정에 따라 대응하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5)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현실에서의 대립과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은 더욱 첨예한 쟁점이었다. 양측 모두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본적 지향

13) 이윤주, 앞의 글 참고

14) 매일노동뉴스,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앞에 둔 외국인노동자를 찾아>, 2002.5.15

15) 석원정, <법무부시행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2002. 노동인권회관 홈페이지(inkwon.or.kr) 문서자료실 참고

은 유사했으나 외노협 측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에 대한 차선책으로 보고 지지하였고 2003년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2003년 6월 국회앞에서 열린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회, 오마이뉴스2003.6.16.

이주지부 측은 고용허가제 반대를 명확히 하며 이주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였다. 길으로 드러난 쟁점은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성 여부도 차이가 컸다고 보여 진다. 즉 당시 대다수였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요구와 울분을 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으로 표출함에 있어 당사자의 주체적 활동과 주도성의 차이도 실질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2003년 11월까지 이주지부는 지속적으로 조직화를 하여 10월에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자발성을 계속 끌어내었다.

2003년 8월 고용허가제법 통과 이후 11월의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앞두고 11월 15일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농성은 이주지부, 네팔공동체,

필리핀공동체, 인도네시아공동체,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민주노총 및 노동사회단체와 외노협 공대위가 함께 공동 농성단으로 출발하였으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차이와 농성단 운영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농성 이 틀 만에 명동성당 농성단과 성공회성당 농성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후 2004년 1월에 정부가 자진출국 시한 연장과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으로의 재입국 방안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성공회성당농성단은 2월 6일 농성을 마무리하였다.¹⁶⁾ 명동성당 농성단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4년 11월 28일까지 농성을 이어나갔다.

2004년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여러 가지 계약과 변형을 거치며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의 제한 문제는 이주노동자를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UN의 여러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과 ILO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에 끊임없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된 바 있고, 2020년에 다시금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이주인권단체들과 이주노동자가 함께 제기하였다.



2003년 명동성당 농성(좌), 농성단장을 맡았다가 2004년 추방된 네팔노동자 서머르 타파(우), 참세상 2003.11.30.

16) 서선영,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조직화사례: 2003년 5월~2005년 4월 이주노조 설립총회까지>, 《이주노동자 노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4 참고

<고용허가제의 변화>

| 시기 | 제도변화 | 비고 |
|-----------|------------------------------------------------------------------------------------------------------------------------------------------------|------------------------------------------------------|
| 2004.8.17 | 고용허가제 시행 | 고용기간 3년, 1년 단위 계약 |
| 2005.5 | 재취업 제한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3년 고용 후 출국 시 고용주가 재고용하면 제한기간 1개월로 단축 | 3+3년 |
| 2010.4 | 재고용 시 출국 없이 1년 10개월 근로 3년 이내 계약으로 계약기간 늘림 사업장변경 사유 추가(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사업장변경 횟수 조정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횟수 미산입) 구직기간 조정(2개월에서 3개월로) | 3+1년 10개월. 고용주에 대한 종속 기간을 3년으로 늘림 사업장변경에 대한 일부 개정 |
| 2012.7 |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를 법률 규정에서 장관 고시로 변경 | 사업장 변경요건 강화 |
| 2012.7 |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도입. 사업장 변경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주가 재고용 시 재입국 허용 | 사업장 변경하지 말라는 신호 |
| 2012.8 | 사업장 변경지침 변경. 구직자에게 구인업체명단 주던 것을 구인업체에 구직자정보 주는 것으로 바꿈 | 사업장 변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선택권마저 박탈 |
| 2014.7.29 | 퇴직금(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로 변경 | 퇴직금제도 개악 |
| 2017.2.6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 제정 | 숙식비 강제징수 |
| 2017.7.16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정 | 제한된 사유 세분화 |

참고 - 가입단체 현황

<2002년 외노협 가입단체>

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명외국인노

동자인권문화센터/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엠마우스/여성교회이주노동자여성센터/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갈릴래아/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노동자살롬의집/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원불교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조선족복지선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길공동체의집 (37개 단체)

<2020년 외노협 가입단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민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16개 단체)

<2004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가입단체>

갈릴리교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시화공단선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지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엘림미션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외국인노동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 전주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로스선교회,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22개 단체)

<2020년 이주인권연대 가입단체>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9개 단체)

<2009년 이주공동행동 가입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장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개 단체)

<2020년 이주공동행동 가입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개 단체)

<2020년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 가입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20개 단체)

5) 이주여성단체 활동¹⁷⁾

이주여성들은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남성과는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1996년 2월 개소한 외국인 여성노동자상담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 체불을 경험하는 등 남성 노동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20-30대 여성의 경우 10% 이상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의 경우에는 그 경험이 20%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1999년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처음으로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두레방의 경기북부 지역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 기지촌 여성의 89%가 외국인 여성으로 확인 되었다. 이주여성이 등장하는 또 다른 측면은 국제결혼과 관련이 있다. 2002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1만 건을 넘어 섰고, 2005년에는 3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여전히 해마다 1만 5천 건 이상의 국제결혼으로 이주여성이 입국하고 있다. 2001년 7월 15일, 독일 기독교의 후원과 민간 모금으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부설로 이주여성노동자의 집이 개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주여성 전용 쉼터였다. 2003년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로 개칭하였다. 2018년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정부 지원 이주여성 폭력 피해 쉼터는 모두 28 곳이다.

6) 다양한 지원 단체 설립과 활동

(1) 공익법률가 단체

공익법률가 단체는 2004년에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7) 이주여성운동 역사에 대해서는 허오영숙, <이주여성운동>, 《대한민국인권근현대사 : 인권운동사》, 국가인권위, 2019 참고

으로 활동 시작한 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시작으로 해서 제반의 비정규노동·인권·사회적소수자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다. 2013년에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전환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2011년에 창립되었고 주로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에 창립되어 소수자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두루, 동천, 정, 화우공익재단 등 기존 법무법인이 만든 공익법인에서도 변호사들이 이주인권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광주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공익,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이주노동자 권리운동에 참여하면서 기여를 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된 ‘이주민센터 친구’는 공익변호사들이 주축이긴 하지만, 이주민과 함께하는 비영리단체를 표방하며 이주노동, 아동청소년, 중국동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2) 정부 지원 기관의 확대

민간 영역의 지원 단체,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90년대 이래로 이주노동자 연대운동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 주체들과 함께하고 사회적문제제기와 제도변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위 관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정부 지원 기관이 확대되었다.

2004년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 인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은 한국 다문화 정책의 출발이 되었다고 한다.¹⁸⁾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한국사회 동화를 목적으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자, 양육자, 돌봄자, 노동자 등 중첩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빨리 한국사람화 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출발했으나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된 바, 이와 관련된 많은 기관이 생겨났고 제도화되어 민간단체가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을 받거나 직접 기관을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운동단체로서 역할을 해 왔던 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양날의 칼 같기도 했다. 단체 유지, 재정적 어려움 타개, 인적 물적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나 기관위탁을 하지만, 그만큼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운동성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운동을 지향하는 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지원 단체는 총 564개(시군구별 평균 2.3개)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센터나 복지관,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102개, 종교단체가 121개, 상담소나 쉼터와 같은 민간기관이 341개이다. 외국인 지원 민간기구가 1개 이상인 지자체는 171개(69%)이다.¹⁹⁾ 현재는 더 늘어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민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기관, 단체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다.

18) 김옥, <주요 선진국가의 다문화정책 방향 비교 분석: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0

19)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참조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단체 현황> (2015 행정안전부 자료)

| 구분 | 공공기관 | 종교단체 | 민간단체 |
|-------|---------------------------------------------------------------------------|-------------------------------------------------|-------------------------------------------------------------------------------------------------------|
| 서울특별시 | ·서울 글로벌센터 | | |
| 종로구 | ·종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가톨릭서울대교구 노동사목 위원회 소속 혜화동 필리피노 가톨릭 공동체 |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다문화연대 사무국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중구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용산구 |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이 촌 글로벌빌리지센터 ·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용산나눔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BBB코리아 |
| 성동구 |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 |
| 광진구 | ·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나섬공동체 나섬교회 | ·세종교육센터 ·나섬공동체 재한몽골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몽골올린버타르문화진흥원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
| 동대문구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푸른사람들 |
| 종량구 | ·종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유리원광종합사회복지관 | | |
| 성북구 |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 | ·하나다문화센터다린 ·하나키즈오브아시아 |
| 강북구 |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도봉구 | ·도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아름다운비전센터 | |

| 구분 | 공공기관 | 종교단체 | 민간단체 |
|-------|------------------------------------------------------------------------------------------------------------------------------------|-------------------------------------------|------------------------------------------------------------------------------|
| 노원구 | ·노원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들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 |
| 은평구 |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외국인근로자센터 | ·중앙성서교회 | ·마을무지개 |
| 서대문구 |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재한조선족연합회 |
| 마포구 |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남 글로벌빌리지센터 | | |
| 양천구 |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출입국사무소 ·양천 외국인근로자센터 ·대한적십자사 양천강서 희망나눔봉사센터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 |
| 강서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석교회 | |
| 구로구 |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조선족교회 ·한중사랑교회 ·동포사랑교회 ·중국동포교회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재한동포연합총회 ·동포타운신문 |
| 금 천 구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사)국제민간교류협회 ·희년 선교회 | ·재한동포연합회금천지회 ·귀한동포연합회금천지회 ·다문화다사랑총연합회 ·(사)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 원협회 |

| 구분 | 공공기관 | 종교단체 | 민간단체 |
|------|-------------------------------------------------------------------------------------------------------------------------|------------------------|------------------------------------------------------------------------------------------------------------|
| |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 | |
| 영등포구 |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살레시오 다문화지역 아동센터 |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서울시 의사회 의료봉사단 ·(사) 이주동포 정책연구소 |
| 동작구 |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자원봉사센터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 ·결혼이민자여성 평등찾기 ·나눔재단 월드채널 ·렉스청소년문화교류연구소 |
| 관악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YMCA봉천종합사회 복지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과 ·관악무지개네트워크 ·서울대학교 외국인지원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청소년회관 | ·명락사 ·한국불교 선재마을 의료회 | ·국제학생회 ·볼런티어클럽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국제학생회 ·(사)행복문화인 관악지부 ·(주)아시안허브 ·(사)피플앤컴 |
| 서초구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강남구 |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다문화지원센터 | | |
| 송파구 |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신명실업학교 |
| 강동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내 강동 외국인근로자센터 | | |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227개 기초지자체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노동부 산하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서울,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 및 35개 소지역센터 등과 각종 종교기관, 지자체별 종합복지관 등 복지기관, 심지어 기업에서 만든 기관 등 수많은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4.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활동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영향력은 줄었고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이에 단체들의 활동도 기존 미등록 노동자 중심의 활동에 더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제반의 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다 보니 이전의 산업연수생 시절에 이주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단체들 중 일부는 비중을 점차 다문화 사업, 결혼이주민 지원사업 등에 더 두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했다. 이주여성, 이주아동청소년, 난민, 농어업 이주노동자 등 영역이 다양화 세분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분야의 쟁점과 문제를 발굴해서 운동의제화 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이하에서는 이주노동 관련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을 정리했다.

1) 이주노조의 활동

2003~2004년 농성의 결과로 2005년 4월 24일 설립된 이주노조는 존재 자체가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다. 5월 14일 새벽 1시 경 아느와르 위원장이 출입국단속반원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표적단속 당해서 1년 여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건강상태 악화로 2006년 4월에 일시보호 해제되었다. 2007년에 선출된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도 11월 27일 동시다발로 표적단속 되어서 이주노조는 37개 단체와 함께 ‘이주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99일간 항의농성을 전개하였다. 심지어 2008년 4월에 선출된 토르나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도 5월 2일에 동시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 출국되었다. 이러한 간부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조합원들에 대해

서도 표적단속이 자행되었다. 탄압 속에서 이주노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활적인 과제였다.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 소송이 2007년 고등법원에서 이주노조 승소 판결로 결론나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8년 간 질질 끌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이주노조를 뿌리뽑기 위해 간부, 활동가들을 싸그리 추방시키는 비열한 반인권·반노동 행태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2009년에는 최초로 고용허가제 출신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선출되어 활동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미셸 위원장이 허위취업이라며 고용허가제 비자를 박탈한 것이다. 법적 다툼의 와중에 2012년 2월에 본국을 방문했다가 4월 말 입국한 미셸 위원장을 정부는 입국 거부하고 다음날 추방시켰다. 그 이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에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이후 마문 부위원장이 합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5년에는 대법원에서 합법화 판결을 내려서 설립신고를 하게 되었다.



2005년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모습, 한겨레 2005.5.3.

이주노조는 역사적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의 상징과도 같았고 무수히 탄압받고 추방당하면서도 이주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과 협상, 임단협의 체결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체류지위 등으로 인한 노조활동의 조건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크다. 조합원 숫자는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노조 활동의 안정화와 질적 발전, 활동가 주체의 발굴과 육성 등은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이주노조만의 과제는 아니며 전체 민주노총, 노동운동 진영의 과제이기도 하다²⁰⁾



2015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받던 모습, 민중의소리 2015.8.20.

20) 정영섭,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례>,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4 참고

2)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응 투쟁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10명의 ‘보호외국인’ 사망, 17명 중상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주운동 진영은 전국적으로 80여개 단체가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보상, 보호시설 폐쇄 및 재발방지 대책,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화재 발생 당시 용역경비원만 근무하고 있었고 녹장대처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 구금되어 있던 이주노동자 중에는 임금체불 미해결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전혀 보호의 공간이 아니고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열악한 구금시설이며 생명과 안전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단체들은 공대위 결성과 함께 여수 현지에 활동가들을 파견하여 유족들을 지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2월 25일에는 서울역에서 1천여 명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 출입국관리 책임자 사임 등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여수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보호소, 출입국관리소 내 임시 구금시설 등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등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활동을 했다. 그리고 해마다 2월에 추모집회, 행사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호소의 열악한 상태 개선을 촉구하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평가토론을 통해 성과 지점으로 보호소 문제의 운동 쟁점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집중, 운동진영의 긴밀한 조직적 결합, 국제조직 및 해외 단체와의 연대강화, 지역사회단체 및 노동인권단체 등 새로운 조직의 적극적인 결합,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등을 꼽았다. 한계 지점으로는 요구로 내걸었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규명(법무부장관 퇴진 등), 여수의

국민보호소 폐쇄(또는 용도변경), 단속추방 중단과 전면합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체불임금청산, 통보의무폐지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가족 및 부상자와의 연계 문제 한계, 단속의 지속, 공대위 조직의 분열(공대위 일부 대표의 개별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한 공대위 내부의 갈등, 서울집회에서 한 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단체에 대한 비판 발언과 이를 이유로 한 연대활동 중단 등), 전국 공대위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²¹⁾



2007년 여수화재 참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과 시위하는 유족들, 참세상 2007.4.12.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LG칼텍스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솔샘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향린교회사회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 인권위원회, 문화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

21) 최현모,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활동평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평가 토론》 자료집, 2007.4.13. 참고

+너머,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 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감리교신학대학25대총학생회, 전국학생행진(건), 학생행동연대, 대학생사람연대(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정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교인연대, 인천생명평화기독교연대, 아름다운생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자처벌 및 강제단속추방중단촉구를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경북대학생행진(준), 경산이주노동자센터(준),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도시공동체,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동당대구본부, 민중행동(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센터, 인권운동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카시마코, 버미행동, MWTV

3) 남양주 마석공단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에 대한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이주민들과 사진도 찍고 하면서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3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180도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그 직후 서울출입국 600명, 부산 250명 등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별로 매일 단속 ‘목표할당인원’이 배정되고 ‘썩쓸이 단속’이 시작됐다. 5월에 이주노동자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적단속 되었다. 노동부는 미등록체류자 진정 사건에 대해 ‘선구제, 후 통보’ 방침도 없었다.²²⁾ 9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5년 안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0% 이내(당시 19.3%)로 줄이고, 현재 22만명인 불법 체류 외국인을 올해 안에 2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미등

22) 경향신문,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썩쓸이 단속’>, 2020.8.13일자

록체류자 탄압 인간사냥의 결정판은 11월 12일 마석공단 지역에 대한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었다.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과 경찰 등 280여명 규모의 정부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의 공장 밀집지 '청산농장'을 급습했다. 130여 명이 단속되었는데 특히 마석에서는 마치 군사작전과도 같이 도로를 다 막고 사업장과 숙소까지 불법적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창문을 깨고 쳐들어가서 두 시간 만에 백여 명을 잡아들였다. 야근을 마치고 자던 이주여성 노동자 기숙사 문을 부수고 들어가 머리채를 끌고 수갑을 채우는가 하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인권유린까지 자행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방글라데시인 오닉은 “여기저기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을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다”며 “잠긴 문에 소파를 던대어 간신히 피했다”고 말했다. 카메룬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담을 넘다 발목이 부러지는 등 단속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다.²³⁾



2008년 마석공단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으로 인해 부상당한 노동자, 오마이뉴스2008.11.18

23) 한겨레, <문 부수고 퇴로 막고 '토끼몰이'>, 2008.11.12일자

이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야만적인 단속을 규탄하는 한편 마석공단 내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응을 했다. 인권위는 2009년 3월에 인권침해 결정을 하고 법무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에게 과잉진압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 단속추방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해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얀마 건설노동자 판저테이씨가 건설현장에서 토끼몰이식 단속을 피하다 지하로 추락하여 뇌사상태에 있다가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기기증이 미담으로 보도되어서야 이 사안은 알려지게 되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즉각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노동자 故판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 법무부 사과, 책임자처벌, 단속추방중단과 재발 방지, 유족 배상 등을 요구했다.

(참가단체: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대책위는 진상규명 촉구 서명, 추모제, 인천출입국 앞 규탄대회, 법무부 면담,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 입국한 판저테이 부친과의 간담회, 단속실태와 대안마련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 징계, 직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법무부의 권고수용을 압박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2019년 9월에 1주기 추모문화제로 활동을 마무리했다.²⁴⁾ 그러나 판저테이씨의

죽음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2019년 9월 24일 김해 공단지역에서 단속을 피하던 태국노동자 품누 아누삭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10여년간 11명이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미안마노동자 故판저테이씨 추모집회, 살인단속 규탄 및 미안마 노동자 판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단속추방 중심의 미등록체류자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단기체류로 입국하여 초과체류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2020년에는 39만 명에 이르렀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자신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방문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해서 4만 명 이상이 출국했음에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시기로 인해 출국길이 막혀 있어서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24) 판저테이 대책위, <판저테이 대책위 1년 활동으로 본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및 추방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활동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샵>, 2019.12.11. 참고

귀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초과체류하는 이들도 늘어난 것도 이유이다. 사면 조치와 같은 획기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자 무죄석방 운동

태흥건설을 인천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고용허가제 건설노동자 180여 명이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총 6일 간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들 중 10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주동자로 지목되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의 구실로 2011년 3월에 구속되었다. 이 소식은 알려지지 않다가 5월 26일 1심 결심공판이 있기 직전에 알려졌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매일 12시간씩 주야간 조로 나뉘어 고강도 노동을 했는데 사측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식대로 한 달에 24만원가량을 공제했을 뿐만 아니라 1시간으로 보장된 식사시간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을 보장할 것과, 열악한 식사의 질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 자발적으로 일손을 놓았고 이후 사측은 요구를 수용해 사안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적 다툼을 파업과 연관시켜 총 27명의 노동자를 파업주도 혐의로 조사했고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차 파업 이후 8개월, 2차 파업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체포와 구속을 당했다. 만약 내국인들이었다면 그러한 긴급체포와 구속이 되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건설산업연맹에서 긴급히 민주노총인천본부 및 이주공동행동, 한국이주인권센터 등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 대응을 하였다. 단체들은 ‘감·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

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구리 엑소더스에서 일하던 베트남 통역자는 법정에서 재판통역이 잘 못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즉석에서 통역을 대체하여 진행하면서 피해 노동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 6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되고, “피고인들의 각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했고 파업과 무관하게 개인 간 다툼에 대한 부분만 벌금 및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항소, 상고를 잇달아 제기했으나 2012년 10월 11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1심 선고가 확정되었다. 검경의 시나리오는 허구로 결론 났고 이주노동자의 현장 투쟁에 무차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또한 대책위 활동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연대감을 쌓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건설노조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고용허가제 건설노동자들의 자발적 파업 투쟁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단결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활력을 주었다.²⁵⁾

5)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 투쟁

2012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장 변경 지침’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주던 구인업체 알선장을 주지 않고, 구인노동자 명단을 사업주에게만 제공하여 사업주가 연락하는 방식으

25) 이세훈,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 활동>, 민주노총, 앞의 책, 2014 참고



2011년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자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 건설노조연맹 홈페이지

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알선장 명단 내에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였다. 전국의 이주 단체들의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비대위는 기자회견과 7월 18일 과천 노동부 앞 집회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각 지역 노동청 항의집회와 노동부 앞 릴레이 항의 행동, 1인 시위, 이주노동자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공동체들과 함께 연대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모으는 한편, 8월 1일 지침 시행 이후에는 현장 모니터링과 이주노동자 대중 집회를 준비했다. 그리하여 8월 19일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하여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이동의 자유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서울, 천안,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개최했다. 8월 31일에는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극적인 장면은 8월 19일 보신각 집회였다. 집회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부터 많은 이주노동자가 모여들었다. 집회시작 30분 전에는 거의 3~400명이나 되었고 주로캄보디아 노동자들이었다. 인터넷, 페이스북, 친구들의 전화 등으로 집회 정보를 알고 왔다고 했다. 집회 전체

적으로는 참가인원이 800여명이나 되었다. 9월 23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는 1천여 명이 참가하여 지침 철회를 촉구하였다.²⁶⁾ 이후에 지침은 철회되지 않았지만, 거센 반발과 전국적 항의행동으로 인해 노동부는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에게 1주일에 1-2회 사업장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진출을 목도한 활동이었다.

비상대책위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2012년 8월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 집회, 참세상 2012.8.19.

6)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투쟁

2014. 1. 28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²⁶⁾ 정영섭,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에 연대하자: 9.23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부쳐>, 민중언론참세상, 2012.9.20

개정 법률안이 2014. 7. 29에 시행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라고 규정했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마치고 출국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라는 것이다. 중간에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적립된 보험금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한 후 출국하지 않는 초과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임금의 중요한 부분인 퇴직금을 출국 후에야 지급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다. 또한 출국만기보험과 미등록 체류의 상관관계가 작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미등록 체류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짧은 고용기간, 사업장의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욕설과 폭력 및 인권침해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질적인 차별 대우, 사업장 변경 제한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주단체들은 즉각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대응에 나섰다.

(참가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위원회, 의정부EXODUS, MWTV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터)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키르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공동행동)

공동행동은 4월 27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6월 22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7월 27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

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총궐기 대회' 등을 개최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퇴직금 국내 지급을 촉구했다. 퇴직금 문제는 이 출국만 기보험금 신청과 수령 문제, 법정 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문제, 차액 미지급시 대응해야 하는 문제 등 이주노동자 개인에게 쉽지가 않다.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도 백억이 넘게 쌓여 있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해마다 행정력을 들여 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펼쳐야 하는 웃지 못할 지경이다. 2019년에도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8월 12일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하여 출국 후 수령제도 폐지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2014년 6월 열린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및 행진, 매일노동뉴스 2014.6.23.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대응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인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장시간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휴일도 거의 없으며 고용주가 시키는대로 이리저리 다른 작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머슴과도 같은 처지이다.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 조항이 배제되어 있고 초과근로 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주공동행동과 ‘지구인의 정류장’은 2011년 10월 6일 ‘양구지역 캄보디아 이주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허가제 농업노동 비자로 입국해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인력공급 브로커 관리 하에 여러 농장으로 불법 파견돼 일했다. 이는 명백히 고용허가제법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양구 일대 농장들에 불법적으로 파견돼 휴식시간과 휴일을 박탈당한 채 임금체불을 상시적으로 당하며 강제근로를 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 의해 인신구속, 공갈이나 협박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도 당했다. 단체들은 “브로커들이 이주노동자들 고용을 대행하면서 사업장 이동시 40~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농촌지역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에까지 노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등 그들이 경험하는 착취와 어려움은 정말 크다”면서 “고용허가제 문제와 농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²⁷⁾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네트워크는 2013년 2월에 <노비가 된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을 발간하여 “일 많이, 돈 꼬끔”으로 압축되는 농업노동의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고용노동청이 위법적인 근로계약서도 승인하고 고용허가를 내줘 광범위한 착취를 부추겨왔다고 규탄했다. 100여 명의 농업노동자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책자가 담고 있는 내용은 1)일상적인 폭력- 신분증 압류, 폭력과 감금, 성폭력, 열악한 기숙사 2)노동권 침해- 불법적인 계약체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및 강제노동,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업재해, 일방적 추방, 해고 3)사업장 변경 제한 4)불법 강제 파견, 계절 휴업 및 무급 휴직 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의 구조적원인 등으로서 농축산업 이주

27) 노동과세계,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실태 규탄>, 2011.10.6일자

노동에 대한 첫 보고서였다.²⁸⁾

2013년 국정감사 시기에는 장하나의원실이 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탄 소퐁(Tan Sophoecun)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고, 그녀는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증언했다. 하루 12시간 넘고 한 달 320시간에 달하는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의 60%만 받았던 비참한 현실을 고발했다.

2014년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밤상 캠페인’을 제안하였고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국제식품노련,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한겨레 21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제엠네스티는 2014년 10월에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이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폐지, 사업주 허락 없이 사업장 변경 허용,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구직기간 1년으로 연장, 농한기에 다른 업종에서 노동 허용, 초과근로 수당 보장, 적절한 식사와 숙소 기준 설정, 정기적 근로감독 실시, 인신매매 방지 관련 의정서 비준과 이행, 국제노동기구 4개 핵심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다.²⁹⁾ 2014년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에는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 이주노동자 생산자 선언’발표 행사를 진행했다.

2015년에는 지구인의 정류장이 제안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 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가 진행되었다. 월 300시간을 넘게 일해도 226시간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인정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것과 함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20~50만원씩 월급에서 선 공제하는 작태를 규

28) 이주인권연대, 《노비가 된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13.2.8 참고

29) 국제엠네스티,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2014.10.25 참고

탄했다.

노동부는 2017년에 아예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까지 만들었다. 2월에 만들어진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임시 주거시설’에 기거하는 경우에도 숙소비를 선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용인하는 지침을 마련한 셈이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네트워크를 비롯한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이 지침을 폐지를 주장했고 열악한 주거실태가 계속 지적되자 노동부는 2019년에 법령과 고시에 일부 반영했으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이주인권단체들과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 사회단체들이 함께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4월 11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밀양 깻잎 밭을 비롯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실태를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깻잎 인권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노동절 행사에서 숙소 사진전시와 서명운동, 7월‘밥상의 양심을 묻는다- 농업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캠페인 서명결과 고용노동부 전달 등을 진행하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개선과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참가단체: 이주와인권연구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경지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생협,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살림, 부산YWCA생협, 생태유아공동체, 노동당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밀양송전탑대책위,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아이쿱,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YMCA,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울경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외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희망웅상)³⁰⁾



우리의 밥상을 지키려고 있습니다.

| 서명해주세요. | 하고 싶은 말 | 하고 싶은 말 |
|---------|-----------------|-----------------|
| 소속 | | 사람나쁜 놈들 살게둬라 |
| 중 | 역경 권태호 주세호 | 125 짐승이 되지 맙시다. |
| STAN | 유 한지 박희선 유 | 344 사랑당끼 |
| STAN | 다른 회사로 취업해주세요! | 40 더보이 함께 |
| ㅁ | 사장님이 나쁜 사람요! | 2 이기호 조우 영동희 |
| TRW | 쉬는 시간 좀 많아주세요. | 기 |
| f | 포나잠 신태웅 만드림 주세호 | 32 김민호 |
| | 워킹 그룹 이노브 워킹 그룹 | 이러 인간이 되지 맙시다 |
| 1 | 시하의 이노브 워킹 그룹 | |



2017 밀양깻잎밭 이주노동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홈페이지

8) 어선원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2011년 6월 19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원양어선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한국인 선원들의 폭력, 성폭행, 임금

30) 이주와 인권연구소,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2017.12.18.

<http://www.mihu.re.kr/activities/perilla-leaf-farm-campaign/>

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어선이 뉴질랜드에 정박한 사이 집단 탈출하였다. 뉴질랜드 단체의 도움으로 이 사안은 사회에 알려졌고 한국 원양어선의 인권침해에 대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12년 3월 초, 수많은 외국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한국 배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야, 그동안 방관만 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단은 현지조사를 벌여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을 확인했다. 6월 11일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인권사회단체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피해당사자인 인도네시아 선원 수기토와 시소로가 직접 참석했다. 수기토는 "매일 인권침해를 당했다. 임금을 체불하고 성희롱을 했다. 장시간 동안 일해야 했다. 사조오양 측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했고, 시소로는 "사조오양에서 7개월 간 임금을 체불 당했다. 갑판장에 의해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했다. 갑판장은 우리를 마치 짐승처럼 대했다. 쉬지 않고 이틀 동안 일한 적도 있다. 밀린 임금을 달라.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라고 했다.³¹⁾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등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사조오양은 선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보상할 것, 오양75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하며, 관리·감독을 해태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것,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환경을 개선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비할 것 등을 요

31) 오마이뉴스, <"한국인 갑판장은 우리를 짐승처럼 다뤘다">, 2012.6.11일자

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양어선 선원을 비롯하여 선원법 적용을 받는 연근해 20톤 이상 선박 근무 E-10 선원, 고용허가제 하에서 20톤 미만 선박에서 일하는 E-9 어업노동자 등은 휴식시간, 휴일이 별도로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빈번하며 제대로 바깥에 외출할 수도 없는 인신매매적 성격의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등의 단체들은 2014년에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각 지역 어선원노동자 실태조사,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어선원이주노동자 공동체와의 연대, 정부 부처 면담 등 꾸준히 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참가단체: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익산노동자의집, 화우공익재단)

2017년 9월 5일 국회에서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주관으로 열린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무자격 중개업체 개입, 이주선원에게 송출비용 부담 전가, 이탈보증금 징수, 계약서 내용 미숙지, 사전 교육 부실, 여권 압수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낮은 급여,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욕설과 폭행, 부실한 재해 보상체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이 비판되었고, “2012년 정부가 확정 발표한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과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권고를 해양수산부 등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으며³²⁾ 이주선원 도입 절차와 관리 운영 시스템의 투

32) 연합뉴스, <이주선원 인권 어떻게 개선할까...국회서 콘퍼런스>, 2017.9.5일자

명성과 공공성이 촉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20년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에서도 비슷한 비판과 대책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2020 이주어선원 인권침해 실태고발 발표,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에 인도네시아 어선원 아리 프로보 요씨가 출석하여, 여권, 통장, 신분증을 압류 당하고 잘 시간도 없이 일하는 장시간 노동과 쥐꼬리만한 저임금, 높은 송출비용 등을 직접 증언하였다.³³⁾ 또한 환노위에는 E-9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인 동티 모르 출신 아폴리씨가 출석하여, 군산 개야도에서 하루 평균 15시간 씩 설날을 제외하고 쉬는 날 없이 일했고 배위에서 식사 대신 초코 파이로 끼니를 때우고, 자기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법파견을 강요당하고 월 노동시간이 360시간에 달하며 섬에서 나갈 수 없이 갇혀 있는 실태 등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증언하고 개선을 촉구했다.³⁴⁾

33) 연합뉴스, <인니 선원 "한국서 여권·등록증 다 뺏기고 하루 20시간 노동">, 2020.10.5일자

9)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실태 대응

2017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30퍼센트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시설을 기숙사로 제공받고 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건축물일 뿐 아니라, 채광과 환기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나 화장실 등 주거시설에 필수적인 위생설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임시 가건물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나 가스 누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방재시설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부실하고 열악한 기숙사에는 출입문과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고용주가 열쇠를 갖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다 보니 마음 놓고 쉬어야 하는 숙소에서마저 노동자들은 수시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숙소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적게는 일이십만 원에서 많게는 사오십만 원씩이 임금에서 공제한다.³⁵⁾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단비뉴스 2020.5.21.

34) 경향신문, <섬에서 탈출한 이주노동자, 국감 증인으로…“밥 대신 초코파이 줘요”>, 2020.10.9일자

35)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기자회견문, 2017.9.27. 참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를 결성하였고(참가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러 가지 실태 고발과 법제도 개선활동 등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7년 8월에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의 개정안 제안을 하였고, 12월에 고용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12월에는 국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비닐하우스를 넘어서’를 개최했다. 2018년에는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시민사회 공동대응 참여 및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다.³⁶⁾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19년 1월에 고용허가제 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기숙사의 설치 장소 3.기숙사의 주거 환경
4.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서 위 22조를 위반한 기숙사 제공 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 장관 고시에 규정했다. 그

36) 사단법인 두루, <이주민의 안전한 주거를 위하여>, 2019.9.24. 참고

러나 그 내용이,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크다. 그리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율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고시에 규정했는데, 이는 비닐하우스만을 언급하는 것이며 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판넬은 인정하는 것이라 역시 실효성이 없다. 국감자료를 보면, 2019년 7월에 고시 개정 이후 2020년 8월까지 기숙사 문제를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 인정 기록은 한 건도 없었다. 여전히 숙식비 지침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2017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세계일보 2017.9.27.

10)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대응

건강보험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져야 할 필수적인 공공보험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건강보험가입자격을 가진 합법체류 외국인(149만명)의 건강보험가입률은 2017년 59.4%로 내국인 가입률(95.6%)에 훨씬 못미쳤다.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가입률도 70% 수준이었다. 2015년 기준 건설업에서는 54.9%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축산업과 어업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각각 16.1%, 7.7%에 불과했다. 농어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농, 영어 증명만 하면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역가입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상황에서도 정부는 틈만 나면 이주민에 대해 건강보험에 짧게 가입하고 기여한 것보다 훨씬 고액의 치료를 받고 떠난다며 소위 ‘떡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전체 이주민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한 해에만 2,490억 원의 흑자를 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종합하면 혜택을 본 것에 비해 1조 1천억 원을 더 납부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쓰는 것보다 큰돈을 내는 ‘호구’에 가깝다는 것이다.³⁷⁾ 그런데도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줄어드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주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전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무조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해서 부담이 과도했다. 2019년 그 금액은 113,050원이었다. 그

37) 뉴스톱,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은 퍼주기? 오히려 외국인이 반대한다>, 2019.8.5일자

런데 그나마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체류자격을 축소해, 영주(F-5)와 결혼이민(F-6)만을 남기고 방문동거(F-1)와 거주(F-2)를 제외했다.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반발로 인해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이 유예되었다. 미등록체류자는 애초 가입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지역가입에서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로하신 부모는 물론이고, 학업 중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조차 성년이면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서류를 요구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조차 세대원으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족단위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동포들의 집으로 여러 개의 보험료 고지서, 즉 합계 30만원, 40만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입할 수가 없어 직장건보에 가입하지 못해서 고통 받았던 농어업 이주노동자, 일용직, 간병, 가사 이주노동자 등에 게도 11만원이 넘는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농어촌에서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숙식비를 수십만 원 떼이는 노동자들도 피해를 받게 된 것이다.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법무부는 법무부는 보험료 미납자는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체류만 허용해주고, 4회 체납 시는 아예 체류를 불허하겠다고 했다.³⁸⁾

이에 이주인권단체들은 지역건보 의무가입 시행 이전에도 반대 성명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서 등을 통해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내국인에 비

38) 이주인권단체 공동,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약 건강보험제도 규탄 기자회견문>, 2019.8.26. 참고

해 이주민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7월에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대응에 나섰다.

(참가단체: 고려인제도개선위원회, 난민네트워크, (사)한국이주노동정책개발연구원, 중국동포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한중커뮤니티리더스 삼강포럼)



2019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행동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 폐지,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것,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인정 범위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할 것, 이주민이 국내에서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격을 부여할 것, 농축산어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조건에 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을 포함할 것, 건강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

독 방안을 마련할 것, 이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10월에 이 건보제도의 위헌여부를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 건보제도 시행 3개월 만에 개정 이후 의무 가입 대상이 된 27만 가구 중 8만2천 가구(30.4%)가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³⁹⁾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5.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의 분야

우선,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초창기부터 이주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폭행, 인권침해, 미등록노동자 문제 등 이주노동 제반의 영역에 대해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기본으로 해왔다. 이러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은 이주노동자들과의 유대관계로 이어지고 단체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상담활동은 노동자를 만나고 법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되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사회여론화하는 계기가 되며 권리의식을 교육하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상담이 입소문이 나면 특정 국가, 특정 영역의 이주노동자들이 몰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들이 안산의 지구인에 정류장에 모여들고, 어업 이주노동자 상담이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몰린다. 또한 민간 이주노동자지원단체가 재정과 활동인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이 설립되어 이 센터들이 많은 상담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39) 한겨레21, <이주민 건강보험, 현재 간다>, 제1286호, 2019.11 참고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 내역>

| 연도 | 합계 | 사업장 내 애로 갈등 | 사업장변경 관련 애로 | 일상생활 고충 | 질병/부상/사망 | 귀국 관련 고충 | 언어소통 문제 | 행정신고 업무지원 |
|------|---------|----------------|----------------|------------|----------|-------------|------------|--------------|
| 2019 | 273,400 | 65,061 | 49,769 | 42,813 | 4,540 | 22,748 | 15,134 | 73,335 |

*출처: 2020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답변자료

즉 한 센터 당 한 해에 3만 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는 셈인데, 간단한 전화상담과 안내 등까지 포함하더라도 이주노동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은 건수이다. 이는 노동상담 영역 역시 제도권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단체들로서는 상담의 건수가 아니라 부당한 권리침해 사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례, 복합적 차별이 얽힌 사례 등 상담의 질적 우위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도 어려운 케이스들은 대부분 민간단체로 상담과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위 상담 내역만 보아도, 임금·퇴직금 문제, 폭언·폭행, 노동환경과 주거조건 등 사업장 내 애로갈등과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문제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및 관행적 차별, 사업장 변경 제한 법제도 문제 등이 여전히 큰 문제임을 말해 준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 공동체 지원활동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초기부터 지원단체의 조력을 받아 서로 돕고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나라별 공동체를 92, 93년경부터 만들었다. 취미나 여가활동, 아프고 어려운 사람 돕는 활동, 각종 정보 제공, 상담 연결, 본국 지원, 권익 옹호 등 공동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지원단체는 공동체결성과 유지, 교육, 장소제공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 예컨대 부산 ‘이주민과 함께’에서는 공동체 조직을 염두에 둔 리더십트레이닝을 2001년 3월 처음 진행했는데 1년에 두 번씩하여 5년간 총 10회 진

행했다고 하며, 리더십트레이닝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이주노동자 법제도 및 정세전망, 강제퇴거까지 이주민의 인권, 노동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출입국관리법, 공동체 운영 및 이주노동자 조직발전, 노동조합 소개, 이주민과함께 한해 상담통계 브리핑,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체의 역할 및 공동체 운영을 위한 방안 토론 등이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공동체 대표라는 말 대신 ‘이주민 활동가’라고 표현하며 이주민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는 여러 국적의 이주민 활동가들이 함께 ‘평등을위한이주민연대(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 SEMIK 세믹)’을 발족해서 활동했다.⁴⁰⁾ 비슷한 시기인 2009년에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도 각국 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신나는 연대’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왔다.⁴¹⁾

공동체들은 지원 단체와 마찬가지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튼튼하게 공동체를 꾸렸던 리더들은 주로 오래 체류한 미등록노동자들이었는데 단속으로 추방되거나 귀국하면 공동체 활동이 침체되거나 쇠퇴하는 일들도 많았다. 또한 한국 주재 본국 대사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공동체들도 있다. 공동체는 편차가 있지만, 이주민 사회의 풀뿌리 모임 같은 성격으로 자국 출신 이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다.

지원단체의 활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활동이다. 특히 한글 교육은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매개로 단체에 정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다가 교육부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1급에서 6급까지 나뉘어져 있다. 이 시험

40) 김그루, <이주민활동가와 나, 그리고 이주노동운동>, 《이주노동운동의 현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이주노동포럼자료집, 2016

41) 국제신문, <부울경 지구마을 리포트 <10>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2013.11.20. 일자 참고

통과가 각종 비자나 자격 획득에 필요하고 또한 한글교실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글교실을 찾는다. 단체들은 대부분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한글을 무료로 가르친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갖게 되는 위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관계에 비해 단체의 한글교실은 인간적인 대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성을 찾는 것이기도 하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동료 노동자들과 협력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정책과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을 넘어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할 때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권리교육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원 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봉사나 선교,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권리의식과 주체적 참여를 도모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단한 노동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여가를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도 단체에서 진행하는 활동분야 중 하나이다. 소풍, 기행, 여름캠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며 체육대회, 문화제, 축제 등도 진행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영역에 전문화된 단체들도 생겨났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만드는 매체를 표방하며 2004년 12월 설립된 이주민방송이 있다. 이주민방송 MWTV는 ‘이주노동자의 방송’이름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이주민방송’으로 개칭했으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이주민미디어운동단체”로 소개하고 있다.⁴²⁾

2011년에 설립된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는 “한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문화활동가·예술가들의 주체적인 활동근거지를 마련함은 물론, 새로운 이주민 문화활동가·예술가의 발굴하고, 더 많은 이주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불어 예술을 통해 한국사회와 이주민들이 장벽을 넘은 이해와 공존을 이루고자”한다.⁴³⁾

이주노동자지원단체는 연관을 맺은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국 사정에 대해 알게 되어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주 귀환 이후에 재이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본국 사회경제 상황에 주목하여 교육, 의료, 복지 지원 활동을 하기도 하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경험한 노동·인권·사회운동을 본국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연대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연대 활동에 있어서, 여러 단체 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간 이주노동자 활동가가 본국에서 정착과 적응을 하며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평가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지원방식, 성과주의적 관점, 본국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 부족은 경계해야 지점일 것이다.

단체활동의 현재에 대해서는 작년에 열린 전국이주인권대회를 참고할 수 있다.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현재 상황 점검과 향후

42) 이주민방송MWTV 홈페이지 참고 <http://mwtv.kr>

43)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홈페이지 참고 <http://amcfactory.org>

전개 방향 논의, 이주인권 활동가 및 단체의 종합적 토의 계기 마련 및 전국적 네트워크 도모, 이주인권/이주민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취지로 2019년 8월 20~21일에 ‘2019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가 열렸다. 이주민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관심을 가지고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몇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열린 이 대회를 통해 이주민권리운동이 현재 서 있는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우의를 다질 수 있었으며 연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전체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⁴⁴⁾

- [전체토의1] 인종차별과 혐오세력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 [분과토의1] 난민혐오 및 난민법제 개정 대응
- [분과토의2] 언제나 이주민, 가끔씩 아동
- [분과토의3] 이주여성 폭력피해 vs 주체성
- [분과토의4] 바다에 붙잡히다
- [세부주제토의1] 다문화, 민주시민 인권교육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활동
- [세부주제토의2] 이주민의 건강권
- [세부주제토의3] 재한중국동포사회, 이슈와 연대의 가능성
- [세부주제토의4] 지역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이주인권운동
- [전체토의3] 이주와 이주노동

참가단체명 (가나다순)

- 1.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공익인권법재단 공감 3.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준) 4.국제이주기구(IOM)한국대표부 5.난민인권네트워크 6.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7.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8.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9.두레방 쉼터 10.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사)이주민과함께 부설) 11.사단법인 어필 12.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 13.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14.사단법인 이주민센터친구 15.사단법인 정 16.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17.선원이주

44) 전국이주인권대회 추진위원회, <2019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워크북, 2019 참고

노동자 인권네트워크 18.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19.소수자난민 인권네트워크 20.아산이주노동자센터 21.(사)아시아의창 22.아시아인권문화연대 23.(사)안산이주민센터 24.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5.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사)노동인권회관 부설) 26.울산이주민센터(ULSAN MIGRANT CENTER) 27.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28.의정부EXODUS이주민센터 29.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30.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 31.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32.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33.이주민방송MWTV 34.이주민센터 동행 35.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36.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 37.이주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임 38.이주와 인권연구소 39.이주인권연대 40.익산노동자의집 41.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42.재단법인 동천 43.주한 미안마노동자복지센터 44.천안모이세 45.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가톨릭노동상담소) 46.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47.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48.(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49.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rights Center 50.한국이주인권센터 51.황금빛살미안마공동체

대회의 마무리로 “이주와 난민의 시대, 인종차별 없는 세상 이주민이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세계적으로도 현재가 이주와 난민의 시대라고 불리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경제불평등, 실업, 빈곤, 복지축소의 책임을 체제나 지배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주민, 난민에게 돌리는 트럼프주의, 우파 인종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행동하여 인종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이주인권대회에 모인 우리 활동가들은 서로의 연대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많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종차별 앞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언했다.

인종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대안적인 이주노동 제도, 이주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실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활동한다.

동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난민법 개악을 막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의료, 체류, 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건강보험 개악 등 이주민 차별을 없애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및 구금에 반대하고 합법화 정책을 위해 활동한다.

이주민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



2019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이주노동희망센터 홈페이지

지역별로도 이주민 권리운동을 위한 연대단체들이 다음과 같이 있다.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
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
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
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
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
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
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
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
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민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
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천안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
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
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
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민
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희망
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경기이주공대위는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연대체 재구성을 모색하고 있음.

6. 이주민 현황

<전체 이주민 현황>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9월 |
|---------------|-----------|-----------|-----------|-----------|-----------|
| 총 계 | 2,049,441 | 2,180,498 | 2,367,607 | 2,524,656 | 2,100,436 |
| 중국 (한국계포함) | 1,016,607 | 1,018,074 | 1,070,566 | 1,101,782 | 932,503 |
| 한국계 | 627,004 | 679,729 | 708,082 | 701,098 | 669,605 |
| 베트남 | 149,384 | 169,738 | 196,633 | 224,518 | 213,048 |
| 태국 | 100,860 | 153,259 | 197,764 | 209,909 | 185,956 |
| 미국 | 140,222 | 143,568 | 151,018 | 156,982 | 145,999 |
| 우즈베키스탄 | 54,490 | 62,870 | 68,433 | 75,320 | 68,026 |
| 러시아(연방) | 32,372 | 44,851 | 54,064 | 61,427 | 52,156 |
| 필리핀 | 56,980 | 58,480 | 60,139 | 62,398 | 51,136 |
| 몽골 | 35,206 | 45,744 | 46,286 | 48,185 | 43,999 |
| 캄보디아 | 45,832 | 47,105 | 47,012 | 47,565 | 42,430 |
| 네팔 | 34,108 | 36,627 | 40,456 | 42,781 | 40,792 |
| 인도네시아 | 47,606 | 45,328 | 47,366 | 48,854 | 37,843 |
| 카자흐스탄 | 11,895 | 22,322 | 30,717 | 34,638 | 30,425 |
| 미얀마 | 22,455 | 24,902 | 28,074 | 29,294 | 28,282 |
| 일본 | 51,297 | 53,670 | 60,878 | 86,196 | 27,216 |
| 스리랑카 | 27,650 | 26,916 | 25,828 | 25,064 | 23,322 |
| 캐나다 | 26,107 | 25,692 | 25,934 | 26,789 | 22,269 |
| (타 이 완) | 34,003 | 36,168 | 41,306 | 42,767 | 19,745 |
| 방글라데시 | 15,482 | 16,066 | 16,641 | 18,340 | 17,569 |
| 파키스탄 | 12,639 | 12,697 | 13,275 | 13,990 | 13,166 |
| 인도 | 10,515 | 11,244 | 11,945 | 12,929 | 10,733 |
| 오스트레일리아 | 13,870 | 13,008 | 14,279 | 15,222 | 8,099 |
| 키르기즈 | 5,005 | 5,790 | 6,385 | 6,618 | 6,015 |
| 영국 | 7,180 | 6,727 | 6,972 | 7,550 | 5,902 |
| 기타 | 97,676 | 99,652 | 105,636 | 125,538 | 73,805 |

(*출처: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 2020.9월)

<등록 이주민 현황 및 지역별 현황>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9월 |
|-------------|-----------|-----------|-----------|-----------|-----------|-----------|-----------|
| 인 원 | 1,091,531 | 1,143,087 | 1,161,677 | 1,171,762 | 1,246,626 | 1,271,807 | 1,185,676 |
| 전년대비 증감률 | 10.7% | 4.7% | 1.6% | 0.9% | 6.4% | 2.0% | -6.8% |

| 계 | 경기 | 서울 | 경남 | 인천 | 세종충 남 | 경북 | 부산 | 충북 |
|-----------|---------|---------|--------|--------|----------|--------|--------|--------|
| 1,185,676 | 395,451 | 253,777 | 69,786 | 69,212 | 71,953 | 53,537 | 41,437 | 38,167 |
| | 전남 | 전북 | 대구 | 제주 | 광주 | 울산 | 대전 | 강원 |
| | 33,441 | 31,573 | 28,267 | 23,786 | 21,626 | 18,496 | 17,479 | 17,688 |

(*출처: 위와 동일. 여기서 '등록'은 3개월 이상 체류자라는 의미임.)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는 460,942명인데 등록이주민 숫자와 이들을 합치면 1,646,618명이다. 이들이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전체 숫자이다.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체류자는 396,728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비자 체류자는 494,667명인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45,211명이고 단순기능 인력은 449,456명이다.

<전문인력>

| 계 | 단기취업 (C-4) | 교수 (E-1) | 회회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
| 45,211 | 2,847 | 2,110 | 12,864 | 3,200 | 207 | 401 | 3,208 | 20,374 |

<단순인력>

| 계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방문취업 (H-2) |
|---------|----------------|----------------|---------------|
| 449,456 | 247,273 | 17,378 | 184,805 |

*출처: 위와 동일

결혼이민자는 168,026명이며 혼인귀화자는 139,551명이다. 대략 30만 명이 전체 결혼이민자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은 158,077명이다. 난민인정자는 1,064명, 인도적체류 인정자는 2,342명에 불과하다.

7. 결론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의 전망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나라로 바뀌어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초기부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결성과 왕성한 활동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많은 투쟁을 일궈냈다. 이주노동자 주체들의 1994년 경실련강당 농성, 1995년 네팔산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각 지역과 현장의 자발적 파업과 저항, 산업연수생 철폐투쟁, 2002년 아모르가구 파업, 2003-2004년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 규탄투쟁,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응투쟁, 2008년 마석공단 토끼몰이식 단속에 대한 대응, 2011년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자 무죄석방 운동, 2012년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 투쟁, 2014년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투쟁, 농축산업과 어업이주노동자 노예노동 대응,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건강보험 차별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다. 이슈에 따라 단체들은 공동 연대체를 구성하여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단체운동의 부침을 겪고 활동이 축소 혹은 정체되어 있기도 하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단체활동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이주노동자 의제에서 이주여성, 이주아동청소년, 난민, 농업·어업노동자, 문화활동, 공익법률 활동 등으로 다양화되고 폭이 넓어지기도 하였다.

이주노동자운동과 지원단체 활동의 역사, 현재의 법제도 및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전망에 대한 고민 지점을 몇 가지 짚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자, 이주민 당사자 주체성을 육성하고 형성하려는 지

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갈수록 체류 이주민의 숫자와 장기체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제반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서 당사자 주체의 형성은 관건적인 문제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이 단기로 제한되어 있어서 장기체류가 쉽지 않고, 활동을 할 만하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주체 형성이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오랜 시간 한국사회에 익숙해진 이주노동자 활동가의 역할은 단체인 공동체인 노조활동이든 중심적이었다.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주민활동가와 이주민활동가의 평등한 연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역시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는 문제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같이 활동하는 조직 혹은 연대활동 상에 있어서도 발언력, 인적 네트워크,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평가 및 성찰이 필요하다. 작년에 이주인권대회에 참여한 한 이주민활동가가 다음 번에는 이주민들이 참여자의 절반이 되도록 하자고 지적해서 뼈저리게 와닿기도 했다. 이는 첫 번째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셋째, 각 단체들이 다양해지고 다루는 분야의 폭도 넓어졌으며 영역별 연대체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서로 존중하여 연대를 강화하여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 관련 연대체 외에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도 의제별 네트워크들이 활동하고 있다. 단체들은 의제와 역량 등에 따라 연대네트워크를 넘나들며 활동을 한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연대하고 협력하는 운동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주노동 이슈를 다루고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는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지부, 소속 노동조

합과 연대관계를 가져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기존 노동조합운동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다. 노조가 먼저 단체들에 손을 내밀고 이주노동자 연대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단체들이 노조를 자극하고 연대를 제기하고 노조의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요청하고 싶다.

다섯째, 단체활동의 지속가능성과 후속 활동가 육성도 중요한 지향일 것이다. 이미 오래된 단체들은 너나없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씩씩이 단속’>, 2020.8.13
- 경향신문, <섬에서 탈출한 이주노동자, 국감 증인으로…“밥 대신 초코파이 줘요”>, 2020.10.9
- 국제신문, <부울경 지구마을 리포트 <10>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2013.11.20
- 국제엠네스티,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2014.10.25
- 김그루, <이주민활동가와 나, 그리고 이주노동운동>, 《이주노동운동의 현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이주노동포럼자료집, 2016
- 김옥, <주요 선진국가의 다문화정책 방향 비교 분석: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0
- 노동과세계,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실태 규탄>, 2011.10.6.
- 뉴스톱,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은 퍼주기? 오히려 외국인이 반대한다>, 2019.8.5
- 딴저데이 대책위, <딴저데이 대책위 1년 활동으로 본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및 추방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활동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샵>, 2019.12.11
- 매일노동뉴스,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앞에 둔 외국인노동자를 찾아>, 2002.5.1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자료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보도자료, 1994.9.
- 박석운, <한국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외노협·홍콩 AMC공청회자료, 1996.9.
- 박석운, <한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네트워크현황과 연대방안의 모색>,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자료, 2001
- 박천응, <이주노동자 운동과 지원단체의 활동 전망>,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주최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 2003
- 사단법인 두루, <이주민의 안전한 주거를 위하여>, 2019.9.24
- 서선영,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조직화사례: 2003년 5월~2005년 4월 이주노조 설립총회까지>, 《이주노동자 노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4
- 석원정, <법무부시행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2002. 노동인권회관 홈페이지(.inkwon.or.kr) 문서자료실
-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진보평론》, 2003.9.
-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홈페이지 <http://amcfactory.org>

오마이뉴스, <"한국인 갑판장은 우리를 짐승처럼 다뤘다">, 2012.6.11
 연합뉴스, <이주선원 인권 어떻게 개선할까...국회서 콘퍼런스., 2017.9.5
 연합뉴스, <인니 선원 "한국서 여권·등록증 다 뺏기고 하루 20시간 노동">, 2020.10.5
 이세훈,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 활동>,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4
 이윤주, <이노투본,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사례(~2003년 5월: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대두)>,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4
 이주민방송MWTV 홈페이지 <http://mwtv.kr>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기자회견문, 2017.9.27
 이주와 인권연구소,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2017.12.18
 이주인권단체 공동,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 기자회견문>, 2019.8.26
 이주인권연대, 《노비가 된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13.2.8
 이한숙, <한국 이주노동자운동>, 《대한민국인권근현대사 : 인권운동사》, 국가인권위, 2019
 전국이주인권대회 추진위원회, <2019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워크북, 2019
 정영섭,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례〉,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4
 정영섭,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에 연대하자: 9.23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부쳐〉, 민중언론참세상, 2012.9.20
 최현모,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활동평가〉,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평가 토론》 자료집, 2007.4.13.
 한겨레, <문 부수고 퇴로 막고 '토끼몰이'>, 2008.11.12.
 한겨레21, <이주민 건강보험, 현재 간다>, 제1286호, 2019.11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 현황>, 2015
 허오영숙, <이주여성운동>, 《대한민국인권근현대사 : 인권운동사》, 국가인권위, 2019

이주민 활동가 및
이주인권단체 전문가 인터뷰

이주민 활동가 및 이주인권단체 전문가 인터뷰

작성자 :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김지호 기획팀장

1. 조사연구의 취지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 이주민 관련 단체도 있고, 결혼이주여성, 미등록 아동, 난민, 국가별 커뮤니티 등이 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노동자로 살아간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노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설립했으며, 국내 유일의 ‘이주노동’을 중심으로 한 NGO라고 자부해 왔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2011년 설립돼 2021년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지난 10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올해 이주노동 중심의 NGO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깊이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료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명실상부한 이주노동 NGO로서 활동을 펼쳐야 할 시기다.

하지만 그동안 이주민을 위한 NGO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울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주민을 만날 기회도 부족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재정상태 속에서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인터뷰 참가비용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주민활동가와 전문가의 귀한 시간을 얻어 책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 조사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는 가능한 지역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많이 섭외하려고 노력했다. 이주민 활동가는 출신국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공기관 위탁단체, 노동조합, 이주민공동체, 이주여성단체, 연구소, 종교기반단체, 신규 단체 등 다양한 단체 성격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1)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 이름 및 직책 | 생년 | 소속 | 인터뷰 일시 |
|----------|-------|------------------|---------------------|
| 이율도 대표 | 1984년 | 이주인권컨텐츠랩 액트잇(서울) | 10월 28일 16:00~18:00 |
| 이한숙 소장 | 1969년 | 이주와 인권 연구소(부산) | 11월 12일 16:00~18:00 |
| 김용철 소장 | 1961년 | 성서공단노조(대구) | 11월 18일 13:30~15:30 |
| 김호철 사무국장 | 1977년 | 성요셉 익산노동자의집(익산) | 11월 19일 13:00~15:30 |

(2) 이주민 활동가

| 이름 및 직책 | 생년 | 소속 | 출신국가 | 인터뷰 일시 |
|-----------|-------|--------------|---------|---------------------|
| 다닐로알게라 대표 | 1970년 | 필리핀커뮤니티센터 | 필리핀 | 11월 12일 13:00~14:30 |
| 또뚜야 상담원 | 1974년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미얀마 | 11월 13일 11:00~12:30 |
| 차민다 부위원장 | 1979년 | 대구 성서공단노조 | 스리랑카 | 11월 18일 16:00~17:30 |
| 원옥금 대표 | 1975년 | 이주민센터 동행 | 베트남 | 12월 2일 10:30~12:30 |
| 송청란 상근활동가 | 1989년 | 이주민방송MWTV | 중국 (동포) | 12월 2일 15:00~16:30 |
| 왕지연 회장 | 1975년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 중국 | 12월 9일 10:30~12:10 |

3. 조사 및 기록 방법

인터뷰는 송은정 사무국장, 김지호 기획팀장이 함께 진행했으며, 대부분 인터뷰 참여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진행했다. 별도 사무실이 없는 이율도 대표와 사무실에 사정이 생긴 다닐로알게라 대표만 근처 카페에서 진행했다.

기록하면서 인터뷰 참여자의 답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이주노동희망센터 담당자의 질문은 가능한 많이 삭제했다. 사적인 개인정보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은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답변 내용이 이해가지 않거나 잘못 기록된 부분 등은 기록자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부족함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열 분의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사건이나 단체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참고’ 표시를 넣고 설명을 넣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2015년에 추진한 미등록아동 실태조사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이주노동희망센터 내부 논의가 필요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 그대로 기록했다. (12쪽 참조)

인터뷰 한 순서대로 이주인권단체 전문가와 이주민 활동가 순으로 인터뷰를 정리했다.

4. 인터뷰 내용 요약

(1) 이주노동희망센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다닐로알게라 대표는 필리핀 출신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을 알고 있어, 미셸 전 위원장을 통해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알고 있었다고 답

했다. 차민다 부위원장은 2019년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이주민 활동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알았다고 답했다. 송청란씨는 최근 활동을 하면서 단체이름을 알게 된 정도고, 원옥금 대표는 미등록이주아동 활동을 하면서 알았지만 단체 이름을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또뚜야 상담원과 왕지연 회장은 이번에 연락을 받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이주민 활동가도 이주민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율도 대표는 네팔대지진 때 진행했던 ‘비주류회담’에 이주노동희망센터가 참석해서 알게 됐으며 처음에는 국제구호사업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용철 소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 활동가로서,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이주노조 출신 활동가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알고 있었다. 이한숙 소장과 김호철 사무국장은 최근 활동으로 현 사무국장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활동의 어려운 점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단체도 많았다. 행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정도로 공모사업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단체가 많았다. 이주민 활동가들은 모두 한국어가 원활했음에도 글쓰기는 어려워 보고서 작성 등 글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3) 이주인권운동에서 필요한 부분

| 인터뷰 참여자 | 답변 |
|---------|------------------------------------------------------------------------------|
| 이율도 | 대시민운동 필요. 컨소시엄 전문단체(다른 단체들과 협업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 제안. |
| 이한숙 | 활동가 지원 사업. 활동가 역량강화 방식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갖고 활동가들의 요구를 받아 추진해야 함. |
| 김용철 | 이주민 당사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활동 방식과 목표. 이주인권단체에서 이주민 대표성 강화. |
| 김호철 | 활동가들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백업하는 것. |
| 다닐로알게라 | 이주민 참여 부족. 이주민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 또뚜야 | 이주노동자 교육. |
| 차민다 | 이주민 활동가 양성. |
| 원옥금 | 재정 문제 해결.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투쟁 |
| 송청란 | 이주운동에서 이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에 조금해 할 필요가 없다. |
| 왕지연 | 이주민 참여가 저조한 문제. 이주민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

이율도 대표는 이주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신생단체를 만들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컨소시엄 전문단체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한숙 소장은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도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못한 부분이라며, 활동가 지원 사업이 현 이주운동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철 사무국장도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주운동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호철 사무국장은 이번 인터뷰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면서 인터뷰에 호의적으로 응했다.

김용철 소장과 많은 이주민 활동가들은 이주민들의 대표성이 부족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이나 이주민 활동가 양성사업을 통해 이주민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옥금 대표는 열악한 이주단체들의 문제를 말하며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과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활동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가장 활동경력이 짧은 송청란 활동가가 말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것 같다. 버틴다는 말은 너무 힘들다. 버티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갔으면 좋겠다.”(57쪽)

(4) 해외사업 방향

| 인터뷰 참여자 | 답변 |
|---------|----------------------------------------------------------------------------------|
| 이율도 | 본국으로 돌아갈 이주노동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 사업기획서를 받아 해외사업 선정, 현지에서 일하는 국제개발 NGO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발굴. |
| 이한숙 | 해외 사업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았음. |
| 김용철 | 그 사회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 |
| 김호철 | 이주노동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
| 다닐로알게라 |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 |
| 또뚜야 | 본국의 노동운동 지원 사업. |
| 차민다 | 어업 이주노동자 문제 송출국가와 제도 개선 논의. |
| 원옥금 |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 상황에 대한 교육. |
| 송청란 | 중국은 국제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 |
| 왕지연 | 구호사업보다 재능 있는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방식. |



1

이율도 대표
이주인권컨텐츠랩 액트-잇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언제 알았나?

네팔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2015년 네팔대지진이 일어났다. 네팔 활동가 서윤미, 알렉스, 이율도, 최민욱 등 4명이 스마일백네팔(Smile back Nepal)이라는 한시적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네팔 지진 구호 후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그러다가 스마일백네팔과 다른 단체가 함께 ‘비주류회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팔 구호활동이 정형화되고 돈 위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전망을 토론해 보고 싶었다. 당시 텐트나 쌀을 전달하는 긴급구호 활동이 우선됐다. 그러다 보니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지역이 있었다. 네팔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존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서 장기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힘든 상황이었다. 비주류라고 자칭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다층적인 고민을 해보려고 포럼처럼 모였다. 그런 의견을 주류 NGO에 전달하자는 취지였

다. 그 비주류회담에 안은주 전 사무국장이 참가해서 이주노동희망센터라는 단체를 알게 됐다. 해외에 학교 짓고 학생 후원하는 등 국제개발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라고만 생각했다.

네팔 노동자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제주도에서 청년 예술사업, 빈집 프로젝트,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가 2013년도에 있었다. 그때 1호 사업을 시도했다. 마을에 빈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B급 상품을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굴과 백합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는데, 선물 박스로 만들어서 판매했다. 마을청년들(사실 장년이였다)과 청년 예술가들이 협업해 밴드활동도 했다. ‘도시골협동조합’이었는데, 제주도 1호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그 일이 망하고 멍하게 지내고 있을 때 국제개발 NGO에서 일하는 선배가 외국에 나가서 할 일자리(지구촌공생회)를 제안했다. 네팔 카트만두에 청소년센터가 있었고, 인도 국경지역인 룸비니, 카필바스투 지역에서 학교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였다. 청소년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실, 여성들 재봉 자활사업, 청소년 방과후 교실을 했다. 단원으로서 한국어교실을 맡아서 진행했다. 학교 사업은 문제가 많아 보였다. 사업비에 비해 현장 만족도가 낮고 지속성이 떨어졌다.

이주인권 활동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그때 한국어교실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부터다. EPS반을 운영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이주를 희망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곳이었다. 한국어수업을 1주일에 1~2번 정도 진행하라고 제안을 받고, 원어민 강사로서 한국의 문화, 시를 가르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한국에 갈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내가 아는 상황은 이주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생

각하니까 걱정이 많았다. 경주에서 자랐는데 경주는 경공업단지가 많아서 이주노동자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미고’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만든 EPS에 대한 책자도 나누고, 선배와 토크콘서트로 기획해서 신미고 사람들도 초청했었다. 이주노동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도 귀국하게 될 즈음 이 친구들도 EPS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으로 출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일하게 될 사업장 이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면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페이지에서 소통하고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했다. 내가 한국인으로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잘 안된 이유가 있었다. 친한 정도도 다 다른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울도씨가 묶어 놓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꺼려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데 공개적으로 자기 얘기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다. 25명 수강생 중에 22명 정도가 합격했고, 그들의 비상연락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장을 이동하기도 하면서 데이터 관리가 안됐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구촌공생회에 주장해서 사후 관리 상담사업 차원에서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지구촌공생회 홍보팀 직원도 같이 차량을 빌려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방문을 했는데 선물 들고 찾아가서 사장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다.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생계 문제는? 이주노조에서 일을 시작한 계기는?

네팔 친구들을 관리하려면 정상적인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

다.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장이 일을 못한다고 일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아침에 전화를 한다. 사장이 화가 났는데 영문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급하게 차를 빌려서 찾아가 사장 이랑 이야기 해보면 사장도 사정이 있더라. 그럼 내가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고용센터 가서 사업장 변경 신청해주고 그런 일이 꽤 빈번했다. 그러다 보니 내 개인생활이 제대로 안됐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20명을 돌봐주는 활동을 2년 정도 했다. 3년쯤 되니까 이분들도 스스로 커뮤니티도 생기고 저로부터 독립하더라. 입국 후 1년 이내에 가장 많은 사건사고가 생긴다.

제 개인 문제라고 생각했지,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다. 비주류회담을 할 때 이주노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다가 이주노조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이 왔다. 노조는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다야라이 위원장님 만나서 제안을 거절했다.

1년 쯤 후에 처음 온 네팔 친구들은 자리를 잡았고, 그 친구들의 형제자매들이 EPS에 합격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의 연락처를 받고 또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복지관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네팔 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을 하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왔다. 그래서 사장이랑 직접 통화를 하는데 나한테 매국노라고 비판을 하더라. 같은 한국인인데 이주노동자를 옹호한다고.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복지관 관장님에게 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며칠 있다가 이주노조에 입사했다. 2017년 11월부터 이주노조 일을 시작했다.

이주노조 일은 어땠는지?

처음에는 노동조합을 잘 몰랐다. 이주활동가가 주체성을 갖고 조직활동을 하고, 실무는 한국 활동가가 다 하는 구조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무에 빈 곳이 많으니까 빈 곳을 메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돈이 있는 조직에서만 일했던 것 같다. 사무용품 사는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서럽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처음에 이주노조가 돈이 얼마나 없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매달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00%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종이 한 장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135만원 받다가 다음 해에 4대 보험은 못하지만 최저임금은 주기로 논의해서 최저임금 받았다.

이주노조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난한 것이 가장 어려웠다. 금전적으로 가난하고, 인적으로 가난하고, 모든 인프라가 가난하다는 것이 힘들었다. 가난해서 이런 저런 일이 파생했다. 사람을 더 쓸 수가 없고, 일이 몰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조직화 사업이나 집회, 교육, 연대사업을 할 때마다 돈이 없어서 각박해졌다. 남성화된 조직이다 보니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거나 서로를 챙겨주는 조직문화도 없었다. 대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지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주노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연대활동은 어땠는가?

처음에 연대회의 참여할 때는 연대의 힘이나 목적을 몰라서 일을 하자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결정이 안 났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하자고 하면 무슨 목적이고, 이번에는 무슨 목표를 갖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자, 이런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역할분담으로 갔다. 오랜 공력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단계가 많이 생략된 느낌을 받았다. 결국 이주노조가 모든 실무를 맡게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주노조 본연의 사업도 있는데 연대사업에 끌려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내부에 노하우가 안 쌓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조직이 중심을 잡고 연대사업을 해야 하는데 연대활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주노조는 백업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연대사업은 쪽 일정이 있다. 2월에는 여수화재참사 추모식이 있고, 3월에는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 5월 노동절 등등.

이주노조에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우리 조합원 관리를 하고 싶었다. 조합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지역에서 동지들을 만날 때도 준비를 해가길 바랐다. 옛날 조직화사업을 잘 할 때는 지부별 활동가들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매뉴얼을 갖춰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자 한 사람을 상담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고, 대응은 어떻게 할지 매뉴얼이 필요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액트잇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우선 액트잇을 소개해 달라.

이주노조 활동을 그만둔 후, 조직화 사업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직사업에 맞는 활동가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제2의 삶을 살아야겠다.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연대 수준의 관심만 가지려고 생각하면서 쉬었다.

그러다가 미디어에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조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에 집중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이주노동자, 용어 정리조차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용

어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이주인권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우리 나름의 개념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개념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활동가 시선에서 연구하고 미디어에 제안해 보자. 이 운동판에서 어떤 것을 모아보자는 계획이 섰다.

한편으로 그런 걸 하면 또 뭐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론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럼 대시민운동이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머리만 복잡하니까 사업계획서를 써보려고 했더니 5년 정도의 계획이 세워졌다. 예산, 사람, 방향, 조직문화 등등. 비영리단체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했다.

비영리단체는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후원회원 모집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천만원 정도 있으면 4명 상근자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사업계획서를 놓고 또래 활동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물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활동가가 3명이었다. 사업계획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것이었고, 올해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실험적인 활동이 필요했다.

사업성과도 내야하고, 호흡도 맞춰봐야 하니까. 연구나 선주민과 이주민간 교류사업, 최종 단계로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 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고 의지를 모았다. 다행히 서울시 NPO 지원센터가 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단계에서는 우리의 이름과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콘텐츠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도 이주인권판을 공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주활동가 출신이니까, 기성 단체 선배들에게 지금 시기에 꼭 부각해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참고>

“액트-잇(ACT IT)”은 이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영상 제작 그룹으로, 이주민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더 가까이 전하는 '이주 인권 콘텐츠 랩'을 지향하는 단체다. 2020년 10월 마이크로 다큐멘터리 한편, 유튜브 영상 3편을 발표했다.

이주 노동을 역추적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대표 사업으로 잡았다.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주 노동자를 주제로 한 깊이 있는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민의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모습을 조명하는 콘텐츠.

마이크로 다큐멘터리는 섬에 직접 가서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제작한 것으로 이주민들이 남긴 흔적들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콘텐츠는 유튜브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ASMR, 쿡방, 커버 메이크업과 같은 영상을 이주민과 함께 찍는 내용이었다. 유튜브 고유의 콘텐츠 소재와 포맷을 차용하되, 구성원들은 이주민과 활동가로 채워 같이 놀아보는 느낌의 영상이었다.

이율도 대표 외 활동에 결합한 활동가 3인은 다른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로, 별도 인건비는 없이 활동했으며, 현재 사무공간도 없는 상태다.

대시민운동의 필요성은?

노조활동할 때 제 경험을 얘기하면, 일단 기자회견에 기자가 안 오고, 집회에 대해 공감을 잘 못 얻는다. 당사자들에게 공감을 얻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런데 현안을 다루다 보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단체가 가난하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갈증도 많았고 외로웠다.

미디어들은 발달돼서 뉴스가 나오면 댓글도 많이 달린다. 댓글들을 보면 네티즌의 정서가 보인다. 그런데 이주 문제에 대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에 따라 움직이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안타까웠다. 기성 미디어 외에 다양한 콘텐츠로 접근하고 싶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도 싫으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계획에 대해 이주민권단체 선배들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내재적 인종주

의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정보가 없고 자료가 없어서 이주민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주운동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언론에서 조명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많은 부분이 좋아져서 이주노동자들이 욕을 먹거나 맞는 상황은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특하면 맞고, 성폭행 당하고, 월급도 체불된다. 수가 적더라도 동시대에 존재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들이 알려졌을 때 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상황을 모르니까 욕을 한다.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너무 단편적이다. 사건 아래 깔려있는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올해 액트잇 활동에 대한 평가?

컨텐츠이고 영상이다 보니까. 실험적인 면이 많았다. 목적의식에 부합하게 영상은 나왔다고 본다. 주변 리뷰를 들어봐도 엇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 활동가들 인건비가 없었던 것이 제일 힘들었다. 검직을 안 하고 이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이주노조 내에서 볼 때와 밖에서 이주인권 운동을 보는 문제점이 다른가?

이주노조에 있을 때는 액트잇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팍팍했다. 인력난과

업무과중 등.

지금은 더 넓게 보이는 것 같다. 그 때는 왜 이런 식의 연대활동 밖에 없었나, 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 밖에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살아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솔루션뿐만 아니라, 각자 고수해 온 입장도 있고, 장기적 관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단체마다 서로 역학구조도 있고 해서 현재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안에서 일할 때는 절망적이라 느끼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답답했다. 내 정체성과 전략은 이 안에서 찾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됐다.

나오고 나니까 상생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들의 역할들, 혁신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처럼 별도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역사성과 상관없는 조직들)이 만날 수 없는 두 조직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주노조를 나와서 선원이주노동자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서울지역의 네트워크와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역의 개별조직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수도권은 제조업 노동자가 주가 되고 간혹 농축산업 노동자를 만나는데, 지역은 농축산업 노동자들이 주가 되고, 어업 노동자도 만나고 미등록 노동자, 미등록 아동 등을 만난다. 이주와 관련해 듣게 되는 수위가 훨씬 더 높다.

서울에서 접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기간이 두 달이라면, 지역에선 임금체불이 몇 년 된다. 지역과 서울이 접하는 문제의 깊이가 달랐다. 지역활동가들이 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급했고, 전체 운동의 문제로 생각하기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안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닦친 사안들이 너무 급했다. 수도권 조직들이 전략을 세워서 싸워주는 모양새도 아니고. 공력(功力)은 지역이 더 있는데도 말이다.

서울에 있는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고민이다. 노동조합도 아니고 NGO인데.

더 다양한 조직들이 필요하다. 더 다양한 상상력으로 실무를 만들어 내는 단체가 필요하다. 액트잇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주인권 문제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회 문제로 접근한 단체들도 있다. 이주여성들의 통번역 기술을 이용해서 재정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서로 잘 몰라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그동안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와 컨소시엄을 맺고 이주노동자 교육영상 제작사업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공모사업에서 컨소시엄 전문단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미 전문성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는 단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서 함께 해내는 방식.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는 돈이 필요해도 노동조합이라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공모사업을 공익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다른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자체 외국인 다문화 영역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현장단체들과 협업사업을 하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단순히 행정처리를 대리하는 것 말고, 이주노동희망센터가 주도권을 쥐고 정식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해서 정책영역사업, 상담협력사업, 직접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재단 사람’을 보면 인권운동 단체들의 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로 보조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재단으로서 잘 역할하는 것 같다. 이것을 오마주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주단체들이 하는 해외사업의 방향 중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국제개발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영역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세계사가 발전해야 한다. 우리에게 오는 제3국의 노동자들은 그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고,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스스로 발전을 못해서 외국까지 이동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전위적으로 들어가서 직접 활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자생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는 활동을 하려고 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곳이 이주노동희망센터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기 전에 본국에 돌아가서 지역사회 발전을 하고 싶은 기획이 있을 수도 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기획서를 제안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교육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 NGO와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지에 있는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활동가라는 단어도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주 관련 신생단체까지 만들 수 있었나?

그냥 사람들 인연 따라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2



이한숙 소장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진 출처: 공익법인센터 어필 홈페이지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집담회'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

제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 잘 몰랐다. (김사강 연구위원이 이하 추가 설명) 이주노동희망센터가 미등록아동 실태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했었다. 그 토론회 자료집에 정책제언을 실었는데, 그 정책이 이주배경아동청소년네트워크가 만든 것이다. 사전 상의도 없이, 출처도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썼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교육, 출생등록, 의료 등등 각자 분야를 맡아 가능한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정책제언을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작업이었다. 네트워크 이름으로 발표하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토론회에 참석했던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가 이주노동희망센터 보고서 결론에 우리가 만든 정책제언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네트워크 단체텔방에 올려 알게 됐다. 네트워크 회의에도 딱 한번 참석한 사람이 자료를 빼돌려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 그동안 교수나 연구자들

이 단체활동가들의 성과를 빼돌리는 경우를 볼 때 많이 분노했었는데, 단체가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주노동희망센터 욕도 많이 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공모단체에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사업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 사무국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안 좋았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일들로 만나게 되면서 그때 가졌던 나쁜 이미지가 희석됐다.

어떤 계기로 이주인권 활동을 하게 되었나?

1996년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상담을 시작하여, 영역을 차차 넓혀 ‘이주민과 함께’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1996년 활동 초기부터 함께 했었다. 그때는 한글교실 자원활동을 했는데 내가 교장이었다.

그 전에는 부산에서 짙짙한 노동운동 선배들이 만든 ‘노동자 교육협회(노교협)’에서 일했다. 노교협은 노동조합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곳이었었는데 노동운동이 성장해서 외곽지원이 필요 없게 될 즈음, 이주노동자 상담이 쏟아진 것이다. 노동운동은 성장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노교협이 해체되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처음에 필리핀 노동자 부부 상담이 있었다. 사장이 부인 샤워하는 걸 훔쳐보는걸 보고 남편이 항의하다 보호소에 잡혀갔다. 그런데 활동가들이 영어로 소통하는 게 힘드니까 영문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한테 연락이 왔다. 나도 영어 못하니까, 영한사전을 들고 통역하러 갔었다. 결국 그 분은 일시보호로 풀려날 수 있었다. 한글교실 맡아서 하면서 대학원 논문도 이주노동자 쪽으로 쓰면서 ‘이주민과 함께’에서 상근 일을 하게 됐다. (참고: 외국인 노동력 유

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년)

이주와인권연구소는 ‘이주민과 함께’에서 어떤 이유로 독립했나?

당시에 정부쪽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용역이 많았다. 연구계의 블루오션이었다. 연구보고서를 만들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단체들이 맨날 설문조사 열심히 해준 결과로 보고서가 나오면, 정책제언 방향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었다. 우리가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루트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럴 바엔 우리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주민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2005년 ‘이주와 인권 연구소’를 개소했다.

6년 정도 혼자 상근했고, 2011년 김사강 연구위원이 결합했다. (참고: 김사강 연구위원은 안양이주노동자의 집에서 박사논문을 위한 필드워크 및 자원활동을 하면서 3년 가까이 활동가처럼 활동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0년 귀국했음) ‘이주민과 함께’가 법인 등록하기 전까지는 차비 명목의 활동비만 받았다. 연구소가 독립한 것은 2017년이다.

독립하고 후원회비와 프로젝트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법인이나 단체 등록도 안했다. 행정업무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임의 단체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기관 연구용역 프로젝트는 다른 단체가 받은 프로젝트에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가들은 연구원으로 기록한다. 보통 교수나 연구자들이 활동가들에게 실태조사는 다 맡기면서도 연구보조로 이름을 올리거나 아예 이름도 안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하는 모든 활동가들도 똑같은 연구원으로 대우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동하는 에너지는 뭐였나?

에너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다. 내가 왜 사느냐, 왜 하느냐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일하지는 않지 않나. 대개 어려운 타이밍이 오면 고민하지만,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항상 갖고 있지는 않다.

제 별명이 아나키스트라고 한다. 조직을 싫어해서 그런 거 같다. 활동이나 조직의 목적, 이런 거 정말 싫어한다. 조직을 피라미드로 보고, 리더들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방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일도 잘 안되더라. 어떤 일에서는 경계가 없어야 상황이 변해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갈 수 있다. 나의 이상일 뿐일 수도 있다. 내가 왜 이주운동을 하냐고 생각해 보면, 꼭 이주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어느 지점에 있다 보니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주 단체들이 위탁센터들이 많은데, 다 성격이 다르다. 누가 위탁센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활동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센터의 활동과 방향이 달라진다. 연대모임을 하면 가장 답답한 게 함께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에 돌아가서 보고하고 의견을 바꾸는 것이다. 연대모임에는 결정권한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대활동을 지치게 만들고 힘 빠진다.

어떤 마음으로 연대활동을 해야 할지?

문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조직은 확대 발전을 하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활동가들이 많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직의

일로 안 받아들여진다면)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하게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조직을 나오는 수밖에 없다.

서울이 중앙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에 있는 단체로서 어떤 점이 다른가?

지역에서 활동하면 느끼는 점이 있다.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은 진짜 붐 떠있는 느낌이다. 자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들을 묶어서 뭉 같이 하자고 하면 황당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할 준비나 기반, 자격이 있는가. 현장과 괴리가 심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서울중심주의가 강하고, 서울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같이 가고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문제에 집중하자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현재 이주민 100명중 25명도 안 된다. 이주민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통 H-2 (참고: 중국동포 비자) 노동자들 관련해서는 실태도 모르고, 관계도 없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문제는 10년 넘게 끌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고용허가제 제도는 성공한 제도다. 그래서 쉽지 않다. 문제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다. H2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안 되어서 그 지경인 게 아니지 않은가. 또한 현재 상태로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돼 다른 사업장으로 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고용된다 해도, 이주노동자 수준 임금만 받는다. 물론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인데, 자기 현장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 이상, 그 사업장 조건이 그대로면 뭐가 개선되겠냐는 거다. 다른 노동자가 오면 또 똑같이 착취당하고 산재당하고 하는 것 아닌가?

‘사업장 변경’ 문제가 운동의 고리일 수 있지만, 운동의 목적일 수는 없다. 산업재해 문제조차 사업장 변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답답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문제일까?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 문제를 핵심사업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주와인권연구소가 2005년 개소하고 ‘이주노동자 지원에서 연대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했었다. 당시 고민이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것이었다.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몰랐다. 기존 노조에서는 안 받아주고.

당시에는 다 미등록이었기 때문에 단체 내부에 이주민조직을 만들었다. 그런 활동이 이어지면서 필리핀커뮤니티센터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각 지역의 고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다. 성서공단노조는 지역노조 성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노조로 조직하냐,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이주민 커뮤니티와 어떻게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건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은 이주민 커뮤니티가 대부분의 상담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

서울에 있는 단체들은 이주민커뮤니티와 연계가 없는 게 문제다. 서

울의 이주관련 NGO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서울은 단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다.

지역은 활동하는 단체가 한 개씩은 있다. 많았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오래된 단체가 있으니까 이주민과 연계가 강하다. 서울에 있으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주민 안에도 계급과 계층이 얼마나 많은가. 중국동포도 ‘동포’로 하나로 묶는 것도 말도 안 된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도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국동포, 이주여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고하는데, 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중국 동포들도 심각하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런 노동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갈 곳도 없다.

이주와인권연구소는 현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주민 지원센터가 흐름에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 정책이 변하거나 현장이 반응을 제일 먼저 감지하게 된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이주민과 함께’가 위탁하는 기관이다 보니,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연구소는 주 업무 중 하나가 실태조사다. 조사를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는다. 상담을 받는 상담사들이 얻는 정보와도 다른 깊은 정보를 알게 된다.

연구소는 남이 잘 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 다른 사람이 안 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 농업이주노동자 문제도 처음 시작했고, 2012년에는 어업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농업쪽 문제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는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주민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계속 알리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건강보험 문제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

리 사회 소수자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다. 우리는 이주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주민은 우리 사회 소수자 중에 한 부분이다.

이주인권운동에서 비어있는 활동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도 해보려고 시도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활동가를 지원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일하다가 정리하고 싶은 타임에 머무르다가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해도 내용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해서 쉬운 일은 아니다.

신규활동가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어떠할까?

그런 단체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 단체에 지원하는 재단들의 맹점이 사업프로젝트 위주고, 까다로운 평가기준에 작은 돈을 쪼개준다. 우파는 이것저것 묻지 않고 장기로 돈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파에게 밀리는 것이다.

활동가를 위한 교육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을 할 때 너무 수준이 낮으면 무시하는 것일 수 있고, 활동가의 요구를 못 받거나, 깊이가 없을 수 있다. 역량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 더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하향식 사고를 많이 해서 대개 경직돼 있다. 젊은이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다. 새로 배우고 내가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듣고 싶는데, 그런 진지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다. 이주와 관련된 오랜 강좌를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기존 단체 활동가들은 나이 들어가고, 젊은 활동가들은 요새 변호사단체에 많이 있는 것 같다.

운동이 쇠퇴하면 법에 의존한다고 하더라. 법률운동의 맹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 제정이 최종 목표가 될 때가 많다. 법이 제정된다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법제정이 안 되면 모두 흩어진다. 한 개라도 성과를 얻자는 마인드로 타협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무슨 성과가 남는가.

활동가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제도를 넘어서야 한다.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운동 과정에서 연대가 중요하다. 법률운동이 주가 되면 활동가가 위축되게 된다.

이주인권단체가 해야 할 해외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아시아평화인권연대가 해외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재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사업도 하거나, 베트남 한국인 학살지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는 단체도 있다.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 결이 달라서 잘 모르겠다.

다른 나라에 세운 학교를 보면, 해외 지원을 받는 학교로 그 마을에서 명문학교로 평가받는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도 이주노동에 대한 선망을 더 키워줄 뿐이다. 이주노동을 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계급계층이 높아져 있는데, 그들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게 하겠다는 것도 욕심일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한 이주민활동가를 보면 대부분 본국에서 활동의 경험, 출신 국가에서 운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인터뷰를 정리하는데 다음 자료를 참고했음.

이한숙, 김사강, 권명아, 장수희, 신현아, 김대성. (2017) “연구하는 활동가, 활동하는 연구자를 지향하는 작지만 튼튼한 연구소 <이주와 인권연구소>를 만나다”. 『문화과학사』 89, 248-262쪽.

3



김용철 상담소장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언제 어떤 계기로 알고 있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라 알고 있었나?

페이스북 통해 이주노동희망센터 소식을 많이 본다.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와는 다른 곳 맞나? 음 그러면 이수호 이사장님, 그리고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실장 했던 분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분들이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네팔 신미고, 방글라데시로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MTU(이주노조) 출신이 귀국한 이후에 그 쪽 사회 내에서 사회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성격이 컸고, 그 다음에는 한국 내에서 이주연대활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차민다 동지가 상을 받아 이주민 활동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게 됐다.

소장님은 성서공단노조에서 이주활동을 시작한 건가?

그렇다. 30년 전에도 대구에서 영세한 사업장이 있는 곳이 성서공단 이었고,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었다. 작은 사업장들은 휴폐업도산도 많이 이뤄지고. 그때 저는 노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작은 사업장에 있는 민주노조 지원하는 사업을 10여년 정도를 하면서 성서공단에서 활동했다. 기업별 노조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노조를 만들어도 회사가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답이 없었다. 지역노조를 만들자고 해서 20여년 전에 성서공단 노조를 만들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 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2002년 당시,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서 사업장이 탈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던 친구들도 많았다. 그래서 한국말도 잘했다. 성서공단노조를 만들자마자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 노조를 만들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노조를 만들자마자 (사업계획 논의에서) 1호 안건이 될 정도로 성서공단에 이주노동자가 너무 많았다. 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위해 성서공단노조 활동으로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진료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진료실도 만들었다. 2002년 10월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12월에 진료실을 만들었다. 이어서 한글교실도 만들면서 이주노동자 활동을 확대했다.

내부 논쟁 없이 이주노동자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었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다. 장애인, 고령노동자, 산업재해 노동자 등

어려운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는 지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았어도 논란은 없었다. 이주노동자 현실이 굉장히 비참했다. (한국어로 의사)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면 문턱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장기적으로 미등록인 상태로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소통의 문제도 없었다.

성서공단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데, 선주민 조합원들 사이에 반대도 없었나?

전혀 없었다. 성서노조를 만든 주체들이 활동가들이었다. 창립조합원 중 절반은 비정규직 운동을 하겠다는 활동가였고, 절반은 해고돼 돌아갈 공장이 없는 해고노동자였다. 활동가들은 이주 관련 시각을 넓히는 게 어렵지 않고, 해고 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형태가 자신들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었다.

초창기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조직됐나? 노조가 생겼다고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상담오지 않았을 것 같다.

초창기부터 이주조합원 숫자가 많았다. 지금은 조합원 100명 중 이주노동자가 85명, 코리안이 15명 정도 된다.

홍보를 많이 했다. 노동조합, 진료실, 한국어교실을 홍보해야 하니까, 포스터 홍보를 많이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낮에는 시간이 없어 밤에 풀 들고 공단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포스터를 붙였다. 그때는 풀로 포스터를 붙이던 시절이다. 요새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현수막은 대로에 붙이지만, 포스터는 골목 안쪽까지 붙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접하게 된다. 성서공단 노

동자들이 공단 약도를 잘 아니까 약도 들고 다니며 포스터를 붙였다. 지역노조의 장점이다.

보통 국가 별로 조직되는데 성서공단노조는 조직된 주요 나라가 있나?

그렇다. 평지 돌출로 “노조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은 우리와 상담한 이주노동자가 많은 시간을 가진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초기 조합원들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출신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온 사람들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회사가 이곳에 보낸 경우다. 지금 수준으로 하면 50만원 정도 받았다. 이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재판하면서 2~3년 정도 걸렸다. 회의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동지들 3명이 가입했고, 이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은 모두 귀국했지만 당시에는 이 노동자들 중심으로 모였다. 이어진 방글라데시 노동자 투쟁은 역사적으로 최초로 기록한 것이 많다. 2004년 한 회사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과로사를 당했다. 우리는 과로사로 보고 산재인정 투쟁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투쟁했는데 선례가 없다고 해 농성투쟁 끝에 산재인정을 받았다. 그 회사가 임금체불도 심각했다. 그 투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과로사 판정을 끌어냈고, 이주노동자 대상 단체협약을 맺었던 첫 사업장이 됐다. 또한 이 사업장의 사장을 임금체불로 구속까지 시켰다. 이때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다. 모두 미등록 노동자였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두 축으로 활동하면서 이 친구들이 통역을 맡아주다 보니, 이 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후 네팔 노동자가 당한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회사 앞에서 피켓 들고 당사자

들과 직접 투쟁을 했다. 이 투쟁도 승리하면서 네팔 노동자들도 많이 참여하게 됐다. 지금은 차민다 동지가 상근하게 되면서 스리랑카 동지들도 많이 오고 있다. 지금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윤다혜 동지가 노조에 상근하면서 베트남 출신도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성서공단에 특별히 많은 국가 출신이 있나?

대략 출입국 통계와 비슷하다. 서해안 쪽은 중국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이쪽에는 특별한 많은 국가 출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팔은 MTU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힌두교 사원이 없고, 종교 문화도 다르다 보니 노동조합으로 많이 조직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슬람은 모스크라는 종교적 공간이 있어 그곳이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주요 이주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련 대응이 많았다. 마스크 나눠주고, 코로나 자가 방역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아 홍보도 해야 했다. 사실 노동조합이 할 일이 아닌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플래카드로 만들어 붙이고 그랬다. 미등록도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평등 마스크 보급도 한 달 이상 했다. 초기에 신천지발 대구라는 상황이 있어서 정말 공포스러웠다. 저희는 구호성의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길가에 이주노동자들이 다니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이 겨울에 쓰는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몇 겹씩 끼고 마트나 겨우 가는 상황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도 한국에서 방송도 안 한다’는 이런 루머들이 엄청 많았다. 자국

의 공항들이 봉쇄되기 전까지 급하게 귀국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퇴직금 관련해서 긴급 상담 요청이 많았다. 그동안 대구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 의료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대안도 없이 입원해 있던 이주노동자를 다 내보냈다. 20% 자부담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성서공단노동자도 처음에 사무실 문을 닫았었다. 그 당시 대구 분위기가 그랬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다른 의료원 안내하는 등 코로나와 관련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30년 이주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고민하는 지점은 한국의 이주노동이 너무 동정과 시혜로 접근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종교기관 중심의 운동에서 명동성당 투쟁으로 넘어오고 MTU로 이어온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운동이 노동조합 운동의 정체성으로 접근했다. 명동성당 투쟁 전에는 이주노동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방식이었다. 그 때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산업연수생 시대였고, 산재도 적용이 안 되는 등 절대적 약자였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MTU 이후로 바뀌었지만, 이런 느낌은 지금도 있다. 질적 전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이 당사자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사들을 주체로 만들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이주운동이 결국 돌아가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동안 차별을 덜 받게 하고 차별 받는 것에 대해 구체해 주는 것으로만 여전히 한축으로 굳건히 있다. 이런 점이 역으로 이주운동의 발전과 주체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에 불만 있으면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는 상황에서, 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노동자 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상징하고 있다. 이주민인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노동자로 접근한다. 운동으로서 이주운동을 접근하고, 운동으로서 주체, 운동으로서 지속가능성, 운동으로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이주운동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 부분이 꼭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측면을 볼 때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 있는 조직이 노동조합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직이어야 한다. 목표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주의라 표현해도 좋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체제라도 해도 좋은데, 그러한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만에 갔을 때 TIWA(참고: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라는 이주노동단체를 보고 감동받았다. 가사노동자 조직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티와가 2년에 한번,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를 하는데, 2천명씩 모인다. 여기에 가면 분노가 눈에 보인다. 가사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터인) 집에서 나와야 한다.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자신들만 있으려고 쫓아내는 것인데, 가사노동자들이 현수막을 써서 나온다. 티와 약칭을 그대로 풀이하면 국제노동자협회다. 이들은 국제노동자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주해온 노동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 국제노동자라는 시각이 없다. 한국도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다 현재 이주노동자라고 쓰는 역사적 과정이 있다.

티와는 국제노동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의 목표는 국제연대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자국으로 돌아가서 국제적 수준으로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여전히 돕는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명동성당 투쟁 때보다 어느 측면에서는 이주운동이 더 어려워진 느낌이다. 고용허가제가 그나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주노동자 정책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본국에서 노동조합이나 운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한국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것도 활동가들의 과도한 욕심이라는 평가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1당 사회고,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자기 이념 속에는 노자간의 갈등이 없다는 것이 내포돼 있다. 노자간의 착취와 갈등이 없는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스리랑카도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베트남, 중국, 이런 국가가 사회주의인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인정하더라도 활동을 축소 억압하고 있다. 베트남도 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이 96년 인가, 굉장히 늦다. 그런 국가는 노동조합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국으로 귀환했을 때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네팔이 공산당이 집권당이다. 공산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활동을 한다. 돌아가면 기델 언덕이 있고 합류할 조직이 있어서 활동할 여지가 있지만, 작년 신미고 가보니까 신미고 동지들이 다 네팔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집권당 입장을 갖고 있더라.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 한국에서 착취당하거나 노예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할 생각이 없더라. 네팔 경제의 30%가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만 고민한다. 변질되었다

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해서 공장 노동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돌아가면 모텔 사업이나, 사업가로 활동하려고 한다. 가진 부의 정도가 노동자 계층이 아니다. 성서공단노조도 신미고 같은 활동을 하려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 안 된다.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계급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보적인 가치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 착취에 대한 분노 등 하나의 가치관과 의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주노동 운동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도와주는 대상으로 봐서 주체화가 대단히 더디다. 그것이 MTU를 통해 변화가 있었지만, 합법화되면서 운동이 순치화되기도 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한국에 오게 되면 본국에선 동네잔치를 하는 분위기다. 이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장 이동을 못하는 폐해를 겪거나 산재를 당하면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지만,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해 분노하거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주체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변혁적인 가치관을 형성시켜 내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체를 만드는 문제는 변혁적 세계관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쉽진 않지만 우리는 계속 리더들과 공부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노동자의 세계관, 노동자의 철학, 노동자의 경제학 등 이런 책이 없다. 있어봐야 개별적인 권리의식 관련한 근로기준법 관련 책이다. 노동자로서 노동자 계급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공장을 바라보고, 이주운동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나 자료가 없어 큰 고민이다.

한국 정책이, 이주노동정책이 단기순환 정책이다. E9 노동자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미등록으로 안 잡히고 2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다.

고용허가제 자체가 결국 귀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 민주주의 진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기 고국에 관심이 더 많다. 단기순환 정책 속에서는 내가 있는 동안 임금 잘 받고, 안 다치고 돌아가는 게 최고 목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과, 전 세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고 힘든 문제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뭘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힘겨움이 굉장히 크다. 이주노동자 대상 교과서를 누군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노동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주체성과 비중을 높여야 한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과잉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계속 줄여가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대표하는 것으로 높여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체류권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안정적 체류권을 가진 활동가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심 조합원에서 네팔로 확대된 것이 시리스타 동지(네팔 출신)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 동지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활동가라고 본다. 이 친구는 귀국했는데 쌍용자동차노조가 인도로 투쟁하러 갈 때 자기 업을 버리고 통역을 해주러 인도까지 왔었다. 그런 연대정신을 존경한다.

조합원들이 국가별로 부침이 있는 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윤다혜 동지나 차민다 동지 모두 F6비자(참고: 결혼이민비자)다. 어쩔 수 없이 F6, F5(참고: 영주권)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CTU가 조금 더 노력해서, 노조활동 비자를 새로 만들긴 어렵겠지만, 그런 비자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으신가?

청소년 대상 노동인식 교육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다.

성서공단 노조 재정은 어떠한가?

조합원이 100명인데, 조합비가 한 달에 2만원이다. 조합비도 성서공단노조의 문턱은 문턱이다. 저는 이주노조 조합비가 5,000원일 때 만원으로 인상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돈 가는 데 마음 있고 조직에 요구도 있을 수 있다. 조합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서공단노조는 이주노동자만 있으면 다르겠지만 한국인 조합원도 있고, 만약 한국인 조합원이 문제가 있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이주노동자 문제 있으면 한국인 조합원들이 함께 연대하기도 한다. 한국인이 함께 있는 노조라는 것이 장점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조합비도 같이 동일하게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곳에서 무료혜택을 받고, 한국인들은 다 잘 살고, 정부와 NGO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임금 못 받는 조합원에게는 조합비 받지 않기도 한다. 대신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랠리(참고: 집회 등)에 나갈 수 있는 지, 일 안 할 때는 피켓팅을 할 수 있는 지, 공부모임에 올 수 있는 지,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는 지 등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규칙을 따르겠다고 우선 약속해야 한다. 노조가입하고 싶다는 친구들 더 많이 있지만 이 약속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받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면 노조가입을 유지할지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MTU로 가라고 안내한다.

1년에 예산이 1억2~3천만원 정도인데, 조합비는 20%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른 단체들처럼 후원으로 메꾼다. 1년에 한 번 후원호프 한

다.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후원주점이다. 그래도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한국 활동가들은 활동비로 120만원 정도 받는다. 이주 당사자들로 활동가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주활동가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오래 전부터 원칙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조합 운영의 엄격한 기준을 좀 낮추라고 하기도 하고,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주운동이 종교단체 중심으로 시혜와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이주운동의 뚜렷한 특징은 변호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도 아닌 NGO가 이주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노무사든, 변호사든, 전문가 그룹들이 이주운동을 다시 보고 결합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주노동자 당사자들 없이 변호사의 힘으로만 쟁취한다면 저는 반쪽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주운동의 승리로 하고 하기 어렵다.

저는 명동성당 투쟁 이후로 대중 투쟁 수준이 낮아졌다고 본다. 카렌다 집회(참고: 기념일 맞춘 집회)만 있을 뿐이지, 파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대중 투쟁 자체가 사라진 가운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대중투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것을 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주민들에 대해 한쪽으로는 포섭, 한쪽으로는 배제 전략을 쓰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고용허가제법 등을 통해서... 정치투쟁이 가지는 투쟁의 비중이 크다. 대중들이 주체로

나서는 정책투쟁이어야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전문가 중심으로 가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다른 기획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자회견 말고는 없는 것 같다.

대중과 호흡하는 이주 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목표로 액트잇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활동이 더 많아지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까.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하자면, 전문성과 주체가 더 든든히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역은 역량도 부족하고, 전문가 집단도 부족하고, 운동의 주체도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이주운동을 하는 한국인 단체도 많지 않다. 특별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실천과 현장 결합성만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중앙이라고 표현하든, 서울이라고 표현하든, 서울에는 전 영역이 있다. 아동, 국제결혼, 중도 입국자, 미등록 아동의 학습권 등 세분화해서 활동하는 단체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다. 노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주건강권 관련 문제를 갖고 서울쪽 단체에 연락해보면 이 단체도 조금 하고 있고, 저 단체도 조금 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는 없다. 다양한 단체들이 이 문제를 한 부문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을 꺾어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이주운동에서 핵심 고리가 무엇인가? 다 모여서 할 것인가? 지난해는 차별금지법으로 모였는데, 저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핵심고리이자 근본적이며 관통할 수 있는 연대체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민련, 전국연합 같은 조직은 사무국을 꾸려서 일상적으로 하려는 그 사업만 한다.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사안별 대책위는 굉장히 많고

사안별 대책위가 한 차례 이슈파이팅은 하는데 기자회견으로 이슈파이팅하는 네트워크만 있을 뿐이다. 이주 문제를 다 수렴해서 법률국, 정책국을 두고 사안을 쪽 모으고 분석하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재편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범람하는 구멍가게처럼 될 수 있을 거 같다.

시간 나실 때 대만을 한번 가보시길 권한다. 꼭 티와를 가서 보시라. 그 해마다 이슈를 하나씩 띄우고 싸운다. 내가 갔을 때는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였다.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EPS 노동자만 생각하는데, 결혼이주여성도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통번역 결혼이주여성노동자 문제는 이주노동 문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주노조가 장기적으로 하나의 산별노조 위상으로, 노정교섭을 통해 이주노동자 관련 전국 수준의 단체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작은 사업장의 노동3권을 지켜내야 한다. 이주노조에 애정이 많지만, 이주노조는 현재 이슈파이팅하는 기능, 법제도 개선에 너무 쏠려 있다.

민주노총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이주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는가? 비정규직에서 멈춰 있다. 노동운동 계층상으로 보면 이주노동은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저출산 국가로 이주노동자 숫자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농업이나 어업, 특고, 아주 영세한 사업장들 그곳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가와 조직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전략 조직사업으로 갈 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런 곳에 예산도 더 내고 민주노총 이주 부위원장도 만들고 이주사업만 전담하는 상근자도 만들어야 한다. 노동운동으로 이주운동을 고민하는 쪽이라면 이런 문제

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 국제사업을 조금씩 하는 것 같다. 이주노동희망센터도 해외사업 비중이 꽤 높다. 이주 관련 NGO가 해야 하는 해외 사업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마을에 학교나 우물을 짓는 건 그 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주어가 운동이니까, 운동하는 단위가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주운동 단체가 옛날 활동가들과 연대해서 학교 짓고, 우물 파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주운동 오래했던 단체가 예전에 명동성당 투쟁하고, 잡혀 돌아간 동지들에 대한 부채의식 갖고 있는 건 한 시기다. 이제는 생각도, 사회도, 문화도 달라져 있다. 상호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채의식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은 한계가 많다. 네팔 신미고와 저희 단체와도 갈등이 있었다.

구호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운동이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쪽 나라에 대안학교를 세운다면 의미가 있을 것도 같다.

이주노동의 역사는 인류초기부터였다고 생각한다. 배 타고 왔고, 노예 무역선을 타고 왔고, 착취를 위한 이주노동을 통해서 부를 채우는 역사는 노예 제도든, 식민지 정책이든,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건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으면 이주노동자를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 없는 교육은 한국에서 일 시키기 위해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작업일 수 있다.

한국의 노동단체를 연결해서 귀화한 노동자가 못 받았던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등등을 받게 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경제적인 것이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 연대는 그 쪽 사회의 운동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파트너들의 역량, 그래야 파트너십이 가능하다. 평등의 가치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네팔 접경지역 공단을 갔었는데 최하층민들이 공장에 있었다.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모두 해외로 나간다. 시급 1천원을 받고 일하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곳에 공단노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 사업은 이주노동에 대한 경험 유무가 아니라 그 사회의 노동단체와 연대해 노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4



김호철 사무국장

성요셉 익산노동자의집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알고 있었는지.

사실 몰랐다. 최근에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증언대회 때 송은정 사무국장이 사회를 봐서 알게 됐다.

이주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8년부터 여기서 일했다. 사실 개인사이긴 한데, 신학교 출신으로 신부가 되고 싶었다. 신학교 때부터 의정부 엑소더스(참고: 천주교 이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신학교의 지원으로 남미에 유학을 갔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됐다. 그래서 나를 공부시켜 준 천주교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됐을 때 이곳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만나서 일하는 게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어떤 이유로든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갔다 와야 안정이 되는

편이다.

익산노동자의집은 어떤 곳인가.

천주교는 이주사목위원회가 있다. 전국 각 교구별로 있다. 방향은 다르지만, 1년에 두 번씩 전국모임을 한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해도 했을 것이다. 이주사목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모이기도 해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등 좋기도 한데, 단점은 신부님들이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뀐다. 그러다 보니 오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전문화된 사람이 없다. 제가 평신도 실무자 중에는 세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오래 일했다.

봉사활동으로 이주 활동을 할 때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병원이나 노동청에 동행하는 역할 정도였고 깊은 상담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전임자 수녀님이 이미 인사 이동된 상태라 공백 상태였다. 파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미사 오는 이주노동자들 대상으로 한국어교실과 무료진료에 집중했던 것 같다. 그러나 평신도가 맡다 보니 한국어교실이나 무료진료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 한국어교실을 하는 곳도 많아서 꼭 안 해도 될 것 같았고, 무료진료의 경우에도 그 전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진 병원으로 바로 연계하는 게 낫겠더라. 그러고 나서 이주노동자 상담에 집중하게 됐다.

천주교가 이주사목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희 사회교리에 보면, 바오로 교황님 한 멘트로 이야기하자면 ‘약자에 대한 선택’이다. 해석하면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물론 약자의 기준이 다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약자가 있다. 누가 더

약자냐는 기준은 주관적이다. 이주사목은 이주민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약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저는 제 신분을 평신도 선교사라고 생각한다. 협소한 선교의 의미는 내 종교를 전파해서 데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종교적, 신앙적 부분을 드러내는 것,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 있는 복음,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은 천주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좋은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으니 나 같은 사람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맙다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처럼, 다른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교’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불편해하거나, 교인들 중에서 불편해하거나 그런 건 없나?

없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오기도 한다. 이 성당 근처에 작은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오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크 친구들이 여기 와서 놀고 가기도 한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차이가 있나?

이주노동자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 단체 조직의 경제적 존립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먹고 살아야 활동을 하고, 단체가 유지될 터인데 노동자만으로 돈이 안 되고 유지가 되기

힘들다.

결혼이주여성 관련 사업은 프로젝트도 많은데, 노동 문제만 갖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인 단체들은 경제적 지원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교구에서 인건비를 빼고 2천만원을 지원 받는다. 2천만원으로 사무실 유지, 활동시 교통비 등이 된다. 만약에 1천만원으로 줄인다면 그에 맞게 줄여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돈 들어가는 별도 사업 없이 상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에는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몇 개 사업을 했었다.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교육이나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을 1년에 1천만원 받아서 했었는데, 사업 특성상 일이 거기에 매몰돼 버린다. 그 일을 하려고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인건비는 사업비 안에 포함할 수가 없고, 뒤치다꺼리는 너무 많은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우리의 본분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제는 안한다.

처음엔 저 혼자 일했다. 2008년에 혼자 그 전에 하던 사업만 유지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에 프랑스 신부님이 인사이동되어 오셨는데, 프랑스적 마인드로 운영하셨다. 일이 없으면 왜 사무실에 있느냐, 교구청 직원들과 똑같은 월급을 못준다고 하면 그들과 똑같은 시간만 일 하라고 하고 그랬다. 그때 시간여유가 생겨서 공부하러 다녔다. 인천 노동사목에도 가고 쫓아다니면서 배웠다.

이주노동자 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쉼터는 2009년에 시작했다. 처음에 창고를 고쳐서 만들었다. 지금 쓰는 쉼터는 예전 사무실이었는데 2014년부터 건물 자체를 쉼터로 쓰고 있다. 쉼터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다 온다. 다른 쉼터를 보면 관리하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 오는데, 우리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온다.

저희는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통번역 선생님이 두 분 있는데, 그 중 베트남 선생님이 쉼터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필리핀, 우즈벡, 태국도 많이 온다. 등록 여부는 묻지 않는다. 보통 쉼터를 운영하면 노동부에서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뒤통수까지 힘들어서 안 받기로 했다.

쉼터에 입소할 때는 동의서를 받는다. 쉼터 이용의 주목적은 사업장 변경 시 구직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규칙을 안 지키면 퇴소시킬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다. 보증금으로 5만원을 받는데 파손이나 문제가 없으면 되돌려 준다. 많은 친구들이 퇴소할 때 기부하기도 한다. 보통 2주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2~3달 지낼 때도 있었다. 개야도 친구(참고: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섬. 어업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섬을 탈출했음)들도 두 달 정도 있었다. 필요시 상담하고 더 머무를 수 있다. 개야도 친구들이 21명 와 있어서 그동안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못 받았다. 남녀 각 6명이 정원인데 개야도 친구들은 어쩔 수 없었다. 지난주에 그들이 모두 사업장 변경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21명이 두 달 동안 사용한 곳을 청소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더라.

쉼터에 있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은 없다. 대부분 쉬질 못했기 때문에 쉬고 싶어 한다. 개야도 친구들은 주구장창 잠만 자더라. 보통 이주노동자 상담하다 보면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이 많은데 개야도 친구들은 급하다고 말한 문제가 ‘배고파요’, ‘잠 좀 자고 싶어요’였다.

올해 국감에서 개야도 어업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가 이슈가 됐다.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게 된 계기는?

2014년, 군산 고용센터에서 개야도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상담을 한 경기도쪽 센터가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을 확인하러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러 들어가는데, 자기들만 들어갔다 나오면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공정성 담보가 안 되니까 지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이 가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저는 땡큐였다. 그게 2014년 여름이었다. 그렇게 개야도를 처음 만났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처음 만난 거다. 개야도를 가보니 그때 190명 정도가 외국인이었다. 쇼킹했다. 군산에서 배를 타면 가까운 섬인데, 큰 섬이 아니다. 한 시간이면 섬을 일주할 수 있다. 섬 주민이 500명 정도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말이 안 통했다. 오래 있었던 친구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어 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았고, 동티모르 노동자가 49명 정도 있었다. 동티모르가 가톨릭 국가다. 그 친구들이 내가 천주교 단체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군 생활을 섬에서 해서 어떤 상황인지 바로 파악이 되더라. 군대에서 너무 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했더니 종교활동 당연히 보장한다고 교회 가라고 하더라. 그 섬에도 성당이 없었다. 부모님 면회 왔을 때 말해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미사에 참여했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알겠더라. 바로 전주에 있는 신부님들에게 상황을 말하고 미사를 추진했다. 섬에 미사 드릴 공간이 없어서 개신교 목사님에게 부탁해 교회를 빌리고, 두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드리러 인도네시아 출신 신부님과 개야도에 들어갔다. 이슬람 친구들은 어디서든 메카를 향해 기도할 수 있지만 천주교는 성직자가 있어야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미사를 드리고 싶어 한 그 심정을 내가 잘 알고, 노동문제도 아니었으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기 좋았다. 두 달에 한 번씩 미사를 가니까 미사 끝나고 이 친구들이 자기 고민을 많이 이야기했다.

같이 갔던 신부님 국적은 인도네시아였다.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국가다. 한국에 있는 동티모르 신부님들 국적은 다 인도네시아다. 개야도에 처음 갔을 그 때는 다른 이주 관련 기관들은 잘 몰랐었고, 이주사목들만 알았다. 정보 공유할 사람들이 없었다. 지난해 이주인권대회하기 전까지 다른 단체들은 잘 몰랐다. 천주교 이주사목 내에는 농어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몰랐다. 진정을 넣어야 하나. 진정을 하게 되면 섬에서 출석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알다 보니까 지역방송사 기자와 연결됐는데 개야도 문제에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취재 의욕을 보였다. 명확하게 문제되는 지점을 보도해야 하니까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을 사업주가 보관하는 문제를 터트렸다. 이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같이 들어가서 취재하고 2015년 12월18일에 전주KBS에서 보도됐다.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 KBS 9시 뉴스에도 나갔다. 다음해 1월 노동부, 해경, 육경, 출입국 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나갔다. 2014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다시 문제가 됐다. 그때 21명 정도가 노동부 직권으로 사업장이 변경됐고, 7곳이 고용허가 사업장 취소당했다. 그리고 섬주민들에게 김호철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미사장소를 빌려주던 목사님도 주민들 때문에 항의하셔서 그 뒤로 미사도 중단됐다. 다행히 그때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배를 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다. 배를 못 탄다고. 매표서 가면 사업주에게 확인전화를 한 뒤 표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2017년에 인권위 광주사무소가 지역 순회 상담을 한다고 해서 같이 개야도를 가자고 해서 또 같이 들어갔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인도네시아 영사, 전라북도 도 인권센터, 지방

해양수산청에 다 얘기해서 여객선 발권하는데 제한이 없게 하라는 공문이 개야도에 몇 달간 붙어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모두 말짱 도루묵이었다.

노동부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된 친구들과 가끔 연락이 된다. 그 친구들 통해서 개야도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연락한다. 지금은 문제가 파악되면 고용센터에 얘기하고 고용센터가 사업주 확인한다.

재작년에 이주사목 전국 연수 때 신부님이 김사강 선생님이랑 저랑 어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발표하라고 해서 저는 개야도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때 김사강 선생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작년 이주인권대회 때 초대해 주셔서 솔리나 수녀님과 함께 참여해서 개야도 상황을 발표했던 것이다. 선원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그 때 처음 알았다. 선원네트워크가 E10(참고: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비자) 노동자 문제만 다루다가 이제는 E9 어업노동자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개야도부터 시작한 것이다. 16명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가 끝나가는 단계에 와있다. 이게 끝나면 검찰로 넘어간다.

매년 개야도를 쫓으면 안 되니까 2~3년 지나고 나면 인권위와 다른 단체와 함께 또 들어가자고 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익산쪽은 농업이 많다. 그렇지만 제조업 이주노동자 상담을 처음 시작했고 많이 했다. 제조업 문제는 상담하고 처리하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사건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간단하고 쉬운 상황이다. 임금체불, 폭행, 진정, 소송, 보험금 신청, 사업장 변경하면 된다. 혼자 있을 때 못했던 일들도 이제 직원도 있고,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단체도 생겨 사건을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그 다음에 농축산업, 여성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2~3년에 한 번씩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다. 그건 형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개야도를 알게 되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만 해도 1달에 2~3번 쉰다고 하고, 택시 타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업이주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더 많이 다녀야겠구나 생각한다.

혼자 힘들 때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보고 하지 않았나요?

지역 내에 그런 단체가 없다. 개야도 건도 다른 곳에 얘기해봐야 개야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섬도 많고, 다른 지역엔 또 자기 일들이 있을 텐데... 또 천주교가 관할 구역, 교구라는 한계가 있다. 함부로 다른 지역 활동을 허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이주단체, 연구소, 개별활동가, 변호사 단체랑 연대활동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연대활동은 지역의 한계, 차이들, 성격과 방향이 달라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번 선원네트워크는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성격이 다른데 서로 분명하게 역할분담이 된다. 실제 상담은 오세용 소장님이 하시고 법률지원은 변호사들, 연구소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노하우를 인정하면서 서로 잘 매치가 된다. 그동안 단순히 다른 곳은 정액 임금을 주는데 안주는 부분을 임금체불로 보고 해결해 왔다. 더 하려면 더 해야 하는데, 더 하기에 역량의 한계가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에 변호사들까지 함께 하면서 임금체불에 사업장 변경 요구, 개야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남아 있는 친구들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첫 연대 경험을 만족스럽게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방향,

다른 단체와 계획?

지방에 있으면 소식조차 못 듣는다. 내가 노력하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 천주교 기관들의 특성이 그런 것에 전문가가 없다. 군산에서 가까운 서천 홍원항이라고 있는데 선원들이 많다. 그러나 그곳은 관할교구가 대전교구다. 개야도 실태조사하면서 홍원항까지 같이 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14년째 하다보니까 사람인지라 싸이클이 있을 수 있고, 싸이클에 따라 제 마음가짐이나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일정치는 않았다. 제가 대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다. 인간관계니까. 이 친구들이 신뢰를 못 보여줄 때, 다 얘기를 안 하거나,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신뢰를 안보여주면 실망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서운해진다.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이 친구들은 독촉하고 보채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힘들었다.

현 시기 이주운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방향성이 같을 수 없다. 각 기관마다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의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옆에서 봤을 때 다름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로 힘이 안 뭉쳐지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주운동의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보면 작은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어업에 집중한다. 전라북도 전체 이주노동자들 중에 어업은 작은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집중을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신부님은 뭐라고 안 하셔서 다행이다.

활동의 목표는 뭔가요? 계획?

제 일자리 없어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저를 찾을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 이 일을 하겠다는 게 목표다. 작은 방향들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평생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

지역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서울과 지역을 묶을 수 있는,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선원 네트워크처럼 하면 될 거 같다. 개인적인 견해로 가장 이상적인 연대체가 선원네트워크라고 본다. 이 정도 규모라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 이주여성, 난민, 아동, 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각각의 분야와 대상도 나눠져 있고 각각의 역할도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주운동 중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이주노동희망센터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그동안 비어있던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활동가들을 백업하는 것.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케어, 비슷한 것.

분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이 사람들이 투신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번아웃 같은 것을 막아주는 것. 다른 활동가들도 얘기했을 것 같다. 우리는 종교(피정)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그런 분야일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관련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해외사업 아이디어가 있을까?

연대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혼자 생각해온 것이 있다. 천주교 외국인 부님이 한 것처럼, 신용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여기 이주노동자들 보면 돈을 모아서 가야 하는데, 막상 돌아가면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한국에서 흥청망청 썼거나, 모두 송금했는데 현지에서 가족들이 다 써버리거나. 이주 이후의 삶을 위해서 재무관리, 재테크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달에 다섯 식구가 30만원 갖고 먹고 살았지만, 한국에서 150만원씩 보내면 식구들이 또 거기에 맞춰 지출을 한다. 다시 귀환해서 30만원으로 살수가 없다.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조절하면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5

다닐로 알게라 대표 필리핀커뮤니티센터

‘필리핀 커뮤니티 센터’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사는 필리핀 이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목표로 2017년 설립됐다. 한국 내 필리핀 출신 이주민이 약 5만명으로 이 중 17%가 부울경 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센터는 실직, 질병, 인권 침해 등에 따른 보호는 물론 각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들에게 상담과 ‘쉼터’를 제공한다. 다닐로알게라 대표는 필리핀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한 활동 등을 인정받아 2020년 10월 제1회 이주노동자희망상을 수상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알고 있었나?

미셸 위원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필리핀 방문 때 미셸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미셸위 위원장이 있을 때는 이주노조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이주 관련 단체들을 보면 신기하다. 많은 한국 사람이 국적이 다른데 왜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지 궁금하다. 제 동생과 형

님이 두바이와 사우디에서 일하는데 그 곳에는 이런 단체들이 없다.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됐나?

1994년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 삼성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로 보냈다. 부산에 있는 회사였는데 1년 동안 일했다. 월급은 너무 작고,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도 없었다.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고, 둘째, 넷째 토요일은 일 없는 날이었는데 그것도 어기고 계속 일을 시켰다. 산업연수생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배우는 거는 하나도 없었다.

용접일을 했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미등록이 되고 다시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동생들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 돈을 벌려고 미등록으로 남았다. 미등록이 되고 좋은 것은 내 맘대로 일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만둘 수도 있었다. 안 좋은 것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 신분의 불안감이었다. 다행히 잡힐 뻔한 위기는 없었다.

한국에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셨다. 계기가 있었나?

1997년부터 한국에 있는 공동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 단체 활동을 계속 했다. 대학교 때 필리핀 전국 대학생 모임 때 시위도 하고 그랬었다. 한국에서 어느 날 같이 일을 하는 필리핀 형님이 사망했다. 이 일로 이주민과함께 정귀순 대표를 몇 번 만나게 됐다. 제 친구 중에 이주민과함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귀순 대표를 만나게 됐다. 산재사건은 잘 해결됐다. 이후로 이주민과함께 행사에 계속 나가면서 교류를 하다 보니, 필리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 공동체 만

들자고 주변에 의견을 이야기하고 1998년에 시작했다. 성당 안에 공동체로 부산지역 30여명이 모였다. 연수생과 미등록 같이 만들었다. 그런데 성당 안에 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든 공동체는 바탕가스 공동체였다. 필리핀 문화 중에 바탕가스 사람들은 쉽게 모인다. 민다나오 사람들과 느낌이 다르다. 바탕가스 공동체는 만든 지 16년 됐다. 종교적 문턱 없는 더 넓은 공동체로 SAPINACO(사피나코)다. 회원은 350명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도 한다. 장학프로그램 운영한지도 11년 정도 됐는데, 수혜자만 1150명 정도다. 잘 되고 있는 공동체다.

이후에 김해공동체도 만들고 총 7개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영어강사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로조건과 처우가 너무 차별적이었다. 필리핀 영어강사는 한 달에 150만원 받고, 미국 영어강사는 30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영어 강사들의 권익을 위해 영어강사 공동체도 만들었다.

필리핀 친구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권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활동했다. 교육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필리핀 가족 한국인 모임, 필리핀 다문화 가족 모임을 만들었다. 자녀들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필리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고, 따갈로그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주민과 함께’는 어떤 역할을?

이주민과 함께는 지지와 지원을 해줬다. 모임 장소나 자문 등이 필요하면 도움을 준다. 나서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활동기들이 중심을 잡고 활동하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더 많이 했다.

‘이주민과 함께’에서 상근도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당시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만 미등록이 아니라, 다른 나라 친구들도 미등록이 많았다. 합법체류 친구들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 비자를 받으면 활동을 계속 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자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부산시청에서 콜센터 만들어서 이주노동자 상담해주고 노동자를 도와주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일 하고 싶다고 거절했고, ‘이주민과함께’가 풀타임으로 일하자고 해 2009년부터 일했다.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8년간 연애하고 2007년에 결혼했다. 결혼한 지 13년 됐다. 부인은 국제선에서 일하는 선원이주노동자 도와주는 단체에서 일한다. 많은 선원이주노동자가 필리핀인이다.

‘이주민과함께’에서 활동하면서 활동비도 받고 생계는 안정됐다. 비영리단체라 일할 때보다 월급은 많이 줄어든다고 말했는데, 부인은 이해해줬다. ‘이주민과함께’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주로 맡았다. 영어와 따갈로그어로 노동법 교육을 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말 하는 것이다. 노동부 가거나 사장님들과 전화하면,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느낌이 전해진다. 한국사람보다 조금 낮춰 보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냥 싸운다. 하도 싸우다 보니까 부산의 노동부 직원들도 내 얼굴을 잘 안다. 내가 계속 싸우니까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출입국 사람들도 잘 알게 돼 출입국 프로그램으로 인권강의도 맡고 있다. 한국에 필리핀 사람들이 연예인이거나 가수로 공연을 많이 오는데, 내가 인권교육을 맡고 있다.

활동과정에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기뻐던 일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을 때다. 특히 밀린 월급을 받아냈을 때. 작년에 한 친구가 인천에서 일할 때 심장마비를 겪었다. 회사에서 산재를 안 해 준다고 해 그 친구는 그냥 필리핀으로 떠났다. 제가 필리핀 가서 그 친구를 만나, “이건 산재 신청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설득해, 내가 한국에 와서 그 친구를 위해 싸웠다. 서류 만들고 ‘이주민과 함께’ 노무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했다. 이후에 그 친구도 귀국해서 함께 싸웠고 결국엔 보상금을 받았다. 그동안 그 친구는 일을 못하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했었다.

지치거나 힘들지는 않은가? 근본적 해결에 대한 답답함은?

힘들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지만,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FCC (필리핀 커뮤니티 센터) 재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2017년 출범할 때 주위 분들이 도와줘서 돈을 모았다.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계속 쓰고 있다. 혼자 상근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가장 큰 문제다. 1년에 한번 필리핀 이주민 축제를 크게 하는데 그 행사로 1년 재정을 확보한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모두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어렵다.

쉼터는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따로 모아서 시작했다. 쉼터 운영은 내가 직접 한다. 쉼터 공간은 전세라,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남녀 방이 따로 있고 누구나 3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다. 규칙

이 없으면 계속 거주하려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만 머무를 수 있다. 많은 친구들이 쌀이나 반찬을 보내줘서 쉼터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FCC 앞으로 목표나 대표님의 목표는?

10년 후에는 FCC를 부산, 김해, 울산, 대구까지 지역별로 분화시키고 싶다. 지역마다 공동체들이 있긴 한데 교육하고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논의하고 있다. 더 전문화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키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 센터를 많이 만들면 이주민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다. 보호단체가 될 수 있다.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상담이 제일 많다. 이주상담은 계속 하는데, 한필리핀가족모임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 권리 증진 운동을 하면서 상담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공동체 대표 트레이닝이다. 상담을 배우고 싶어 한다.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다. 노동 관련 문제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들로도 연락이 많이 온다. 우울증이 있다거나 가족 문제 등 새벽에도 연락이 온다. 그럴 땐 마음이 많이 무겁다. 상담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이주 관련 NGO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NGO들과 집회나 행사, 교육 등을 하면서 함께 해봤다. 연대사

업들이 많은데, 한국사람들이 이주민들을 위해 싸우고 고생하는데, 이주민들이 너무 조금 밖에 없다. 데모할 때 한국사람만 많고 왜 이주민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 한국사람보다 이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NGO가 있어야 한다.

이주민들이 일 때문에 데모에 못나간다고 핑계를 대는데,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리핀 정부가 문제 있을 때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데, 데모를 통해 많이 바뀌었다. 이주민들이 조직되는 게 중요하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는 것도 싸워서 가능했다. 지금의 고용허가제 문제도 많은데, 변화가 느린 것은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힘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주운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는 이주민들이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벌써 이야기했다. 그 다음은 문화적인 문제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활동가들이 모여 '평등을 위한 이주민연대'(SEMIK) 활동을 했는데, 갈등이 있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사이가 매우 안 좋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난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사이가 안 좋다.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은?

선주민 중심의 이주 NGO들이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노조도 부산지역에 조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도 노동조합을 꿈꾸면서 미셸 위원장 있을 때 이주노조와 함께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했었는데 잘 안 됐다.

커뮤니티보다 노동조합이 만들기 더 어렵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싸우는데, 다른 문화와 다른 국적이 모이니까 어렵다.

이주관련 단체들에 원하는 활동이 있나?

이주 관련 단체는 이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다. 많은 문제들을 보니까, 항상 단체가 계획을 만들어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앞으로는 이주민 공동체는 키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 공동체의 아이디어,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주민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해외사업을 많이 한다. 이주단체들의 해외사업에 긍정적인가?

좋게 생각한다. 우리도 필리핀 장학사업을 하는데 한국단체와 같이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필리핀인을 고용한 한국 사장이 있었는데,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그 노동자 집에도 방문하고 필리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노동자 집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그 분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단체에 1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 필리핀 노동자가 혼자 벌어서 집으로 송금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월급을 올려줘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 후원을 통해 공동체가 발전하는 좋은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장학사업을 직접 한다. 처음에 장학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도 안 좋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필리핀에 있는 다른 재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보낸 후 사업

끝난 다음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우리도 후원자에게도 알리고 증빙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가서 장학금을 전달한다. 한국 단체들이 필리핀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로일로 비사야 쪽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이주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디어 있는가.

FCC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오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 한국에서 트레이닝 시켜서 필리핀으로 보내 한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고민했었다.



6

또뚜야 상담원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알고 있었나?

사실 몰랐다. 이인경 센터장이 나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알게 됐다.

한국에 온 시기는?

1998년 1월 10일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 처음에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 에어컨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부산은 2004년에 왔다. 수원에서 산업연수생으로 3년간 일했다. 3년 동안 같이 일한 친구가 프레스기계에 손목이 절단됐다. 이 사건으로 너무 겁이 났다. 산업연수생은 회사를 바꿀 수 없는 당시 상황이라서 그만뒀다. 산업연수생이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제도였는데, 실제로 배운 것은 없고 힘든 일 뿐이었다. 임금도 낮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 올 때 계획은?

형님이 먼저 한국에 왔었다. 아시다시피 1988년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정부를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해고를 당했다. 아버지도 해고당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형님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어머니가 형 사랑을 많이 하셨다. 그때 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용돈 달라는 말하기도 부끄럽고 형도 부러웠다. 학교 졸업해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다. 형님은 지금은 미얀마로 돌아갔다.

당시 사진이 저한테는 없는데, 얼마 전 친구가 미얀마에서 그 당시 사진을 보내줬다. 그때는 너무 순수했다. 어린 나이에 월급 받으면 집에 모두 보내고, 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다. 미래도 안보였고. 한국말도 전혀 모르고 한국에 왔다. 일이 힘드니까 한국말 배울 수 있는 상황도 안됐다. 그때는 한국어 가르쳐주는 단체도 없었다.

사업장을 이탈한 뒤 일자리는 바로 구했나?

여러 곳에 다녔다. 산업연수생은 회사를 바꿀 수 없어 문제가 생기지만, 이탈을 하고 난 뒤에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 그래도 노동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은 많았다.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떼인 경우도 있었다. 몇 달 지나도 월급 줄 수 없다고 하면 요청할 수도 없었다. 단속 위험 때문에 경찰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무서웠다. 단속 당할 뻔 했던 적도 있었다.

부산에 오게 된 계기?

2004년 미등록으로 5~6년 일했을 때쯤 부산에서 미등록으로 일하고

있던 형님에게 미안마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더니 형님이 회도 먹고, 여행도 할 겸 부산에 한번 놀러오라고 했다. 부산에 한 번도 안 와봤었다. 형님 만나러 부산에 왔다가 형님 회사 사장님이 일을 해보라고 권해서 한두 달 더 일해서 용돈을 만들어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형님이 미안마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일하게 됐다.

이주인권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형님 없이 혼자 그 회사에 다니다가, 부산역 앞에서 미안마 친구 2명을 만났다. 그 친구들이 한국어 가르쳐주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 전에는 이주민 관련 단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부천에 미안마 사람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멀어서 갈 기회가 없었다. 처음에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됐다.

처음 ‘이주민과함께’에 갔는데 계속 마음이 빠지게 됐다. 회사에서는 바로 반말을 들었다. 저도 다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한국은 부자 나라고,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미안마에서도 이런 상황이 흔하다. 부자들 집에 고용된 경비원은 고용주의 어린 자식들에게 반말을 듣는다.

그래도 내가 왜 이런 반말을 들어야 해 하는 생각이 있었다. 나도 미안마에서 대학생이었는데. 이라크 출신으로 나이가 50이 넘는 분이 있었는데 20살짜리도 그 아저씨에게 “자와트 빨리 해” 이런 식으로 반말을 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자 이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람은 외국인에게 반말로 해도 되는 문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처음으로 ‘또뚜야씨’라는 말을 들었다. 일요일마다 한국어 공부했다. 처음에는 인권이나 노동권에 대해서는 몰랐다. 글은 못 썼지만 한국말을 좀 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월급을 못 받거

나, 퇴직금을 못 받으면 제가 중간에서 통역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일에 빠져들었다. 사업주가 너무 심한 경우들이 있었고,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계속 도와줬다.

그 당시에는 미안마 노동자가 부산에 5~6명밖에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났고, 지금은 많아졌다.

일하면서 계속 활동을 한 건가?

일하면서 ‘이주민과함께’에서 운영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노동법 교육 등에 참여했다. 김그루 선생님이 많이 도와줬다. 한국 역사, 전태일 열사에 대해 알게 됐다.

제 친구 2명이 산업연수생에서 유학생 비자로 바꿨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는 문제로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합법적 비자가 없다 보니 만날 수가 없었다. 전화로는 도와줄 수 있는데 실제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내가 비자만 있으면 함께 만나서 싸우고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어디 가거나 참석하는 건 두렵지 않았다. 5·18에 광주에 매년 참석했다. 사업주들은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

원래 할 수 있는 일들을 비자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있다가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

미등록으로 8년간 있다가 2011년에 결혼하면서 안정적 비자를 갖게 됐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상근했다. 일할 때보다 월급은 더 적다. 경제적으로 걱정되지 않는 편이다. 부모님도 이제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형들도 있으니까, 저도 가족들도 많지 않아서 이 월급대로 깔끔하게 생활할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12년에 미안마공동체 쉼터를 시작했다. 일자리 없거나 아플 때 머물 수 있는 곳이다. 김해에 있는데 도서관도 같이 있다.

해결이 잘 안 될 때 열 받는 일이 많다. 우리 센터가 부산경남 센터라서 다른 지역은 출장을 가기 어렵다. 직접 가지 못할 때 힘들다. 특히 산재 문제는 해결이 안 되서 마음이 아프다.

프레스에 절단사고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처음 일했던 공장에서 사고 당했던 제 친구가 떠오른다. 기계가 자주 고장 났다. 친구 차례에서 물건을 꺼낼 때 프레스가 떨어졌는데 그 기계가 30초 지나야 다시 올라간다. 기술자를 불러서 다시 올려야 하는데 30초 동안 팔이 끼인 채 있었다. 친구를 병원에 보낸 뒤에 나한테 그 기계 업무를 하라고 했다. 난 이 기계 고장난 건데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하라고 했다.

나는 미등록을 할 생각도 없었고 3년 계약 지나면 미안마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때 계약기간 끝나기 몇 개월 남은 때였다. 그래서 공장장한테 다른 일 하고 싶다고 잔업이 많아도 상관없다고 부탁했는데도 안 됐다. 밤에 악몽을 꿴다. 사고 당한 친구는 오른팔은 절단되고 왼팔은 아예 쓸 수 없게 됐다.

일주일 동안 그 기계 일을 하면서 언제 이게 또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때 23살쯤이었는데 젊었으니까 부모님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공장에서 도망쳤다.

처음에 광주에 있는 친구 가구 공장에서 며칠 일했는데 미등록 생활이 힘들다는 걸 바로 알게 됐다. 프레스 회사는 직원이 100명쯤 되는 큰 공장이었다. 시스템이 좀 있었다. 그런데 다른 작은 공장에 갔더니 사장도 같이 일하는데, 눈치 봐야 하고, 밥 먹는 시간도 없었다. 일이 많으면 3시에나 밥을 먹었다. 아플 때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문

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어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럴 만한 곳이 없었다.

‘이주민과 함께’에 오기 전까지 너무 외로웠다. 미등록으로 일할 때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가방에 넣어 놨다.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집으로 송금했다. 10년 전인데도 200만원 월급을 받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원하는 것은 경찰 무서워할 필요 없이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아플 때 병원 가고, 술 마시고 고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자 안정되자마자 바로 상근활동을 했다. 일하자고 제안 왔을 때 바로 하겠다고 했다. 일하면서 엑셀과 노동법도 다 배웠다. 그래도 아직 보고서 쓰는 게 많이 힘들긴 하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구체적인 사건은 기억 안 나지만, 공무원들이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무조건 법, 법만 말할 때 답답하다. 이 전에도 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주장해서 그런 상황 찾아서 가면 그때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 한두 번 당하다 보니까 이건 개인적인 이 사람의 시선이다. 외국인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 벽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 미얀마 공무원들과 얘기하는 느낌이다. 차라리 미얀마는 돈만 주면 해결된다. 여기는 돈을 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미등록이 돼 버린 사람들도 많다. 사업주의 잘못 때문인데도 노동자 책임이라고 한다. 사업주가 처리해야 할 서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믿고 일했을 뿐인데 단속에 걸리게 된다. 노동자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자세히 법에 대해 모른다.

어떤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주노동자가 우선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매월 노동법 교육을 한다. 저는 미얀마 노동자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교육에 30~40명 정도 오는데 페이스북으로 7,000명 정도가 본다.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위험상황에 대해 알게 되니까 호응이 좋다.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계산도 잘 못한다. 한국에 와서 교육받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입국한지 얼마 안 된 노동자는 모른다.

2012년부터 이주민 기본권리 책을 만들었다. 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재밌건 재미없건 무조건 읽으라고 한다. 본인이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옆에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설명해줄 수 있지 않겠나.

책을 만들면서 아이디어 내서 사안별로 법 조항 번호를 넣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대화할 때도 아주 편하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먼저 법조항부터 이야기한다. 근로감독관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한다.

제가 미얀마 사람들에게 이 법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 관련 한국법이 미얀마보다 훨씬 좋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미얀마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어떤 개선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미얀마 최저임금이 한 시간 당 600원 정도 된다. 하루일당 4000원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치면 산재나 휴업급여도 없다. 이런 문제를 알고 미얀마로 돌아가면, 새롭게 볼 수 있다.

이주인권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목표?

제가 한 때는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이주노동자들 상황을 공감한다.

저도 사람이라, 가끔씩 힘들 때도 있다. 사실 이야기 제대로 안하고 숨기는 잘못된 친구들도 있다. 그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빨리 빨리 된다. 저는 지금 머리는 복잡하지만 몸은 편하게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월급은 저보다 많이 받지만 욕먹고, 힘들게 일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전화 하면 좋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

앞으로 계획은 저도 데니게라(다닐로알게라) 선생님처럼 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다. 독립적인 미얀마 센터. 미얀마 사람들이 상담하고, 센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센터 말이다. 데니게라 형님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어디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주민들 회비로 운영해 하니 인건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전반적인 한국사회 이주민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주노동 활동이 최초에는 강했다고 생각한다. 그 때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투쟁을 했다. 미누씨도 있었고. 참석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했었다. 그 투쟁들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었다. 지금은 그런 역할들이 없는 것 같다.

예전에는 부산에서 집회를 한 달에 한 번 씩 많이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집회가 거의 없다.

다양한 센터들이 있지만 이주노조가 생기고 합법화된 것은 너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문제라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본인 문제라고 생각해야 참여할 텐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전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부분 사장이나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사를 바꾸면 된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안 좋은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장만 변경하지 말고 싸우자고 제안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누군가가 와도 괜찮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퇴사하자고 제안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 공동체 활동의 영향도 크다. 처음에는 일이 힘들니까 남자들은 도박으로 취미생활을 삼는 경우도 많다. 젊은 노동자들이 놀기도 해야 하니까. 저는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들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협박도 좀 한다. 공동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이주 관련 단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주 관련 NGO들이 많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나의 단체가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다들 관심이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활동하는 것이다. 저는 부산에서만 활동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주민 관련 활동하는 단체들이 고맙다. 이주노동자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이주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주 관련 단체들이 해외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하는 해외사업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는 다른 단체들이 하는 사업은 잘 모르지만, ‘이주민과 함께’는 캄보디아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사업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한다.

저는 미안마나 동남아 국가들에게 노동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관련 사업. 미안마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했다.

미얀마는 민주화운동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활동가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믿음도 강하다. 아웅산 수치는 반정부활동 했을 때와 정부 책임자로 활동하는데 차이가 크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쉬움이 크다.

미얀마노총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단체다. 노동자편 노총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한국에서 일하고 미얀마로 돌아간 친구 중에 시의원이 된 친구가 있다. 미얀마에 있는 한국 회사가 명절에 10만원 주기로 하고 안줘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다.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달라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났다. 미얀마 상황이 그렇다. 회사 편에만 서면 노동자들만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미얀마는 지금 위험하기도 한데, 아직까지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존경한다. 그런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7



차민다 부위원장 성서공단노조(STU)

사진 출처: 2020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법률학교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언제 알았나?

작년(2019년)에 저한테 이주민 활동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알게 됐다. 이주 친구들, 노조 활동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들었다.

STU는 언제부터 활동했나?

2018년부터 성서공단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STU가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고맙고, 항상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다.

STU와 친하게 지내지는 오래됐다. 의정부에서 일하다가 2010년 즈음 대구 성서공단으로 오게 됐다. 그때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못 받는 것 관련해서 내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앞에 나섰다. 그때 성

서공단노조를 찾아갔다. 성서공단노조가 많은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통역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요일마다 통역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힘을 모았다.

한국은 언제 왔나?

2003년에 산업연수생 비자로 들어왔다. 연수생 끝나고 미등록으로 대구에 와서 일하다가 결혼해서 결혼비자를 얻게 됐다. 부인은 월급 줄고도 이 일 하는 것을 다 이해해주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단체 활동 경험이 없었다.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받았다.

STU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스리랑카 노동자 뿐 아니라 성서공단에 많은 베트남,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들 모두 상담한다. 한국말 잘 못하는 노동자들 오면 상담할 때 어렵다. 한국어 교실에 공부하러 오는 노동자들 중에서 한국말 잘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면 통역을 해주기도 한다. 대부분 영어는 잘하니까 영어로도 소통한다.

STU는 수요일 저녁 7시30분에 무료진료실을 운영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상근자들은 로테이션으로 쉬는데 난 월요일날 쉰다. 김용철 소장님은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

이주민 활동가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이주노동자가 회사에서 폭행당하거나, 체불임금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잘 알아야 회사와 싸우는데 정확한 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가장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처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노동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상담하러 오면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민 활동가로서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은 이주노동자 혼자서 힘들다. 국적이 달라도 서로 믿으면서 성서공단노조로 단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주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혼자선 힘이 없다. 그러나 단결하면 다르다. 노동조합은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주노동자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도움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당연히 노조가 도와주겠지 생각하는데, 노동조합 와서 많은 사람들과 노동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고,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민다 부위원장도 일하면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했나?

많이 있었다. 나도 미등록 시절을 다 경험했다. 이주노동자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일 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 그때는 월급도 작았고, 욕도 많이 들었다. ‘야 새끼야’가 나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약자라고 느꼈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었다.

성서공단노조 만나고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많이 힘이 난다. 노동조합 일을 시작하고 일하던 공장의 사장이 한국 관리자에게도 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다. 이주노동자에게 계속 욕하면 내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힘은 내가 조

합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등록으로 있을 때는 어떤 계획이었나?

같은 회사에서 작은 월급으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돌아갈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다. 일하면서 한국말 배우러 다녔었다. 당시 사장도 고마웠는데, 6시에 일 끝나면 7시까지 한국말 가르쳐주고 퇴근했었다.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그동안 배운 한국말이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명이 있는 건지, 세월이 바뀌었다.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활동 목표는?

우선 계획은 성서공단 노조만 많이 사랑하고 싶다. 성서공단노조에서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길이 있을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다. 성서공단노조는 나에게 학교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났고, 많은 사례도 알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상황을 알고,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가서 일할 기회가 생기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용철 소장님은 20년 동안 6천여건 상담을 했다고 한다. 어떤 상담을 보면 딱 알더라. 이 사례는 어떻게 해결할지 센서를 갖고 있다. 나도 그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일?

항상 하는 일이 기쁘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기분이 너무 좋다.

상근 시작하고 첫 번째 사건이 진해목재였다. 스리랑카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사건이다. 사업장 이동 안 해주고 스리랑카 가든지, 미등록이 되든지 선택하라고 협박하는 사업장이었다. 그 친구가 조합원이어서 바로 사장 만나자고 팩스를 보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친구들과 함께 그 회사 찾아가서 4일 동안 투쟁했다.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투쟁이 승리하면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 노조에 많이 가입했다.

필리핀 여성노동자 3명이 4천만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 당하고 있는 사건도 있었다. 새벽 3시부터 오후까지 일하는데 사장은 근로시간 모른다고만 했다. 그 사건도 투쟁해서 승리했다.

성서공단 안에 있는 작은 악질 사업장이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와 미등록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었다. 사장은 월급 안 주고 내보내려고 했다. 그때 투쟁도 당사자들과 함께 했다. 당사자들이 억울하니까 마이크 잡고 영어로 발언했다. 그래서 사장과 협상을 하게 됐는데, 사장이 결국 사과했다. 우리는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장 문 닫게 하는 게 목표라고,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따지니까 필리핀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사과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줬다. 그 분들이 나중에 나에게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기분이 정말 좋았다. 지금도 그 공장 소식을 듣는데, 사장이 욕하는 것도 줄었다고 하더라.

한 명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감동적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투쟁한다. 한국 조합원이 1명 있고 나머지 노동자가

모두 필리핀 출신인 공장이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재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관리자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었다. 한국 조합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투쟁했다. 일 끝나면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하는 공장이었다. 상여금이 관리자는 20만원, 한국인은 10만원, 이주노동자는 없었다. 그 투쟁을 3개월 동안 했는데, 상여금을 한국사람과 이주노동자 동일하게 받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약연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케이스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다. 성서공단노조가 함께 하니까 힘이 커진 것 같다.

한국말을 다른 단체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다른 NGO와 노조가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NGO들은 다른 곳에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은 결국 회사 사장들 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나 사장들의 돈을 안 받는다. 우리는 출입국 관리소나 노동부와 싸워야 하는데, NGO에게 같이 하자고 하면 그런 NGO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안 받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사장들의 돈은 다 이주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배우는 상황이라, 이 외에 다른 차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대개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이주 활동하는 분들이나 노동운동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되고, 좋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고 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운동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더 많은 MTU의 우다야 동지 같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 활동가들이 몇 명밖에 없다. 1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는데 활동가가 너무 없다.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알게 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힘든 일은 너무 많다. 그래도 얻은 게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운동 하는 게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 상담하다 보면 전화를 많이 받는다. 대부분 화가 나서 전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화 받기 힘들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전화한 사람들인데, 대답만 해주고 끊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우선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에서 전화가 온다. 특히 스리랑카 친구들이 전화를 하는데, 제 이름은 잘 알지만 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먼 곳에서 전화 온 친구들은 도와주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을 물어보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어야 할 거다.

새벽 2시 넘어서 김천까지 갔다 온 적도 있었다. 그 친구가 손가락을 다쳐서 산재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그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와 내가 통화하고 직접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때는 직장 다닐 때라서 새벽 4시 반에 돌아와서 출근했었다. (차량기름값도 들었지만) 내 열정으로 할 수 있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내가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도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안가고 그 친구가 잘못됐으면 어떠했겠나.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산재사고 사진을 보는 일이다. 손가락 잘라진 사진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지금도 손가락 다쳐서 진행하고 있는 산재사건이 있는데, 회사는 겨우 손가락 조금 잘린 것뿐이라고 말했다. 너무 화가 나서 대응했었다.

스리랑카에서 국제단체 지원받아서 모범적으로 진행된 사업 사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스리랑카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게 있는가.

사례는 잘 모른다.

이주노동자 어업비자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사업장 이동도 힘들고, 월급도 적고, 폭행도 더 많다. 인도네시아가 바다가 많지만, 모두 바닷가에 사는 건 아니다. 스리랑카에서 어업비자로 오는 노동자들을 봐도, 스리랑카에서 배도 한번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다. 한국에 오고 싶어서 어업비자라도 오는 것인데 그럴 경우 너무 힘들다. 배타고 나가면 한 달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울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죽으러 오는 거 아니지 않나?

그러나 어업비자로 온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어업비자로 와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어업비자와 관련해 이주노동자들 인터뷰도 해보고,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스리랑카도 섬나라다. 바다 근처에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 젊은 사람들을 어업비자로 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바다 근처가 아닌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업에 대한 정보가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친구가 한국에 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어업노동자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기계는 한국에 와서 설명 듣고 배울 수 있지만, 어업은 너무 힘들고 외롭다. 겨울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견디기 더 힘들다. 이견 고용허가제 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만드는 것이다.

스리랑카 노동조합 상황은?

스리랑카는 아직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그 시대처럼 일하고 있다. 스리랑카에도 근로기준법 같은 게 있겠지만 다들 모른다. 한국은 자유가 있지만, 스리랑카에서 투쟁하면 경찰에 무조건 잡혀간다. 쉽지 않다. 업종별로 노동조합이 있지만, 투쟁은 따로따로 한다. 큰 문제가 생겨도 단결 없이 따로 한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결해서 대통령도 내보낼 수 있는데, 스리랑카는 그런 시스템을 안 갖고 있다.



8

원옥금 대표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알고 있었나?

몇 년 전에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 관련해 집회하면서 알게 됐다.

이주여성 상담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상담은 어떻게 시작했나?

2007년 이주여성 긴급전화에서 전화상담을 시작했다. 하다 보니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다. 지식이 없어서 상담을 못했다. 남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잘못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컸다. 그런데 전화상담은 그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해야만 내가 상황을 알 수 있다. 전화연락이 끊기면 정보도 끊긴다. 상담하는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해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제대로 도와주려면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방송통신대에서 법학과를 다니고, 건국대 행정대학원 법학과

다니면서 구리엑소더스에 일주일에 4일씩 다니며 일했다. 그때까지도 이주여성 관련 업무만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기가 생겼다. 인천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200여명이 파업을 벌였는데 10여명이 주동자로 잡혀갔다(박스 참고). 천주교 구리이주민지원센터 박진균씨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연락이 온 것이다. 파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감히 파업을 한다는 궤뺨죄로 혼내주겠다는 생각으로 잡아간 것 같았다. 그 당시 22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도와줬는데, 구치소 가서 접견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감명을 받았다.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희생하는 활동가들 모습, 또 하나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인권 수준. 어떤 상황이었냐면 출입국 사무소 쳐들어가서 소장에게 나쁜 새끼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참고]

이 사건은 2011년 인천 태흥건설산업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180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야간조와 주간조로 나뉘어 물막이 구조물 제작의 철근 작업, 콘크리트 타설, 미장 작업 등 건설과 관련된 노동에서도 그 업무의 강도가 매우 중한 작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한 달에 24만원에 달하는 식대를 공제하고, 식사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하여 두 차례의 걸친 자발적 파업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인의 베트남노동자를 주동자로 지목하였고, 인천지검은 이들 노동자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던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들 10인의 노동자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하였고, 2012년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죄와 벌금형으로 그 형을 또다시 대폭 경감한 판결을 내렸다.

[출처] 이주노동자 노동권 탄압에 제동을 건 인천 태흥건설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2012년 10월 12일).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그 뒤로 노동자 상담을 많이 하게 됐다. 2014년에 베트남공동체를 만들었고, 임기 2번 동안 대표로 활동했다. 임기 끝나고 2017년 7월부터 베트남 교민회장을 했다. 베트남 교민회장 일은 너무 힘들어서 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못했다. 교민회는 외교부 산하 친정부단체다.

이주여성 전화상담할 때 공무원 만나 해결할 일은 없었나?

그건 핫라인이라, 피해자와 상담만 했다. 우리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다. 그런데 인천 베트남 노동자 사건을 보고 이주노동자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 이주노동자가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에 고용허가제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 제가 노동자 돕겠다고 나서니까 계속 연락이 왔다. 상담을 하면서 배워나갔지, 어디에서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다.

법학과를 갔어도 학교에서 행정법만 배웠지, 외국인 관련 출입국관리법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모르면 물어보고 알아보면서 조금씩 알게 됐다. 재밌는 건 노동자들은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찾아온다.

인천 사건에 제가 통역을 맡아서 다니다 보니, 구리엑소터스에서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어디 묶여서 일할 수가 없어서 그곳은 그만두고 혼자 일하게 됐다.

그 뒤로 개인활동을 하게 된 건가?

그 때부터 이주단체들과 연계가 됐다. 소속이 없었지만 계속 집회를 다녔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과 박진균 구리이주민 지원센터 사무국장과 연락했었다. 이주민 집회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페이스북에 집회 같이 가자고 올려서 베트남 친구들과 같이 갔다.

또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다문화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인커뮤니티 리더양성교육을 받았다. 그때 어떤 리더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배웠다.

그때쯤 한국 사회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베트남 사람들을 못 만났다.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종교단체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인이 많아졌으니 우리 스스로 돕자는 의식이 생겨 공동체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20여회 회의를 했다.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지 의견을 모아 민주적인 공동체로 정관을 만들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2014년 3월14일 창립식을 했다.

베트남공동체를 하면서 제가 힐링 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동안 베트남 사람을 만나지 못해 정서적으로 눌러 있던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었다. 베트남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고 엄청 많은 활동을 하게 됐다. 민주노총 집회할 때마다 참석했고, 문화축제도 했다.

개인으로 활동했는데, 활동비는 어떻게 마련했나?

법원 통역일을 계속 했다. 그래서 생활비는 충당했다.

2017년에 베트남교민회 회장이 됐는데 베트남 공동체와 베트남 교민회 활동을 같이 하기 힘들었다. 서로 잘 활동하면 같이 양쪽을 이끌어 갈 텐데, 활동성격이 안 맞았다. 교민회는 외교부 산하 기관이라,

모든 결정도 외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공동체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대사관을 싫어한다. 같이 활동하기 어려워서 공동체 대표 직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베트남 교민회가 베트남 문화 축제를 하는데, 후원 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 광화문광장 무료 섭외하는 것도 섭외해야 하고, 한번 행사 지출에 1억원 정도 든다. 1만 5천명 정도 참석하는데, 이주민 행사 중에 이런 규모는 없을 것이다. 정말 힘들었다.

처음에는 이 사무실이 베트남어 통번역센터였다. 사건 말으면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법원도 갔다. 지방도 갔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 돕는 일만 하다가, 2017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찾아와서 자녀들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베트남어 교실 ‘한베짜짜꿍’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 통번역센터와 ‘한베짜짜꿍’을 합쳐서 이주민센터 동행을 만들었다. 작년까지 여기서 베트남어 교실 12개를 운영했다. 작년에는 KT 후원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후원도 끊겼고, 코로나 때문에 교실을 운영하지 못했다.

가족들 지원은 있었나?

남편이 없었으면 활동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글쓰는 게 힘들다. 서울시 명예시장 됐을 때 축사도 남편이 써줬다. 창피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됐다. 그게 베트남어 교실을 열심히 운영하는 이유다.

교민회 대표를 여성이 맡는 게 흔하지 않죠?

그렇다. 대부분 유학생 출신이 한다. 이주민 사회에서 사회적 위계가

있다. 먼저 유학생과 지식인, 그 다음 이주여성, 마지막으로 노동자다. 저는 위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인맥이 중요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문화 축제할 때 장소를 빌리는 것도 큰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광화문광장 못 빌린다. 인맥이 없으면 돈 걸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하기 싫다. 맨날 손 내밀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싸우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

베트남교민회 대표로서 정치활동 하는 기사부터 접했는데, 최근에는 노동사건과 관련한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변화가 있는 건가?

나는 처음부터 원래 노동쪽이었다. 처음에는 집회 많이 다녔다. 그런데 집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다. 첫째는 이주민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또 개선되는 게 거의 없다. 맨날 찾아다녀도 눈에 띄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동반해서 같이 가기가 어렵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할 여건이 안 된다. 일단 장소가 서울이라 멀다. 또 그들은 집회 참석하는 거 무서워한다. 법적으로 외국인은 정치활동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 한국 오기 전부터 교육받는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과 집회에 참여하는 것 보다 정책 제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외국인대표자회의에 참여하면서 5년 동안 정책제안을 했다. 임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서울시 명예시장이 됐다. 엄청 많은 제안을 했다. 장단점이 있지만 정책제안 활동을 하면서 많이 성장했다. 저는 집회 참석하는 것과 정책제안 활동이 방식만 다르지, 방향은 똑같은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한 성과는 있었나?

많다. 예를 들어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에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첫 해 제안했고, 현재 적용중이다. 이중언어 교육사업이나 서울이주여성정보 관련 앱도 정책제안을 한 결과다.

제가 제안한 것은 더 많은데,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많다. 특히 서울시는 지방정부니까 한계가 있다. 사업장 변경 문제가 심각한데, 노동자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노동자들이 잘 모른다. 상담센터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16개 언어로 사업장변경 사유를 번역해서 비치하도록 제안했는데,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 관할이다. 이자스민씨가 제안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주노동자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달라는 제안도 제가 했었다. 이것도 노동부 사안이라, 행정편의상 힘들다고 답변이 왔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달라지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안할 권한이 있으면 문제해결에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다. 그게 아쉽다.

혼자 상근하면서 활동해왔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이다. 이 사무실이 월세 88만원이다. 처음엔 77만원이었는데 2년 지나서 올랐다. 보통 운영비를 만들려면 정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정신이 팔려야 한다. 사업을 따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노동자 돕는 일이고, 그 일에 집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힘들게 끌려가면서 왜 남의 사업을 해야 하는가.

처음엔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회비로 2만원씩 걷었다. 회원이 많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 미안마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

안마인들은 특별한 도움을 안 받아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1만원씩 낸다고 하던데, 베트남인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회비를 잘 내지 않는다.

베트남어 교실에 참여하는 엄마들한테도 한 달 1만원씩 회비를 받는다. 그런데 올해 베트남어교실을 운영하지 못해 위기다. 그래서 베트남노동자들 회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는데, 20명 정도가 내고 있다. 저는 최저임금도 못 받지만,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상관없다. 다른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체불임금 해결해주거나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더라. 저는 그렇게 안한다. 모든 상담은 무료다.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8만명 정도, 유학생이 4만명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인들 대상으로 할 일들이 생기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행정사 사무실에 베트남인들이 통역으로 많이 취직해서 일한다. 이들이 베트남인들 대상으로 마케팅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지금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이 계속 전화연락을 한다. 10년 동안 미등록으로 일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지 않아서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는데, 잘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빨리 합의하기 위해 체불임금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노동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베트남인 통역인(유학생)이 인터넷에 홍보한 것을 보고 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것 같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한테 그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변호사는 화를 내면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아마 내가 자기 일을 뺏어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변호사들은 체불임금 받아주

는 것에 20프로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 지금 그 친구 체불임금이 3천만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이 온다. 전국에서 연락이 오는데 제가 상담을 해주기도 하지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는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자주 이용한다. 진도에서 일하는 어업이주노동자가 연락이 왔을 때도 목포 해양수산청에 바로 민원을 넣었다. 1년 동안 해결 안 된 체불임금건이 국민신문고에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해결됐다. 아마 전국적으로 내가 국민신문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 것이다.

국민신문고는 진행 과정이나 처리 결과도 확인이 가능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 내가 평가도 할 수 있다. 지난번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증언대회’에서 발표했던 안다이씨 사건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처리 결과에 대해 내가 계속 불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임시로 사업장은 변경했지만, 기존사업장은 변화가 없다. 불만으로 평가했더니 추가 처리 상황에 대해 계속 메일이 온다. 그래도 계속 불만이라고 평가했더니 전화도 왔었다. 정부는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국민신문고는 외국인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설득력 있게 잘 써야 한다. 주무관청도 잘 써야 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쪽에서 3주 동안 갇혀 있던 베트남 노동자 문제도 국민신문고에 올릴 때 담당부처를 법무부로 정확하게 지정했다. 그래서 결국 인천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다. 어려운 문제들은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잘 해결될 때가 많았다.

다른 이주인권단체와 연대활동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연대활동을 하나?

정영섭 국장과 많이 연락하고, 많은 조언을 받는다. 얼마 전에 베트남 노동자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어 했는데 거부당했다. 회사는 이 친구를 2개월 정직시키고 기숙사 바깥에도 못나가게 했다. 일하는 곳이 전북이라서 직접 내려가지 못하고 지역 단체를 소개시켜 줬었는데, 아무 도움을 못 받은 채 한 달 만에 우리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더라.

사업장 변경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된다.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 할 때 결국 우리 사무실을 찾아온다. 그래서 우선 전북지노위에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두드러기가 어떻게 업무와 연관 있는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 친구가 치료받던 병원 의사와 통화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병이라고 말하더라. 업무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의사가 말하니까 막막했다. 그런데 2개월 정직을 당하고 있으니까 두드러기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영섭씨한테 연락했더니, 민주노총에서 일했던 의사를 연결시켜 줬다. 그 분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작업환경의학과가 있다고 소개시켜줬다. 그래서 그 병원 가서 두드러기 증상이 직업과 연계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의무기록지와 진단서를 갖고 고용센터를 갔는데, 그래도 사업장변경이 승인되지 않았다. 고용센터는 사업주 말만 들었다. 그래서 또 내가 국민신문고에 사건을 올렸더니 바로 사업장 변경이 됐다. 이렇게 외부에서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활동하면서 힘든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다. 사업주와 싸울 때도 엄청난 기싸움이 있다.

현재 활동의 목표가 있는가?

한 20년 후에는 지구인의정류장이 하는 것처럼 쉼터도 운영하고 싶다.

현재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센터 밖에 없다.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야 통번역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보장할 수 있다. 보통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이 여성들이 상담 업무도 다 맡아서 한다. 그래서 역할이 중요하다. 이주민 상담사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인 상담사가 아무리 친근감 있게 해도 마음 속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통번역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통역인으로만 머무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 노동자들이 상황을 더 잘 안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니까 몇 년 경력 쌓아서 다른 곳으로 많이 가는데, 그 손해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손해다.

현 시점에서 이주운동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열악하다. 제가 아는 이주활동가들이 계속 그만두고 있다. 더 장기적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이주민센터들은 인력이 2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사업비를 후원받아도 사업진행에만 돈을 쓸 수 있고,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다.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 종교단체가 위탁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활동성격이 ‘복지’지, ‘운동’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쉬운 문제만 해결 할 수 있지, 사업장 변경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잘 안 된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변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참을 수 없으면 결국 미등록이 된다. 지금 어려운 상담사례가 2건이 있는데 그 노동자가 얼마나 절박한지, 진술서를 12페이지나 썼다. 3개월 넘게 혼자 회사와 싸우고 있어서 지역 센터 연락처를 줬는데, 상담했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도 사업장변경이 안되니까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다른 회사로 가 버리면 되는데 사업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임금체불을 당하면서도 계속 일해야 한다. 이주노동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장 변경 문제다. 이주여성은 가정폭력 문제, 이주배경 아이들은 취업 문제, 다문화 아이들은 모국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10년 넘게 싸워 왔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좀 막막하다. 최근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다. 사업장 변경 문제는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열쇠다. 다른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 한국사회 힘이 있는 사람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열악하다. 계속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힘을 모아야 하는 것 같다. 사업장 변경 문제는 전체 이주노동자에 다 해당되는 문제다. 저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제일 큰 희망이에요.

이주 단체들의 할 수 있는 해외사업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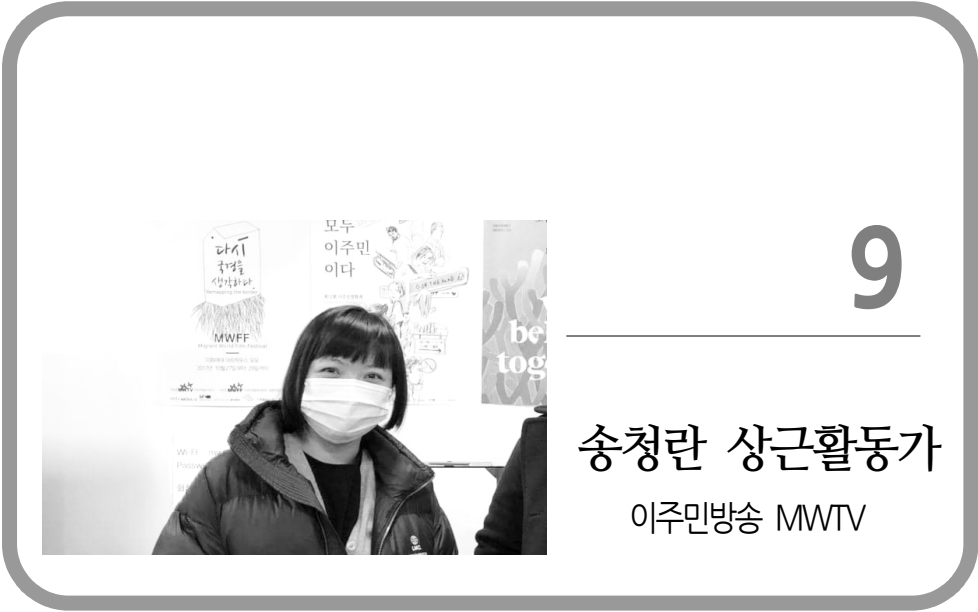
상담할 때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대부분 없다고 한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안준다. 이주노동자들은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에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기 원하는지 말해야 하는데 모

른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어떤 성격인지, 자신이 일할 지역이 어떤 곳인지, 고용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등의 역할도 모른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본국에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성에 있는 공장에 고용됐다면, 화성에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배우고, 친정부 단체나 친노동자 단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필수적인 정보를 알고, 어떻게 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에서 한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국하기 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다. 그때 한국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정부에서 하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 25조. 어떤 경우에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지 배우고, 한국에서 어떤 단체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어떻게 알았나?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등을 취재하면서 참여단체 명단을 보고 알았다. 자세히는 모른다. 이주단체에서 일한게 이주민방송이 처음이고, 2년 정도 일했다.

이주민방송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영상을 전공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다. 다큐제작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오게 됐다. 서울시 청년 뉴딜정책으로 이주민방송에 들어왔다. 계약기간은 봄에 시작해서 연말까지다. 보통 8개월에서 9개월 일한다. 총 24개월 한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아마 이주민방송에서 지금 내가 월급을 제일 많이 받고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건가?

그렇다. 중국 동포다. 고등학교까지 중국에서 다녔다. 가족 사정상 조선족 학교도 다니고 한족 학교도 다녔다. 고교 졸업 후 18살 때 혼자 한국에 왔다. 어학원 다니고 4년제 대학교 졸업한 뒤, 한국 여러 회사에 다녔다. 영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주민방송으로 오게 됐다. 지금은 부모님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고 있다.

언어 문제는 전혀 없었겠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래도 다른 게 있었다. 동포다 보니까 억양이 다르다. 동포도 출신지역 마다 억양이 다르다. 연변쪽은 조선족이 많아서 중국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다. 저는 흑룡강성쪽이라 동포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언어가 달랐다.

한국에 오려고 했던 이유는?

좀 더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살던 나라라고 하니까, 같은 말을 쓴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오고 싶었다.

이주민방송 오기 전까지 이 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았던 건데, 다른 이주 관련 NGO를 경험한 적은?

없다. 봉사활동 같은 건 좋아하는데, 이런 NGO 단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인 것 같다. 개인적 감정들이 중요했다. 이주 관련 이슈도 많지만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늦게 온 것 같다.

이주민 방송은 이주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영상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으니 갈등은 없었나?

첫해는 그런 갈등이 가장 컸고, 2년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고민들이 많다. 저는 여기에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왔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 그런 게 궁금했다. 그런데 계속 케이스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 큰 일이 터지면 기자회견 현장을 가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도 있는데, 이주민방송은 운동적 성향으로 이어져 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에 제가 좀 약하지 않은가 싶다. 노동자 만나는 일들은 좋다.

영상 만드는 일, 촬영하는 일은 좋다. 그런데 고민이 많다.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 미디어이니까, 뉴스에 가까운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내가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된다. 사무국에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다.

만들고 싶은 영상의 방향은?

작년에도 계획했던 게 있었다. 우리는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기사로 접할 때 돈을 얼마 받고 힘들더라는 식으로 몇 분 이내로 본다. 저는 그 개인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루 12시간 일하는 전체를 담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현장 일, 사무국 일도 많고, 그걸 동

의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이런 게 충돌지점이다. 또 내 스스로 나에게 주는 부담도 있다. 나는 이런 성향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주민방송에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많다.

이주민으로서 이주단체에서 일하는 게 차이가 있나? 일반 직장에서 일하던 것과 차이가 있었나?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는 직원이다 보니까 국적 따지지 않고 오더 내리면 그 일을 하면 됐다. 이주민방송은 한국 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 도와주려고 한다. 서로 상처 받을까봐 말을 심하게 못한다. 중간 선배가 없어서 뭘 만들 때 결정하기 힘들다. 영상 스타일, 포스터 등 뭘 할 때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 스타일로 만들지, 한국 사람들 성향에 맞출지 고민이 된다. 외국 사람들은 폰트에 대한 미적 감각이 다르다. 폰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잘 못 느낀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는 힘들다. 바로 위로 사무국장이고, 그 위로 대표님이다.

전 개인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 서로 마음을 많이 열고 있어서 좀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활동을 하면서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저는 동포비자다. 동포비자는 혜택이 좀 있다. 그런데 지구인의 정류장에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다.

사안이나 사건 보다 비자 제한, 비자로 인해 불편한 것들에 정말 놀랐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가면 노동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대

부분 시급한 문제를 안고 찾아오더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

사람이 우선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계속할 생각인가?

뭔가 이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영상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다. 다큐나 극영화, 단편영화로. 동포 이야기 일 수도 있고, 이주노동자일 수도 있는데, 아직 주인공(주제)을 못 찾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 직접적으로 차별을 겪은 적은 있나?

딱히 차별 당했다는 기억은 없다.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와서 11년째 살고 있다. 한국 나이로 32살이다. 처음 일을 한 곳은 작은 영화사였는데, 정규직이었다. 그곳도 월급을 많이 주진 않았지만, 물욕이 별로 없어서 그 회사도 괜찮았다.

앞으로 이주민방송에서 계속 일할 계획은 없는 건가?

대외적으로 그냥 놀고 싶다고 말하고 있긴 하다. 너무 오랫동안 중국에 안 가봐서 중국에 한번 가고 싶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중국이 매우 까다로운데, 한국에 오래 살아서 지금 중국의 이야기가 궁

금하다. 할아버지 세대는 아직 중국 시골에 살고 계신다. 부모님도 이제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 계속 살 계획은 있다.

이주민방송에서 취재하면서 다른 단체들을 많이 봤을 것 같다. 다른 단체들 활동에 대한 느낌은?

지구인의 정류장과 가깝게 지내서 그런지, 그 공간이 너무 좋다. 김이찬 선생님이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다. 심각한 사건으로 상담전화의 계속 오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지구인의정류장에 온 사람들이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다. ‘온도’ 있는 공간인거 같다.

이주 관련 NGO 활동에서 가장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어려운 질문이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선주민과 이주민으로 나눠어져 있지 않나. 선주민들이 하는 일이 많다. 뒤에서 도와주면서 더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그런데 진짜 목마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것 같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필요를 못 느껴서 이주운동에 뛰어들지 않는다. 어떤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다.

그런 문제에 조금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우리도 급한 면이 있다. 젊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작게라도 주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선주민들이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려고 고민한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다. 앞서서 이 문제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최근 이주민 건강보험 문제가 심각하다 들었다. 중국 동포들이 특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가족도 1인당 12만원 정도씩 내고 있다. 3인 가족이 40만원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근데 동포들은 찍히는 거 싫어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사기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 거 같다. 단기로 한국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견 때문에 건강보험료 잘 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주민방송에서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중국 단어 중에 ‘중용’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성향이다.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태도로 드러낼 수 있기 전에 먼저 말하지 않는다. 저는 훨씬 감성적인 영상작업을 하고 싶다. (액트잇이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액트잇 결성할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함께 하진 않았다. 활동가들이 하는 작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처럼 보인다.

그동안 만든 영상 중에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가?

지난 6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미나라는 친구를 만났다. 체불임금 상황을 겪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기 직전 상황을 짧은 영상으로 담았는데 만족스러웠다. 미나가 말했던 “한국정부는 틀렸어요”가 제목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직 공개 전인데, 서울 마을미디어 프로젝트로 ‘포란희 프로젝트’다. 이주민 포, 이주민 방송 한지희 사무국장, 내 이름을 따서 ‘포란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각각 공간, 계단, 도시를 주제

로 영상을 만들었다. 각각의 주제에 연출을 맡고 서로 촬영을 도와주면서 만들었다. 내가 만든 ‘도시’를 주제로 한 영상은 송청란이라는 이주민이 서울에서 살면서 만나는 영상일기 같은 것이다.

이주민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운동권적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술이고, 운동이며,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송청란씨는 여성이고 이주민이기 때문에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전통’이라는 무게가 더 큰 것 같다.

중국 출신 친구들은 주변에 있나?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거의 다 돌아갔다. 이제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국제단체들이 중국에서 하는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중국은 해외단체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나라다. 대부분 민간 조직들이 활동하는데, 시골 지역에서 무료점심 급식 사업이 괜찮은 것 같다. 부모들이 모두 외지에 몇 년씩 일하러 가고 조부모들과 사는 아이들이 많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의 영양개선에 힘쓰는 단체들이 있다.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고, 야채는 얼마, 식단은 어떻게 되는지 매일 매일 올리는 단체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 말

해 달라.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것 같다. 버틴다는 말은 너무 힘들다. 버티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갔으면 좋겠다. 활동비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건 버틴다고 봐야 한다. 사업을 따기 위한 고민만 하다 보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10

왕지연 회장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알고 있었나?

몰랐다.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알았다.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한국이주여성연합회를 2009년 설립하고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동아리처럼 활동했다. 2012년 여가부에 정식 등록하고 정부 공모사업도 시작했다. 처음에 6개국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축이 되었고, 지금은 참여자들의 출신국이 22개 국가까지 확대됐다.

2009년 다문화 이슈가 붐이 일었고, 저도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하면서 다문화 엄마들을 만나게 됐다. 그 엄마들과 연합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이 최초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었다. 지금은 다문화 강사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처음에 같이 했던 엄마들이 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출신이었는데, 우리들이 서로 자녀들에게 출신국 문화를 이야기해보자고 시작했다. 애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과 그림도 준비하고, 전통음식도 만들어서 4개 국가 30분씩 진행하고 그랬다.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

초창기 모임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엄마들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2010년부터 중국어, 영어 강사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도 되는 사업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보다 강사 일을 하는 엄마를 아이들이 더 자랑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강사를 양성하니까 큰 보람이 있었다.

다른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나는 다른 엄마의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품앗이도 했다. 엄마들이 활동을 하니깐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지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러던 중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그 당시 지자체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문제의식이 많았다. 다문화 자신감 향상 교육이 있었는데, 매우 부실했다. 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 우리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 많았다.

또 봉사활동도 우리의 계획이었다. 연합회 모토가 평등, 자립, 봉사다. 평등을 추구하고 자립을 해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축제에 찾아가서 출신국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차도 없이 엄청 많은 짐들을 같이 들고 지하철 타고 찾아다녔다. 그렇게 활동하니깐 지역축제를 하는 곳에서 섭외문의가 계속 왔다. 그래서 그 부문은 별도 단체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

체험, 공연 등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1년에 1억 넘게 매출이 나온다. 그 수익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자녀들도 어렸을 텐데 어떻게 활동했나?

아이들도 다 데리고 다녔다.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 문화적응, 서로 봉사하면서 인식 개선, 그래야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활동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한 것이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사실 제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여인터)를 초창기부터 알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거리상으로 멀고 주제가 인권이라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인권은 직접적인 차별과 연결되는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고, 내 주변 상황들이 인권문제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유대관계를 갖고 문제 있을 때 연계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2019년 6월에 익산시장이 지자체 행사에서 ‘잡종우세’라는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다.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 단체 회원들이 엄청 분노했다. 나도 너무 화가 났다.

이여인터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원들도 대응을 하자고 의견을 냈다. 처음에 참가하겠다는 회원이 많아서 전세버스를 5대 예약했는데, 당일 휴가를 못 내고, 아이 맡길 곳을 못 찾은 회원들이 빠져서 결국 대절버스 1대만 익산으로 내려갔었다.

우리는 다른 건 모두 괜찮다. 이주여성들이 나쁘다, 돈 때문에 와서 도망간다는 식의 비난도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다.

다들 간식도 준비해 오고, 돈도 모아주고, 익산에 있는 이주여성들도 많이 참석했다. 한 3백명 모였던 것 같다. 익산시장이 바로 사과했으면 일이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익산시장이 나와서 씩 웃으면서 칭찬이었다고 핑계를 댔다. 그날 엄마들이 물병 던지고, 울면서 항의하는 등 일이 더 커졌다.

시장 만날 때 나도 면담 대표로 참석했는데,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하라는 것에 답변을 제대로 안줬다. 그래서 급하게 전국 단위 집회를 추진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인종차별 이슈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낸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건 이후 변화가 있나?

그렇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긴밀히 연대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의도 연대하게 됐다. 익산시장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 세상, 성범죄 천국이 된다는 내용으로 각국 언어로 번역돼 여기저기 뿌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찬성이유는 각국 언어로 번역돼 홍보되지 않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홍보물이 빠르게 나오더라. 회원들이 성소수자 문제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익산시장 사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들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활동하면서 어려움은?

많다.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까지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가 있어야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봉사자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말을 잘해도 쓰는 건 어렵다.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2014년에 창립을 한 단체다. 처음 1~2년은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시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가 있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엄마로서 분노와 불안이 많았다.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은 정치나 인권 쪽 방향 보다는 민주주의 활동으로 생각했다. 우리도 투표를 많이 해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독려했다.

그런데 연합회 일과 사회적 기업 일 등 너무 일이 많았다. 그때는 중국어학원도 운영할 때라 너무 힘들어서 연임을 거부하고 다른 회장에 게 넘겼다.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은 임의단체라 다들 회비도 안내려고 해서 제가 벌어서 다 운영을 해야 했다.

이주여성들도 정치인으로 배출하면 좋겠지만, 설립 목적과 달랐다. 새내기 유권자, 미래 유권자로서 우리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는 게 목적이었지,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보이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다.

다른 이주관련 단체를 만나거나, 함께 활동을 한 경험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이주여성단체들은 거의 알 것 같다. 대부분 동아리 수준이고, 나머지는 회장만 있고 그렇다. 한국인들이 하는 단체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해봤다.

반면 다문화, 이주민 타이틀만 달고 자기 이익 추구하는 단체들도 많이 봤다. 처음에는 단체 이름을 보고 접촉했는데, 만나서 보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만든 단체들이었다. 다문화 단체 만들면 지원받는 줄 알고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는 일부이고, 의미 가지고 하는 단체도 많다. 이제 이주노동희망센터도 알게 됐다. 2019년에 이주인권대회에 참가해서 많은 단체들을 알게 되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출신국가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고민한 적은 있는가?

보건소에서 통역업무를 했었는데, 10년을 한국에 있었다는 노동자들도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왜 못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구로나 가리봉동쪽에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도 많고 노동자도 많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주민단체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받기 어렵다. 우리가 당사자들을 만나는 게 더 쉬울 텐데, 이주민단체에게 그런 사업을 안주려고 한다.

지금 활동의 목표는?

이주여성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만드는 것이다. 1세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제 노인이 되고 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생긴다. 예전부터 이주여성노인복지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지금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15세 이후에 배운 언어는 치매에 걸리면 모두 까먹는다고 하더라. 아이들에게 엄마 모국어를 안 가르치면 나중에 소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회원들한테 이야기

하곤 한다. 이주여성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꼭 필요한 이유다. 애들 크고 나며 갈 데가 없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혼자 살다가는 고독사할 것 같다. 나이 들면서 더 처절하게 필요성을 느낀다. 몇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현재까지 10억을 모았다. 10년 이내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주운동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주민 참여가 너무 적다. 당사자 목소리가 커야 영향력 크다. 이주민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왜 한국인들이 난리야’라는 반응을 받는다.

이주민을 위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옛날보다 조건이 엄청 좋아졌다. 이주민들 크게 차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참는다. 본국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깐 같이 일어나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가 더 많이 당하면 모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아니다. 피부색깔이 차이 나는 민족이나 이슬람은 어떨지 모르겠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인 혐오가 심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 때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집 앞에 똥을 뿌리는 사건도 있고, 정치인들이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했던 것은 분풀이였다. 이주여성 사이에서도 중국인 차별 발언이 있어서 상처받기도 했다.

하지만 큰 사건이 없는 것 보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단속으로 인한 사망사건도 줄고, 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관련 NGO가 더 해야 할 역할은?

중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주민과 정보를 연계해주는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하면 많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편견들이 더 빨리 퍼진다. 이주단체에서 이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도 차별적 발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가?

차별적 발언에 대해 일상적으로 찾아내서 대응하는 역할을 이여인터가 이미 하고 있다. 우리도 수시로 하고 있다. 지방MBC 뉴스에서 다문화가정 이혼율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서 신문에도 보도됐다. 기자한테 전화했더니 자신이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며,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안됐다. 우리가 MBC에 공문 보내서 항의했었다.

연합회 일상적인 활동은 어떤 것인가?

선거참여, 인권 등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자녀들 합창단도 만들어서 활동한다. 경제교육이나 봉사활동, 청소년 교육, 통번역 강의, 보조금 사업으로 자신감 회복 훈련 등을 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자신감 회복은 어떤 의미?

결혼한지 5년쯤 지나면 무기력한 시기가 온다. 한국 와서 아이 키우고, 돈 벌고 남편 뒤치다꺼리하다 보면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위축감이 심해진다.

‘신데렐라 파티’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모국어로 말하게 한다. 대부분 울면서 말하는데,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라 못 알아들으면서도 함께 울게 된다.

한국 여성들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문화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은 그런 센터에 가서 융합하기 힘들다. 저도 얼굴이 한국인과 다르지 않고, 성격도 소심하지 않는데 한국인만 있는 곳에 가면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주여성들은 친구를 만나는 게 더 필요하다.

연합회 회원들의 자녀들은 이중언어를 잘 구사하는가?

모두 그렇지 않다. 이중언어 정책에 대해 좀 비판적이다. 학교에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해 1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데 효과가 없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문화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가정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부모가 이중언어를 잘 사용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 이중언어 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쓰이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중언어 일을 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불만은 이해한다. 호봉도 없고, 경력도 인정 안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실제 그 업무를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만든다고,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는건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국가 임용고시처럼 제대로 교육하고 엄격하게 선발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문화 자녀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제2외국어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이주 관련 단체들이 해야 하는 해외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으로 구호사업은 관심이 없다.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다. 그 나라에서도 포기한 상황이다. 희망을 만드는 아이들, 꿈이 있는 아이들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00명을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1명의 꿈을 지원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국 장점을 살려서 문화예술 재능이 있는 아이를 지원하면 그 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주민? 노동자? 이주노동NGO는?

-이주노동 NGO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기획 및 제작: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

지원: 아름다운재단

전화: 070-4632-5890

홈페이지: <http://ijunodong.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junodong/>

이메일: ijunodong@gmail.com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길 서울혁신파크 18동 2층

